[다섯번째 설교집]

경주자의 인생

임 동 선

쿰란출판사

머리말

사도 바울은 달리기를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단거리보다는 장거리 달리기를 더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시절에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행 9 : 1),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로마로 달려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 그의 달리기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같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며 달리기를 하였습니다(고전 9 : 26~27).

그의 나이 60이 넘어 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 13~14)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경주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부족한 저도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받아 경주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이라면 세계 방방곡곡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머리말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널 때는 그 어느때보다도 감격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지역교회(L.A. 동양선교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저는 뛰는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상처 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한 심령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또한 이민 교회의 성장은 목사가 타는 자동차의 마일리지 숫자에 비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나이 80세가 가까웠지만 지금도 저는 달려가기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뒤를 돌아볼 때 나름대로 열심히 경주자의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푯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설교집 「경주자의 인생」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집은 제가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책을 읽으시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이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지침

머리말

과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원고를 정리하고 글을 다듬어 주신 남진주 사모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저의 기쁨이 되시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해 주신 쿰란출판사의 이형규 장로님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8월 1일

임 동 선 목사

차 례

차 례

제3부 힘써 기도하자

제4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차 례

제5부 경주자의 인생

제6부 현실과 우리의 사명

제1부

영원한 행복

봄동산으로의 초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아 2 : 8~17).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가서를 가리켜서 일명 '노래 중의 노래(song of songs)'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결단코 육체적인, 심미적인, 본능의 충동적인 사랑만을 속삭인 세속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가서는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높은 신령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즉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술람미 여인은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상징해서 아가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가 빨리 달려오는 모습

본문 8~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 왕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모습을 묘사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흡사 요한복음 10장 3~4절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비록 미물의 짐승이지만 수많은 목자 가운데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양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혼한 아내들은 남편이 해외에 무슨 볼일이 있어 나갔든, 남편이 사업으로 먼 곳에 출장을 나가서 전화가 걸려오면 반갑고 기쁘게 마련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졌고 얼굴은

못 볼지라도 그 목소리를 듣고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먼 곳에서 달려오면서 무슨 소리를 했든지 술람미 여자는 그 목소리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고 분별을 해서 알고 기뻐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 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빨리 달려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그 찾아가는 자의 마음은 달려가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슴이 달려오듯, 노루가 산을 넘어오듯 빨리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보면 사자나 호랑이에게 쫓기는 사슴, 노루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찾아갈 때, 빨리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는 "사슴이 달려오듯, 노루가 달려오듯 빨리 달려오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1948년 1월 9일은 제 생애에서 길이 잊지 못할 날 중의 한 날입니다. 그날은 바로 제가 결혼식을 올린 날입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반에 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방학 때 친구 한 사람과 함께 한국의 서장이라는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겨울방학이었고, 결혼 전날인 1월 8일이었습니다.

정선에서, 영월을 거쳐 단양에 도착해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일찍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는 경상북도 예천읍 황씨 가문을 찾아가는데, 태백산을 타고 넘어가야만 하였습니다. 그때는 해방 직후여서 기차도 뜸하고, 자동차도 별로 구경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고, 함께했던 형제는 발걸음이 얼마나 느린지, 저는 앞서 달려갔습니다.

마치 사슴과 노루와 같이 빨리 태백산맥을 넘어 예천을 향해 달려 갔습니다. 그리고 김 장로님 댁에 가서 결혼 준비를 하고 1월 9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마음은 마치 사슴과 노루의 발걸음과 같이 빨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앞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조금 침착한 모습입니다. 얼른 드러내지 않는 처녀입니다. 마치 중앙에 들어 있는 과일과 곡식의 씨처럼 말입니다. 이 여자가 창살 틈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벽 뒤에 와서는 담이 뚫어지고 금간 곳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엿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나이는 열여섯 살이었는데, 한창 사춘기였습니다. 제가 인천 형님네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인천역 뒤에 송현동의 골목 모퉁이에 조그만 가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었는데 제 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탕도 팔아 주고, 읽지도 않는 책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문학책이나 철학책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그 가게 앞을 왔다갔다하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간절하고 애달프게 보고 싶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몸이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는 비유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슴과 같이, 노루와 같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찾아 예수의 짝으로 삼아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같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자의 초대의 말

본문 10~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즉 빨리 나와서 나와 같이 새가 노래하는 저 꽃 핀 동산으로 가자는 초대의 말입니다. 심리적인, 육체적인, 본능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영혼의 초대입니다. 깨끗하고, 높고, 귀하고, 값진 영혼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향기는 더하고, 새는 노래한다' 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엄동설한(嚴冬雪寒)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왔다는 표현입니다. 즉 "봄이 돌아왔는데 어찌 깊은 어두운 방에만 그대로 앉아 있겠느냐?" 라는 말로써 불러내는,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 모든 초목이 죽은 것같이 나무에는 앙상한 가지뿐입니다. 동물들도 깊은 구덩이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냥 봄을 기다리며 움츠리고 앉아 있는 것이 겨울입니다. 즉 고통의 기간을 뜻합니다. 고독한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소생하는 봄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우리 앞에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고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통, 사회에서 일어나는 고통 등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하루에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중에도 겨울이 있고, 봄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항상 봄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햇빛이 쨍쨍한 정오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겨울이 닥쳐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달만 지나면 겨울이 지나가는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내게 속해 있는 고통과 어두움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한국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시대가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결국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6 · 25 한국전쟁이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물러갔습니다.

저도 오래 전에 미국에 단 50불만을 들고 건너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쇄소에 취직하여 그 순간들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많은 고생이 뒤따랐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받은 삯은 1시간에 1불 65전이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겨울들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고통이 지나가고 지금은 봄 속에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겨울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 달만 희망을 가지고 잘 참으십시오. 반드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 앞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기쁨의 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비는 그쳤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

는 지상의 환난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십 년 전 미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 중부쪽에는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도심지에 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비는 봄비와 같지 않습니다. 아주 차가운 비로서 사람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비도 그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가 몹시 아파서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너무 아파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낫지 않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참고 참다가 그 집사님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이만 아프지 않다면 굶어도 좋고 그저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집사님을 찾아가 이를 보여 주는데 그때, 집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염증이 생겨서 그럽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이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비의 환난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괴로워서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만 비가 오는 것은 잠깐이고, 설사 비가 온다고 해도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땅에 꽃이 피게 마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으로 신비에 속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꽃은 무슨 꽃이나 아름답고 향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조화라도, 모양은 아름다울지언정 향기는 없습니다. 벌이 먼 곳에서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은 꽃의 꿀을 빨려고 날아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꼿꼿이 날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꽃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

꽃의 소재를 알고 그 꽃의 꿀을 가지러 빨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당할 때는 좋지 않지만, 고통을 잘 견디고 그것을 잘 극복한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격의 정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있는 것이 더 나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는 진동한다' 고 했습니다. 이 향기는 겨울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어야만 거기서 향기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백합화 몇 송이를 놓고 자고 일어나면, 그 향기 때문에 취하여 어지럽다고 합니다.

언젠가 수양관에 올라갔다가 산의 나무마다 새싹이 나오고, 들판에는 푸르름이 한창이며 그곳에 핀 각색 꽃의 향기가 저의 코를 찔렀을 때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고통의 겨울 동안에는 향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봄이 되어 꽃이 만발해 향기가 그윽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다른 향기보다 더 진하고, 만약 맛이 있다면 아주 달콤할 것입니다.

또한 '새가 노래한다' 고 했습니다. 겨울에는 새가 깊은 동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봐야 눈이 많이 와서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동굴에서 뛰쳐나와서 넓고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노래합니다. 새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새는 좋은 집도 없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다만 새는 즐겁게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한숨과 눈물 속에서 지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새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향기는 진동하고, 새는 노래하니 너는 나와서 나와 같이 동산에 가자. 나는 네 얼굴을 보기 원하며, 네 말을 듣기 원한다."

또 13절에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미국 대륙과 같지 않고 산이 많아 포도원이나 무화과나무 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과 무화과 동산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주의 포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마음속에 겨울과 같은 고독이 있습니까?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혼자 밤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의 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의 향기가 다 말랐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속, 감격, 감사의 노래가 끊어졌습니까?

이것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에만 앉아서 바라고 있지 말고, 다른 책만 읽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또한 할 일 없이 사우나탕이나 극장, 산으로, 바다로만 가지 마십시오. 현재 겨울의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의 포도원 되는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호칭

본문 가운데 여자의 호칭이 몇 가지 나옵니다.

'백합화'(2절), '나의 어여쁜 자'(10절), '비둘기'(12절).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고상한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옛날의 한국에서도 여자 아이들을 보고 '가시내야', '이 간나야'

라고 불렀고, 부부 사이에서는 '당신', '영감', '마누라' 등의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부르는 호칭이 한층 예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를 부를 때 'dear', 'darling', 'sweet', 'honey'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부르는 호칭은 이보다 더 뜻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라는 말은 외적이고 시각적인 어여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4절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적인 충실과 내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흔히 바라는 여성상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는 인형처럼 예쁘고 귀여우며, 신체적으로는 날씬해야 하고, 매력이 넘치는 여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조건의 여자보다는 심덕(心德) 있는 여자가 더 매력 있고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새요, 온유한 새로서 평화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을 묘사할 때 "비둘기 같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다른 새는 제물로 바치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합화는 다른 꽃과는 달리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을 나타냄이요, 새하얀 색깔은 순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아름답습니다. 가시밭 속에서 자라는데, 바람이 불어 가시가 찌르면 찌를수록 더 향기를 냅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

들은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올수록 더 예수의 특색을 드러내는, 마치 백합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비둘기같이 온유, 겸손하고, 백합화와 같이 순결하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의 짝으로 인정해 줄로 믿습니다.

넷째, 사랑하는 이의 간곡한 부탁

본문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우를 잡으라' 는 것은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는데 여우가 와서 그 꽃을 모두 떨어뜨려 열매를 맺지 못할까 염려하여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가리킵니다. 교활과 의심, 불신앙, 불법, 불의,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등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가리킵니다. 그릇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 미혹, 분열 등을 말합니다. 또한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교활하고 거짓되며 유혹과 타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의 포도밭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포도원의 포도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침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 5 : 8).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단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내는 것에 그치면 참신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포도밭에 침투한 여우를 잡고, 포도 나무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포도를 잘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은사를 발휘해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특수반에 가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안내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밭의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여인의 간청

본문 17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라는 말은 "해가 지고 밤이 지나 아침이 돌아오면, 사랑하는 자야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꽃동산에 향기가 진동하고, 새가 노래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없이 나 혼자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혼자 놔두지 않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짝으로 두셨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절반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의 온전한 인격과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1981년에 제 아내가 병으로 쓰러져 병실에 드러누워 있을 때에, 제가 함께 밤을 새워 가며 아내를 간호하며 기도하기 위해 그 방 안

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는 다른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못 잔다고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잠은 오지 않고 아내 생각만 났습니다. 부부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만 삶의 기쁨과 의미,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치 없는 인생으로 한낱 고깃덩어리,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궁궐 같은 좋은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라면 그 집에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이메르타가 천주교인이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삶에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문벌과 학벌이 없고, 기술과 돈이 없고, 자동차와 집이 새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나와서 그냥 이야기하고, 놀자고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여우새끼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저 깊고 캄캄하고 쓸쓸한 방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령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값있고 복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행복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 91 : 14~16).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므로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교포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만 오면 돈을 많이 벌어 새 차와 새 집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잘 공부시켜 일류대학에 보내고, 자녀를 좋은 사람과 결혼시켜 아들딸 잘 낳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고, 1년에 몇 번씩 외유(外遊)하면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영원한 행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다섯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건져 줄 자가 있을 때 행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 사는 히브리 민족 가운데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어린것이 너무나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왕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생률이 높아 그대로 두면 주객이 바뀔 것 같다고 판단하여 잔인하고도 엄격한 법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 가운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성애가 끓어올라 차마 자식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볼 수 없어 이 아이를 골방에 감추어 기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우렁차 더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자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정처없이 떠내려 보냈습니다.

어린 아기 모세는 기구한 운명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딸이 떠내려오는 바구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어린 아이가 들어 있어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이인 줄 알고 있었지만, 모세를 버리지 않고 궁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죽이기로 되어 있었지만, 이

명령을 어기고도 히브리 아기를 살릴 수 있던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딸, 공주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세가 건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홍수 속에 밀려 떠내려갈 때 우리를 건져 준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공로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죄악에 떠내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 34 : 17).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출 3 : 8).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시 22 : 20).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시 41 : 1).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시 91 : 3).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시 107 : 6).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시 116 : 8).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 : 24).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슥 8 : 13).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갈 1 : 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골 1 : 13).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 1 : 10).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딤후 3 : 11).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 : 17).

"나를 모든 죄과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시 39 : 8).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시 33 : 19).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

지셨음이니이다"(시 86 : 13).

오늘날 교회 바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절망에 빠져 멸망을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인생을 건져 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 속에 살아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죄악중에 떠내려가는 중생을 건져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행복합니다

본문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합니다.

일본에 신도양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와 우주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며 심한 번민 속에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아 구약 첫 장을 열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구절(창 1 : 1)을 읽고 너무나 기뻐 방에서 춤을 추며 빙빙 돌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양철학도 배웠고 여러 종교를 탐구해 보았지만, 인생 문제와 우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 번민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무한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신봉하는 선진국 미국에 가서 좀더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밀선(密船)을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일본의 정부 고관들이 세계를 일주하다가 미국땅에 왔

을 때 통역할 사람을 찾는 중에 그 청년을 통역관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부 고관들은 마음의 흡족함을 얻어 비록 이 사람이 밀항(密航)을 해서 미국에 왔지만 용서할 테니 공부를 마치고 조국에 와서 봉사하면 좋은 관직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뿌리치고 동지사대학을 세워 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높이 들리우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창 2 : 4).

"아브람의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창 17 : 1).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시 42 : 8).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 : 7).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마 22 : 32).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발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신 5 : 26).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신 7 : 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수 24 : 19).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시 7 : 6).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 14 : 19).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행 7 : 2).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신 4 : 31).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대상 16 : 35).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수 24 : 18).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어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시 43 : 2).

이름은 그의 존재, 그의 인격, 그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룩하신,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세계 3대 천재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합

니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산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민 중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시 23 : 1),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주관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 8 : 15)고 했으니 유일무이(唯一無二)하시고 영원히 자존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부를 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 봐도 메아리만 돌아오는 그런 신을 믿는 자에게는 결단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답해 주는 분이 있으므로 행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5~29절을 보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목이 터져라고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을 찔러 피를 내면서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면 불로 응답해서 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즉시 불이 떨어져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처럼 부르짖을 때 대답하는 분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넘어져서 다쳐 울거나 또는 배가 고파서 웁니다. 이때 엄마를 찾으며 목이 터져라 하루종일 불러도 대답해 주는 엄마가 없는 아이는 불행합니다. 내가 깊이 병들어 화장실도 못 가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남편을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이 없는 여인은 불행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국에 와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노인아파트에 갇혀 며느리와 사위를 불러 봐도 대답이 없을 때 부모님들은 불행합니다. 그 누구와의 대화도 없이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미국 음식을 마지못해 먹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대화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화하며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대답해 주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부부지간, 부모와 자녀 간, 형제지간, 이웃지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미국에 와서까지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집에 살면서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적은 물질 때문에 감정이 상하여 대화가 끊어진 집이 있습니다. 이웃과도 몇 해를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불행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

지만 대화는 많아야 합니다.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어도 부모님이 아픈지, 병원에 갔는지, 심지어는 죽었는지도 모르는 자식은 불행합니다.

또 다른 대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대화를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지, 정, 의, 거룩의 네 가지를 완전히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을 하면 허공에 메아리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도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고,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시 3 : 4)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외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시 34 : 17)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의 황금시대를 이룬 참 출중한 여왕이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여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남편은 알버트란 사람으로 1861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왕은 21년간 홀로 살아 매우 고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그녀의 왕좌, 면류관, 호화 찬란한 옷, 좋은 음식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한번은 그녀가 가장 친한 여자친구에게 찾아가서 "항상 조언이 필요하나 옆에는 아무도 없고 늘 허전하니 외로움을 떨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전할 때, 우리가 고독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대화의 대상이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사업에 실패를 보았을 때, 몸에 중병이 들었을 때,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조언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대화의 상대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방백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대화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 7 : 7)라고 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목적이 깨끗하고, 분명하고, 진실되고, 참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 : 5)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반드시' 라는 말이 씌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는 비단 지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민거리, 해결할 문제 등을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것을 후히 주시며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는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1986년 미국의 파사데나에서 열린 아세아 선교협의회에 참석했다가 우리 교회 대학부를 맡고 계시는 조갑수 목사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오신 옥타비오노스 목사님

은 과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분은 사범대학 학장도 역임하였고, 지금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개인 문제가 있으면 이 분에게 자문을 구하곤 한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해서 간증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은 옥타비오노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시골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곳은 회교도들, 불신자들,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하는 중에 비가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때 무당 하나가 이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다면 기도해서 이 비를 그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비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온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난 중에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15절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어려울 때 동행자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개중에는 술친구도 있을 것이고, 노름 친구도 있을 것이며, 오락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세의 길을 올라갈 때는 친구가 많지만,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갈 때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내

가 실패하고 역경에 처했을 때, 내가 깊이 병들고 고독에 처했을 때, 내가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변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문전에 줄을 서는데 정작 그 정승이 죽으면 문전에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와 같이하며 같이 울고, 같이 웃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고맙고 기쁘고 힘이 되는 말입니까? 나의 부모도 때로는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십니다(시 27 : 10).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 : 4).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신 32 : 10).

"주께서 우리를 사랑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시 44 : 19).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

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출 23 : 20).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시 40 : 11).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 : 4).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시 37 : 28).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20).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것은 눈동자만 마주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과 같이 있으면 자식의 모든 것을 돌아보아 주는 것처럼, 건강 문제, 의복 문제, 음식 문제, 교육 문제를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사에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한번은 오고에 강에 가서 조그만 통나무 배를 탔는데 자신의 앞뒤에 흑인이 한 명씩 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푹 찌르고 도망가면 악어가 삼킬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며 세상 끝 날까지 같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쓸데없는 걱정이 떠나가고 마음에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친한 친구가 와서 대화를 나누고, 위로

해 주고, 격려해 주며, 용기를 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영원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째, 내게 만족을 줄 때 행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사는 복을 주심으로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욕구 불만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반항과 도전, 난폭과 무질서, 절망과 좌절 등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다면, 물질은 유한하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누가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인간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넘어도 넘어도 산이 있고, 해도 해도 한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까운 역사를 보더라도 2차대전이 끝나면 좋아질까, 해방되면 좋아질까, 이 대통령이 물러나면 좋아질까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가도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대답은 "No!"입니다. 물질은 유한하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문제는 점점 더 산적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지구를 떠나서 다른 혹성에 가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문제

가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사람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나중에는 세발자전거를 사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두발자전거를 사 달라고 하고, 다음에는 오토바이를 사 달라고 하며, 나중에는 자동차를 사 달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차를 타고 싶어하고, 비행기를 타고 싶어합니다. 우주선까지 타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허전한 이 마음, 무저갱과 같이 밑바닥이 뚫린 마음, 이 마음에 그 무엇으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음 한 쪽에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신령한 양식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만이 인간이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톨스토이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많이 하였으며, 사회적인 명망(名望)을 가졌고, 의식주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후에 간증하기를, 하나님 품안으로 돌아와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품안으로 돌아와서야 안식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 : 11).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 : 4).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사 55 : 1~2).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7 : 38~39).

성령을 받아야만 마음속에 참된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참된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 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건강에서 찾습니다. 혹은 지식, 성공, 향락, 명예 등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순간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찰나적인 행복,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결단코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분을 찾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부르짖을 때 곧 응답해주시는 분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있을 때, 또한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을 채워 주시는 분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옛 법과 새 법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마 5 : 38~42).

본문의 제목을 바꾸어 말한다면, '모세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교훈은 구약 시대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교훈은 신약 시대의 교훈이라 덧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와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봄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옛 법

옛 법이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교훈을 말합니다. 누군가 내 눈을 빼면 그의 눈도 빼고, 내 이를 부러뜨리면 그의 이도 부러뜨리고, 내 손목을 부러뜨리면 그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녀라도 그를 죽이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보복주의(報復主義)와 국수주의(國粹主義)를 뜻합니다.

복수주의는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볼 때, 원시시대에도 모든 가족 사이에 유혈의 복수가 있었고, 부족과 부족 사이에 유혈의 복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아 소생의 딸 디나를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강간을 함으로써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복수해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오빠가 계락을 써서 선민과 결혼하려면 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여 진통이 최고에 달했을 때, 두 형제가 성에 가서 그들을 전부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말에 '가다끼 우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갚는다' 는 말입니다. 가령,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으면, 부인은 자식이 자라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서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산에 가서 검술을 배워 내려와 그 원수를 죽입니다. 이것이 일대일, 상대성 보복입니다.

미국의 서부영화를 보더라도 인디언은 백인을, 백인은 인디언을 죽이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군함이 가서 함포 사격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 마을을 쓸어버리는 보복을 합니다. 유고슬로비아에 티토 대통령이 있을 때 여러 부족을 합해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공산주의가 와해되어서 부족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들이 일상적인 모든 일을 합니다. 즉 여자들이 소와 말에게 먹이를 주고, 밭일과 농사일을 하며, 물을 길어 오는 일을 합니다. 반면 남자는 '전사' 라고 하며 부족 싸움이 일어나면 즉시 나가기 위해 항상 대비하여 창과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 아이도 활과 창 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생존을 위해 짐승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짐승 잡는 법도 배운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는 에덴동산의 사탄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비롯한 피 흘리는 역사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지구는 피비린내 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의 법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군병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참다 못한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군병의 귀를 칼로 잘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마 26 : 52).

위의 상황에서 어쩌면 귀를 친 베드로(요 18 : 10)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이 없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므로 공격에 수비를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용감하다, 사내답다, 수제자답다, 나를 아끼고 보호하는 호위병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단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원 높은 교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새 법

(1) 오른편 빰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야 합니다.

눈은 눈, 손은 손, 이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보복주의의 오랜 역사를 뒤엎고 예수님께서는 오른빰을 때리면 왼빰도 돌려 대라는 특별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한 무관심, 도피, 비겁이 아니라 불의와 악을 시정하는 진정하고 차원 높은 희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로써 교육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신도양이라는 동서대학의 학장은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학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과의 마찰로 동맹휴교(同盟休校)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장이 몇 날 몇 시 어디에 모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서, 학교에 오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모, 교수, 교직원, 신문 기자들까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때 그는 몽둥이를 들고 책상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 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군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학장인 나의 책임이니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주모한 학생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기를 때 3~5세 정도 된 아이를 잘못했다고 나무라고 회초리로 때린다고 다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 살이지만 철이 있고 깨닫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으니 엄마가 맞겠다고 자신을 때리면 그 아이들이 울면서 자신들이 잘못했

다고 빌 것입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밀면 더 근본적이고 진정한 시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욕설에도 분개하지 않고, 복수할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것이 참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잘못한 것이 없건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탐식가,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잔칫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니 술을 좋아한다, 창녀집에 가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니 창녀를 좋아한다, 창녀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과 얼굴에 일체 동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돌은 돌이며 금은 금인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한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 "왜 이 나라에 와서 없던 도를 선포하느냐? 우리 나라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종교가 있는데 왜 새로운 종교를 선포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그 자리에서 임금에게 말하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받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임금이 화가 나서 당장 옥에 가두라고 하니 전도자는 태연히 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도 예레미야 선지자,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이 옥에 가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그를 무인도에 귀향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님, 복잡한 세상에서 잡음소리 듣지 않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까?" 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목을 자르라고 하니까 "임금님, 나같이 부족

한 것도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참그리스도인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미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보통 사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악한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2)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쉽고 빠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관습, 사회 실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질 때문에 소송을 했을 경우, 만약 예수님의 교훈대로 따른다면 소송을 하지 않고 물질에 대해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속옷과 겉옷 두 벌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살아 보니까, 중국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1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었습니다. 때가 묻어 반질반질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은데도 한 세숫대야의 물을 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손자가 다 씻습니다. 수건도 시커멓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보릿고개 시절에는 굶는 경우가 많았기에 아침 인사가 "진지 잡숴어요?"였습니다.

시골의 한 목사가 친목회에 참석하였는데 사모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 보니, 옷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는 남자의 경우 긴 포대 같은 자루에 구멍을 뚫어 겉옷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겉옷은 요도 되고 이불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좋은 요나 이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우면 겉옷으로 요를 깔고, 목자가 양을 치다가 날이 저물어 집에 갈 수 없을 때 겉옷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겉옷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겉옷까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까지 주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27절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이든지, 인간관계 속에서이든지, 또한 다른 어떤 것에서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보아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초에 저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설득하여 이 사람을 도와 주자고 하여 돈을 여기저기에서 꾸어 그 사람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제가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 꾸어 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그분에게 직접 말도 못하고 또 저에게도 달라는 소리를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었기에, 저는 혼자서 돈을 모아서, 군에 간 아들이 월남에서 보내온 돈까지 다 동원하여 빌린 만 불을 갚았습니다.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손해를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전에 저희 교회 4층에서 상공회 주최로 한흑관계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연사로 온 사람들은 대략 언론계, 식품상 협회 상인 대표, 교계, 학계, 정치가, 변호사, 회계사, 영사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나중에 집약을 해서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니 인종 문제보다는 흑인들의 가난과 무지, 개인 문제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흑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서로의 문화, 정치, 경제, 가정 환경을 좀더 연구하여 선입관을 버리고 참형제, 아담의 한 자손인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반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 셈은 동양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되었고,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원래는 같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의 결론은 한국인과 흑인도 형제애를 가지고 한흑사회 지도자끼리 서로 협력하고, 한흑 공동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피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동 복지 발전에 협력하고 서로의 관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기관을 만들어 구체적,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는 분 가운데 이정 씨라는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은 흑인 동네에서 27년간 사업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분이 흑인을 대할 때 사랑과 친절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동업자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는 돈을 벌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봉사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운동 시합을 하면 유니폼을 만들어 자기 상표를 붙여서 주고, 점심도 대접하고, 영어를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흑인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교인들을 친구 삼고, 장례식 때는 누가 죽었든지 꼭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Hey"라고 하는데, 이것은 옛날 주인들이 노예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흑인들은 금방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고 합니다.

동부에서 어떤 흑인 여자에게 돈을 줄 때 던져서 돈이 땅에 떨어져 줍게 했는데, 그것이 흑인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과 공격을 야기시켰습니다. 흑인들에게 '니그로', '칼라' 라는 말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아프리칸-아메리칸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군인 출신의 어떤 사람이 가게를 경영하는데 흑인이 돈을 주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기에 그를 불렀더니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태권도 사범 출신이 돈 주지 않는 흑인을 불러 세웠더니 흑인이 총을 쏴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기풍 집사님이란 분이 흑인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들이 가게에서 돈을 세는 중에 흑인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기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화가 나서 2층에서 내려오는 그 집사님과 그의 아내를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또한 유정수 집사님은 내외가 가게에서 함께 일하시는데 강도 4명이 와서 총을 막 쏘았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이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총을 쏘았는데 그 중 세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흑인 동네에서 장사할 때 이정씨처럼 흑인들을 잘 다룰 수 있으면 그냥 그곳에서 하고, 그렇게 안 되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는 것은 물질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처리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3)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십 리를 동행해야 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편지나 소포 같은 우편물을 전달할 때 말을 타고 다녔는데 하루에 못 가는 길이 많았기 때문에 가는 길에는 꼭 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막사에 가면 한 사람이 있어서 우편 배달부가 오면 먹고 마실 음식, 말이 먹을 사료나 새 말을 준비했다가 주고 그 이튿날 다시 떠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사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 중 아무나 붙잡아 먹을 것, 마실 것, 말 사료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강제로 노동을 시키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쁜 마음, 불쌍한 마음, 희생 정신을 가지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이 하기 싫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키니까, "로마인들이 너희에게 국가적인 배경으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오 리를 가게 하면 십 리까지도 가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석이 아닌 다음에야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제가 1948년 서울신학대학을 2년째 다닐 때,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지게를 하나 사서 서울 정거장에서 지게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학생 총회가 있어서 다 마치고 지게를 지고 정거장에 갔습니다. 기차가 오면 지게꾼들이 출구로 몰려 서로 짐을 지고 가겠다고 싸웁니다. 저는 신학생이니 조금 멀리 서서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등을 쳐 보따리를 맡겨 주면 지게를 지고 가는데 제가 먼저 삯을 얼마 달라고 한 적이 없고 그저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동대문까지 간다고 해놓고는 자꾸 가서 고려대학이 있는 동네까지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예수 믿냐고 하니 그는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의 직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이며, 장로 아들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전도를 한 후 그 분 집에 짐을 잘 내려놨더니, 그 분이 서울 정거장에서 준다던 돈의 배를 학비로 보태 쓰라고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정해진 액수를 말했거나 더 원했거나 그 이상을 탐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 주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4)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술주정뱅이가 술 더 내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도가 총을 달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거나 옷을 달라고 하면 주라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 : 16~17).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너무 사치하고 호화 생활을 하며,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는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복을 주었다고 해서 너무 허영과 낭비와 사치만을 일삼으면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 선교, 구제 사업에 부지런히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전에 한국 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대구 술집에 한 청년이 돈도 없이 와서 술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청년에게 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화가 나서 총을 빼서 주인과 그곳의 손님들을 쏘았습니다. 만약 그 술집 주인이 술을 달라는 청년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빵 하나를 훔친 장발장이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에게 일할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고 너무 배가 고파 은촛대 2개를 또 훔쳐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신부님이 태연하게 그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후에 장발장은 회개하고 프랑스의 작은 시의 유명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겉옷까지 다 주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까지 오 리를 가자고 하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 리를 가셨습니다. 꾸러 온 자를 물리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 중 왕”이라는 기독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은 복음서에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은 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병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번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면 기회가 없으니 고쳐 주세요.”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중에도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시는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사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흑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종이 다 겪는 일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 발전의 한 과정인 줄 알고, 절대로 인종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태연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밀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보다 더 명랑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참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 : 34~35).

요한복음 13장은 크게 네 가지 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1~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기사이고, 21~30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탈한 기사입니다. 본문 31~35절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기사이고, 36~38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놓고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타살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막내 제자 요한만 자연 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 즉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나이가 90세가 넘은 고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앉아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마다 젊은이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강단에 앉혀 놓으면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매주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니까 한 젊은이가 왜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다 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설교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그만 쓰러져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 : 10)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교는 자비의 종교, 회교는 복종의 종교, 유교는 인(仁)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며,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해야 할 이유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35절)는 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구절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이 불러 준다고 했기 때문이요,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허구한 날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며느리, 손자하고 싸우고, 또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이나 이웃집 사람들하고 싸운다면 어찌 저를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해야만 남들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기사 이적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의식이 좋아서가 아니고, 신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사회도 사랑이 있어야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 말할 때, 그 가정은 건물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내면으로 그 가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좋다고 해서, 가구가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남편이 학벌이 좋고,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고, 잘산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7 : 1),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 15 : 17)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움막

에서 때로는 끼니를 굶고 죽을 먹는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건강하며, 서로 사랑하고, 돕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불신과 증오, 싸움, 시기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살아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호 대기 상태에서 젊은 내외가 이야기하느라고 파란 불을 미처 보지 못했을 때, 뒤에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빵빵' 하고 클랙슨을 눌러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나 방해할까 싶어 그냥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둘이 열중해서 사랑을 나누기에 신호가 바뀌는 것도 몰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좋지 않습니까?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창조해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마련입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을 가르치시던 이명직 선생님, 이건 선생님, 박현명 선생님, 김의현 선생님, 김응조 선생님의 가르침들을 제 나이 60이 넘었지만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분들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분들을 닮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스승을 닮아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이 살았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수신제가(修身齊家)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도 사랑하고, 나가서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

은 나가서는 사랑하는데, 집에서는 마귀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 : 7~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 : 14).

제가 1980년대에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유 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분 내외는 침례교 신자이셨습니다. 세례 교인이고 두 분 모두 집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댁을 방문하는 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저만 부른 것이 아니라 30명 정도 되는 온 교인을 다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음식을 들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였는데, 대사님 내외가 계속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부흥회하는 동안 대사 부인께서 감주와 떡, 케이크 등으로 교인들을 전부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300명의 교포가 사는데, 신자 뿐만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대사 부부를 존경하였습니다. 대사께서 저에게 여기 계시면 고생이겠지만,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대사는 프랑스 대사로 가서 더욱 큰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불

신자도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랑의 방법

(1)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밑에 두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는 조금 높은 곳에 데려다놓고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더 깊고 높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와 보니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깼는지 안 깼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야단도 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원수가 와서 잡아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 가야바, 헤롯 왕에게 심문을 받을 것입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 강도 틈에 끼어 벌거벗고 죽임을 당하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해서 이마에 피땀을 흘려 가면서 기도하는데 이 어리석고 무정한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웬만

한 성급한 사람들은 아마 날벼락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하시며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사랑에는 이해가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성이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르고, 그 사람의 입장과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산다면 가정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사회에서도 각기 개성, 사고방식, 입장, 경험이 다른 것을 이해한다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 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ing' 입니다. 이 말을 두 단어로 나누어 보면 'under' 와 'standing' 입니다. 즉 남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의 밑에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고 그저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누가 말을 하면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지요, 저와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그냥 따라가지요." 하면 될 텐데, 끝내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밑에 내려가려고 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서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인간관계가 원만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2)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고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사람은 따지고 또 따집니다. 학교는 서울대학을 나와야 하고, 서울대학에서도 상과나 법과나 공과를 나와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하고, 키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사교춤도

출 줄 알아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도 해야 하고, 음악 감상과 영화 구경도 자주 해야 한다고 줄줄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또, 앉아서 벌어다 줘야 하고, 맏아들은 싫고, 시누이가 있어도 싫고 등등 많이 따집니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 부모, 내 처자, 내 형제, 내 친척, 내 친구, 내 고향, 내 민족, 내 교회, 내 교파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하나님 앞에는 그만두고라도 자기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8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고, 아버지를 버리고 멀리 떠났고,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육체를 함부로 다루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고, 아버지를 톡톡히 망신시켰고,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는 아주 톡톡히 나무람을 받을 만한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방탕하는 과정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고, 좋아하던 여자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부잣집 돼지 치는 일을 하였는데, 밥은 안 갖다 주고 돼지가 먹는 찌꺼기를 먹으라니,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생명이 아까운 고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 아들로서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부자이고, 지금도 품꾼 머슴이 많으니 머슴의 하나로 인정해 달라며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항상 걱정을 하였습니다. 자나깨나 밥도 먹을 수가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비바람이 불고, 날이 추우면 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웬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어디서 본 듯합니다.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니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 두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곧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죄 값으로 저 고생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옷은 걸레조각처럼 찢어지고, 몸에서는 돼지똥 냄새가 나서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이꼴이 되어서야 집에 오냐고 야단을 칠 텐데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들이 죄를 지어 나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으니 품꾼으로 써 달라고 해도 그런 말에는 대꾸도 안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붙여 사랑할 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하고, 아내가 이해를 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조건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정에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좀 섭섭한 것이 있으면 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할 때,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3) 용서가 따라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벧전 4 : 7~8).

제가 한국에서 군종감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군종감을 한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붙잡고 못 나가게 한 것이었는데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군종감 자리를 뺏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고, 미국에 갔다올 때 밀수했다고 말하고, 군목 군수 창고에서 도둑질했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모함을 했습니다. 내무장관과 경무대에게 고자질하고, 대통령에게도 이야기하여 결국 제가 공군 참모총장에게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문제가 나서 법정에 서면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잘 가릴 수 있도록 내가 당한 모든 일을 자세히 써 놓아야겠다고 생각하여, 다 기록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지 않느니라."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그 종이를 찢어 버렸습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잘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좋을 때는 죽자사자하면서 행복해 하지만, 조금 섭섭하면 지금까지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결혼식 때부터 오늘까지 잘못한 것만 모두 꺼내 놓습니다. 과연 이런 부부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는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섭섭한 것은 반석에 새긴다는 말이 맞습니다. 열 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부부지간에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1, 3장을 보십시오. 바람난 한 여자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성직자이고, 자식을 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만 유혹을 받아 집을 뛰쳐나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 동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 여자는 하나님이 중매한 여자입니다. 남편은 성직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남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어린 자식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부정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편과 자식이 무슨 상관이냐, 나 좋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방탕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호세아의 태도입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오며 그 남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남자 구실 못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아내를 이렇게 만든 나를 용서하시오. 그저 내 어린것 보아서 놓아 주시오. 내가 돈을 줄 테니." 하면서 은 열다섯 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데려오면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좇지 마라. 나도 네게 그렇게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에 이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인이 딴 남자와 외도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어서 자기 아내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 식구들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즉 우리 집안은 가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주변 사람들의 성화 때문에 결국 아내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한 목사님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사이에 사모님이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가정 교사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일본에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모두 용서하였습니다. 사모에게 모든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집을 비운 본인의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한 것입니다. 현재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내인 사모가 이런 일로

자기에게 죄책감을 느낄까봐 더욱 사모에게 잘 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참용서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즉 용서를 하되 부분적으로 용서하지 말고, 완전히 일흔 번이라도 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눅 23 : 34).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4)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살전 1 : 3).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고,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 희생합니다.

제가 나이 17세쯤 되었을 때 만주에서 살았습니다.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우리 형님 세 분을 따라 도끼와 톱을 가지고 깊은 산에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어 읍 정거장에 가서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눈이 많이

내려 온 길이 눈으로 덮여 가는 길이 어려웠습니다. 리어카를 타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 불평 없이 가족들을 위해 가는 형님들을 보고 어린 내 마음에 '이런 것이 바로 희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 : 8).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모르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었을 때에 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눅 10 : 30~35).

위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네 가지 희생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즉 정신적 희생, 육체적 희생,

시간적 희생, 물질적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 칼에 찔려 신음하는 사람,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긴 정신적 사랑입니다. 당나귀에 싣고 여관에 간 육체적 사랑입니다. 밤을 새워 가면서 간호해 준 시간적 사랑입니다. 갈 때 돈을 준 물질적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 희생을 함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사랑하려면 이 네 가지 희생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며칠 전부터 밤을 새워 가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애쓰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희생적 사랑이 발휘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 곳곳에서 성도들이 정성 어린 헌금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랑의 희생을 발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사랑의 대상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 22 : 22).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 : 27).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 : 2).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마 9 : 35).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 : 13).

우리는 고아, 과부,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를 사랑하셨고, 특히 각색 병에 걸린 자들을 사랑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주었습니다. 또 사랑의 헌금으로 한국의 고아원과 양로원, 나병환자들을 돕고 있고, 170여 군데의 농어촌 교회도 돕고 있으며, 제3국의 20여 개 나라에도 저희의 사랑을 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주위에 직업을 잃고, 먹을 것이 없고,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큰 것은 못 도와도 작은 사랑의 방법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돕고 싶은 분이 있다면 행정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돕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목사님 방에 가 보면 쌀을 많이 갖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목사님들의 차 트렁크에 쌀을 많이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느껴지거나 그들을 발견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술인들을 데리고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장로, 권사, 집사들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자기의 자비로 중국에 간 것입니다. 전에 연변에서 온 그쪽의 예술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우리 쪽에서 모두 비용을 대주었고, 숙식 제공까지 해주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선물을 잔뜩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기 때

문에 자비를 들여서 다녀온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50년이나 뒤떨어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호텔 시설도 별로 좋지 않았고, 먹는 음식도 마땅치 않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다 주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40절을 보면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섰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많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릴 때에 네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했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소자(小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무수히 많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 중에 만약 고아나 과부, 죄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모두 약한 자에 속해 있으며 외로움과 고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지금부터 이런 자들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가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물질적으로도 도울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사랑이요, 큰 사랑을 하기 위한 시작인 것입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들을 돌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물질이 아

니라, 또 더 많은 향락과 과학, 핵무기, 전쟁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누는 진정한 대화, 용서, 이해, 사랑, 화평입니다. 전에 중국에 간 것도 대화, 이해,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힘써 지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아, 말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무언(無言)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 : 13).

성도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꼭 가져야 할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된 신앙적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로 어느 하나가 빠질 때 나머지 두 가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 : 1)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독일

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모든 사람은 신을 갖는다. 참신이건 거짓 신이건 하나를 갖는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지당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 ·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명사는 ‘영원 자존자, 오직 하나이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불변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분, 거룩하신 분, 공평하신 분, 보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든 신을 믿지 않고, 또 고목(枯木)이나 바위를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똑똑하고 잘나고,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 : 16),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 : 10).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기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1)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유교에서는 하늘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악한 죄라도, 어떤 많은 죄라도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성경에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행 10 : 43).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시 103 : 8~14).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미련하고 허물이 많아 항상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범죄를 저지르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으로도 용서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부하셔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므로(히 10 : 17)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물을 가지고 제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 : 1).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은 후에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빠지는 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돼지는 목욕을 시켜도 또 더러운 곳을 좋아하지만, 백로는 늘 자리를 가려서 앉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죄 사함 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 : 39).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 : 24).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 : 28).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것은 행위로써, 또는 노력과 공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롬 4 : 3).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으니,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행위나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의로운 생활이 어떤 생

활인지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 : 13).

(3)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 : 12~13).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돈을 믿으면 물질의 자녀가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 : 15~17).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양자로 들어갔을 경우 그쪽 양부모는 자기를 낳아 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집의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유산이 그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양자의 원리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유세를 부리는데, 하물며 사람

의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특권을 받은 것은 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실, 마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4)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대방의 심판을 받으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심판은 그리 대수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을 면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 : 18).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 : 5).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둑질하다가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잡혀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혀 며칠 후면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루는 이 형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생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면회를 하는 동안 그곳을 지키는 간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때 결혼하지 않은 형이 동생과 수의를 바꾸어 입고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이가 있지만 나는 없다. 너는 살아야 한다."

동생은 형에게 등이 떠밀려 감옥을 빠져나왔고, 형은 동생 대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죄가 없지만 우리들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고, 우리의 손이 지은 죄가 많아서 양손이 못박히시고, 우리의 마음의 죄가 많아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고, 또 우리의 발이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5) 영생을 얻습니다.

인간은 다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욕망 가운데 본능적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색욕, 재욕, 명예욕, 지배욕, 인종욕, 건강욕, 불로욕 그리고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간이 가장 갖고 싶고 바라는 욕망은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 진시황제가 오래 살려고 이슬을 받아먹었다는 이야기나, 동남동녀 3천 명을 고려 땅에 보내 불로초를 캐라고 한 것을 보면 인간에게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오래 살기를 원했지만 자꾸 늙어 가는 모습을 보고, 누구든지 자기를 오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살아 생전 거울을 안 보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죽고 말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미군을 잡아 놓은 포로 수용소에 많은 낙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낙서가 되어 있었던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고프다, 빵을 달라, 자유가 그립구나, 사랑이 그립구나, 영원히 살고 싶구나."

위의 말은 인간 본능의 자연적인 근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빵, 자유, 사랑, 영생입니다. 빵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얻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먼저 줘야 하고, 자유는 투쟁을 해야 하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시간의 행복을 원하느냐? 이발소에 가라. 하루의 행복을 원하느냐? 목욕탕에 가라. 일주일 행복을 원하느냐? 결혼을 해라."

저는 이 말에 별로 동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45년을 살아도 행복한데,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번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한 달 행복을 원하느냐? 새 차를 사라. 일 년의 행복을 원하느냐? 새 집을 사라. 일생의 행복을 원하느냐? 정직해라. 영원한 행복을 원하느냐?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금세와 내세에 영원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 : 16).

믿음은 인간에게 소망을 줄 뿐 아니라 기쁨과 용기, 참된 것을 줍니다. 또한 현실마다 미래를 희망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가시적인 것보다 불가시적인 것을 보고, 위대한 기적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카네기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

사람들은 대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과 꿈이 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불신자의 소망은 돈 많이 벌어 좋은 집 사고,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건강하고, 오락하고, 명예도 얻고, 세계 여행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소망을 갖고 싶고 또 갖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열한 위의 것들은 믿지 못할 환상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본의 대상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집도 지진 나면 무너지고, 자녀를 일류 학교에 보낸다고 자녀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망의 대상이며,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망은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 : 13).

소망의 근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안전한 것에 소망의 밧줄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변치 않을 뿐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만이 건전하고 건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 소망은 즐거움을 줍니다.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 12 : 12).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 한숨, 탄식밖에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보석 성, 진주 문, 생명 강, 황금 길,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은 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을 보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제는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들딸 낳고, 세계도 여행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소망을 두며 즐거워합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마냥 좋아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결혼은 코 끼는 것이고, 애 하나 낳으면 고삐줄 하나 잡는 것뿐이라고 해도 그저 좋기만 합니다. 또한 농부도 지금은 보릿고개 배고픔이 있지만, 가을 추수하면 배부를 날이 온다는 소망이 있어서 즐거워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관에서 어린이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2천 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볼 때 소망이 있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교회가 20여 군데가 넘는 것을 볼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주일학교 학생들을 충실하게 교육시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노인 아파트와 양로원도 세워 노인 분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야 하겠습니다.

⑶ 소망은 인내를 줍니다.

아기를 태중에 가지고 있는 임산부는 아홉 달 동안 인내를 가지

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몸의 거동이 불편해도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꿋꿋이 참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군에 장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신병이기 때문에 두 달을 훈련받고, 또 장교 교육 두 달을 힘들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중 제일 힘들었던 것이 단체로 '엎드려뻗치기' 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 보며 배를 깔고 그냥 있지만 저는 목사라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우처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서 주님만 생각하며 1시간 반 동안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나중에 장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힘이 들어 땅바닥에 배를 깔고 있었는데, 이 갈비씨 군목은 1시간 넘게 정식으로 엎드려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신앙의 힘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만약 배를 깔고 엎드렸으면 목사도 별것 아니라고 소문나서 전도의 문도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참았던 이유는 앞에 놓인 소망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장교 특수 목사(중위)를 받을 것을 생각하며 인내로 참은 것입니다.

(4) 소망은 용기를 줍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 : 4~5).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른 사람과 달리 가나안을 쳐들어가는 용기가 있었는데 이는 바로 가나안 정복을 통해 자손 만대 행복한 새 나라의 건설, 새 역사 창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용기가 있습니다.

15세기에 콜럼버스가 스페인 여왕의 도움을 받아 항해를 떠났을 때, 가고가면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몇 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달래어 끝까지 가서 미국을 발견했습니다.

(5)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줍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골 1 : 23).

흔들리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바울이 외국, 본국, 육지, 바다에서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릴 지경에까지 이르렀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 면류관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포로의 몸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에 불경기를 만났습니까? 회리바람은 하루종일 부는 법이 없고 엄동설한(嚴冬雪寒)도 석 달이 지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마련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오늘의 여러분의 고통은 해산의 진통인 줄 아시

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내려가려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이니까, 한국이나 타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뱃사공은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배를 더 잘 몬다고 합니다. 좋은 목수는 나무 뿌리 하나 버리지 않고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처럼 오늘날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힘차게 십자가만 바라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랑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 : 8).

오래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폭파시킨 김현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자가 "당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누가 성경을 가져다 주었는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2)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 : 20).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참으로 지극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고 또 참았을 것입니다.

찬송가 185장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1절).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2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롬 8 : 35).

나와 그리스도와 맺어진 사랑의 끈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줄은 우주보다 튼튼한 사랑으로 이어져 있어 도끼나 폭탄으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줄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보다 세기 때문에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3) 이웃 사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마 19 : 19).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서울에서 양품점을 하고 있었는데, 옥천에 있는 고아들을 돕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50만 원을 정성껏 모아 고아원 원장님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원장님이 울면서 말하기를 50만 원이 꼭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아원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이 있었는데 등록금 50만 원이 모잘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고아원 학생도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 생각하며 그 학교 교장과 교감을 만나 특별히 이 고아원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은 쾌히 승낙을 하였고, 가지고 간 50만 원은 다른 고아원 아이들의 옷과 가방을 사 주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장님들을 데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100만 불을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목사님께 100만 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은 한국에 가서 고아들과 많은 장학생을

돕고, 남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는 피아노를 사 주었습니다. 그 분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인권운동을 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흑인 할머니가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흑인은 맨 뒤로 가서 앉아야지 앞에는 못 앉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수가 말로 해도, 뒤로 끌어도 안 가서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뒷자리로 가서 앉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본인이 뒤로 가면 당장 자기는 편하지만 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본인이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는 나 하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4)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고전 13 : 4).

위의 성경 말씀은 사랑의 실천적 특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랑의 실천은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부부를 보면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졌는데도 오래 참음으로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아름답습니다. 반면에 어떤 부부는 잘 참지 못하고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이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 한국에 있었을 때, 제 아내가 아이가 설사를 하니까 절 보고 붙잡으라고 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사를 자꾸만 하고 냄새가 진동하기에 인상을 찌푸렸더니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향기지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면 지독하고 나쁜 냄새도 향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잘 참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낮이나 밤이나 문을 열어 놓고 오래오래 기다리다 결국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격언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고, 독일 격언에는 "인내는 악을 쳐부순다."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에서는 "일순간의 인내는 10년간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인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였고, 토이기 사람들은 "인내는 천국의 열쇠다."라고 말하였고, 한국 사람들은 "참을 인(忍)자가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인내는 평화의 유지자요 신앙의 보호자요 사랑의 육성자이며 겸손의 스승입니다. 또한 인내는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민 생활에서 부부지간, 자녀간, 또는 사회 생활을 할 때, 또 교회에 와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도 참으신 것같이 부부지간이나 자녀교육, 사회, 교회에서 잘 참아서 약속된 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 교육, 봉사로써 미국 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게 뭉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 앞으로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지

난날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2부

옥합을 깨자

돈과 신앙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딤전 6 : 7~12).

제가 언젠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순복음교회에 가서 3일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 방문이라 조금은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 뉴욕을 처음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거리에

서 한국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한국 상점 간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욕에 한인이 30만 정도 살고 있고, 한인교회가 300개 이상 세워져 있으며, 맨해튼 중심에 은행, 상점, 회사, 병원 등에 한국 간판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가운데 흐뭇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도 예외없이 신앙 생활을 성실히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의 교육도 잘 되어 미국에 사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사는 가정들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돈은 많이 벌어 부자이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마약중독자가 되어 죄와 방황 가운데 있는 것도 듣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수많은 죄를 분석해 볼 때 상당 부분이 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돈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인간에게 돈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또한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욥 1 : 21).

"저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시 49 : 17).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전 5 : 15).

또한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너희는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것 이상의 것은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였고, 그리스의 한 시인은 "나는 벌거벗고 이 땅에 섰으매 나는 벌거벗고 이 땅 속에 갈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책은 다윗 왕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은 일 년 수입이 2,500만 불에 가까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궁전을 13년을 걸쳐 지었으며, 그 궁 속에는 갖은 금, 은, 보화로 가득 찼고, 천 명의 아리따운 첩과 노래를 부르는 많은 가수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을 기르는 데 필요한 축사가 4만 동이 있었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이 세계의 정부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백악관보다 더 호화찬란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이 되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 : 2)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21세에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하다 61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왕에 비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과 가구, 금과 은과 보석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빈손뿐입니다.

둘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철인 에피큐로스는 "조그마한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에도 만

족할 수 없다. 가지고 온 것에 보태지 말고 자기의 욕망을 제거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유대 랍비의 교훈 가운데 '부자란 자기의 운명에 만족을 느끼는 자' 라고 하였고, 브라운(E. F. Brown)은 "현대의 위험은 적은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옛날 위인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부유는 죄이고 가난은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행복이란 물질이 많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프슨은 "많은 백만장자들은 황금으로 그들의 영혼을 질식시킨 후에 우울증에 걸려 죽었다." 라고 말하였고, 미국 격언 가운데 "백만장자 가운데 웃는 얼굴을 본 일이 있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거부 휴스는 멕시코의 쓸쓸한 호텔방에서 운명하였고, 그리스의 세계 거부인 오나시스는 프랑스 한 병원 병실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결코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옛날에 지나치게 돈과 금을 좋아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이 나타나 그 왕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만지든지 그것이 금으로 변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얼른 그 앞에 있는 책상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금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의자를 만지고 기둥, 벽, 물 등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만졌더니 역시 모두 금으로 변하는 희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에 넘쳐 신이 나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여쁜 딸이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오기에 이 왕이 무심코 딸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딸이 금으로 변하였고, 아내와 아들 역시 생각없이 만졌다가 모두 금으로 변하는 참

변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웃지도 못할 노릇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금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돈이 삶에 있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 : 15)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의 우선은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 자식, 형제, 이웃, 사회, 인류를 아는 것입니다. 돈만 아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는 없다는 교훈입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 12 : 2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뉴욕 순복음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항공 선교 책임자가 되시는 김용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 항공 선교에 대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섬이 516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교회가 없는 섬이 2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섬 중에서도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는 배를 타고 이틀을 들어가야 하고, 갔다가도 풍랑이 있으면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 수단으로 헬리콥터가 필요한데, 이것으로 죽어가는 영혼과 육체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와 교육, 문맹 퇴치에 앞장서며 약품도 실어 주고, 중풍병자를 이송해서 도시에서 고쳐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헬리콥터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약 15만

불 정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 교회에서 30명의 선교부 책임자들이 모여 의논한 후 5만 불을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들은 뉴욕 대도시에 와서 봉제 공장을 다니며, 식당, 야채 가게 등에서 갖은 고생을 하며 사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돈을 값지게 쓸 줄 아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뉴욕은 좋은 산과 골짜기, 호수,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일수록 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사는데 보통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적게 가지고 와서 땀 흘리고 애써 집을 사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도둑질을 많이 해 와서 집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집이 크고 작은 것, 차가 얼마나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집에 사느냐? 누가 그 차를 모느냐? 어떻게 돈을 모아 그 집과 차를 샀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 : 8~9).

사람들 가운데 자기 분수를 알고 자족하는 이들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르고 성숙한 기도는 적합하게, 필요한 만큼만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욕심으로 음식을 많이 달라고 하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누가 나누어 주는 대로 혹은 자신이 정한 만큼 먹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문벌과 학벌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기에 사회로 진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일생 동안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집 한 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과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빛나게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1~12)고 고백까지 하는 자족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철학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아 예수님처럼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물질적으로는 내려다보고 도덕적으로는 올려다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십시오. 과도한 욕심으로 인생의 말로를 비참한 데로 몰아넣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셋째,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 멸망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

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9~10절).

이 말씀은 결코 돈 자체가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즉 돈을 하나님보다, 또한 부모, 처자, 형제, 이웃, 불쌍한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축적하는, 황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선용해서 값있게 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잘못 사용하여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칩니다.

만약 어린 아이가 위험한 면도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위험이 오듯이, 돈과 권력도 가질 만한 사람이 가져야 합니다. 즉 돈과 권력의 관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인간에게 어떤 관계적 위험을 가져다 줄까요? 다섯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 돈은 욕심만 많아지게 하고 만족할 줄 모르게 합니다.

로마 격언에 "돈은 짠 물과 같아서 갈증을 더해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짠 물을 마시면 물을 또 먹고 싶어하는 것처럼, 돈도 욕심을 내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치고, 이제는 충분하니 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유소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잘 될 텐데, 욕심 내어 세 개, 네 개 하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노름해서 돈을 조금 손아귀에 넣었을 때 그것으로 그만 중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노름만 하다가 여행중에 차도 팔고, 아내도 판 후 자살하였습니다. 돈은 욕심만 더하게

하고 만족을 주는 법이 없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2) 돈은 환상을 토대로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돈 갖기를 좋아합니다. 때때로 돈은 헛된 환상과 망상을 하도록 도와 줍니다. '만약 돈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고 현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돈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는데, 그렇지 않고 갖가지 좋지 않은 상상을 한다면 돈을 갖지 못한 것이 더 낫습니다.

예를 들어, 복권을 산다고 할 때 당선될 것을 항상 꿈꾸기 때문에 그날 당선이 되지 않아도 또 복권을 살 궁리를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돈 갖기를 소망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 봐도 해결 못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 건강, 참사랑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입니다. 이것들은 돈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그 어떤 큰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3) 돈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보다 경쟁심이 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마을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마을에서 20LBS 쌀 한 포를 8불에 판다고 할 때, 이를 알고 다른 편 마켓에서 6불로 하고, 그러니 또 이쪽에서 5불, 저쪽에서 4불, 이쪽에서 3불, 저쪽에서 2불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마켓을 하는 사람끼리 큰 타격 속에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 한국에서 대형 수퍼마켓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서 조그만 가게들이 큰 타격을 받고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있었

습니다. 돈은 경쟁심과 이기심, 상대가 죽거나 말거나 하는 잔인한 성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상대방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남이 망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것이 돈입니다.

(4) 돈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걱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걱정하는 법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도움으로 뉴욕 거리를 잠깐 구경하다가 운전하시던 집사님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저 차가 20만 불짜리 차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니 리무진도 아니고 하얗고 납작한 차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주인은 편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근심이 더 많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20만 불짜리 차를 긁어 놓는다면 그 주인은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괴로워 병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나라에 큰 공을 세워 임금이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고 나니 오히려 근심이 많아져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지키기 위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심리적 불안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더 이상 돈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임금님을 찾아가, "돈이 없을 때보다 돈이 있으니 더 불행합니다. 저는 이 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며 돈을 돌려준 뒤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떨어질 염려 없고, 낮은 자는 오만 부릴 염려도 없다. 보잘것없이 비천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행복을 얻는도다. 내게 있는 것이 지극히 적지만 내 마음에 충족하도다. 주여, 다시금 충만하게 해주소서. 하늘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 가득 차면 오히려 수고로운 짐이로다. 지금은 적게 받고 하늘에서 축복받으리니 어느 시대에서 이보다 더 행복이 있으리."

⑸ 돈은 육체를 혹사시킵니다.

인간의 몸을 무리하도록 만듭니다. 인간의 육체도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가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면 파열이 되는 것처럼, 육체도 너무 혹사시키면 병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는 돈 벌려고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목욕탕에서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돈 때문에 과로해서 세상을 떠난 젊은이도 보았습니다.

돈을 너무 탐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 발람, 게하시, 가룟 유다, 아나니아, 삽비라 등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과도한 욕심을 가지면 시험과 멸망에 빠져 헤쳐 나오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라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즉 물질적인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라'는 말은 '이별하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깨끗이 이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 여섯 가지 덕목을 좇으라는 말입니다. '좇으라' 는 말은 '놓치지 말고 뒤에 바짝 따라붙으라' 는 말입니다.

여섯 가지 덕목을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기의 할 일을 하라는 것이고, 경건은 절제와 구별된 생활을 말하며, 믿음은 충성된 생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인내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잘 참는 것을 말하며, 온유는 쉽게 화내지 않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좇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를 좇는 사람입니다. 돈을 좇는 사람은 돈이라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양심도 짓밟고, 나라도 생각지 않고, 주인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돈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은 돈이 망할 때 자기도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가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가셨기에 나도 그곳까지 가겠다' 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도 부활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생명도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제가 뉴욕 순복음교회에 갔을 때에,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먼 거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1년 365일 동안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 뉴저지를 지나 뉴욕에 들어와 뉴욕에서도 강을 건너 맨해튼에 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곳에는 순복음교회가 없느냐고 물었

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곳 교회에서 처음 신앙 생활을 했고, 아이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으로 이 분이야말로 주를 좇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교인들도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맨해튼 중심지에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 호텔은 너무 비싸서 살지 못하고,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산과 강을 건너서 오는데 그 과정에서 돈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일날 헌금을 제외하고도 50~100불 이상 주머니 돈을 가지고 와야 문을 지날 때 돈을 서너 번 내고, 또 주차장이 없으니까 20~30불 정도를 주차비로 쓰고, 점심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일 헌금이 줄지 않고 풍성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본 교회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볼일을 보러 나가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할 말이 있으니 차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습니다. 가 보니 남편이 차에 있어 그리로 가까이 가니, 그 분이 돈을 주면서 인디언과 아마존 강에 교회를 세우는 데 헌금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내외는 자기 집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동차도 좋은 것이 아닌 짐을 싣는 차를 타고 다니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장로님은 필라델피아의 지교회에 버스를 사는 데 5천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보태라고 헌금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

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12절).

기독교는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이것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신령한 싸움입니다. 왜 싸워야 합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것같이 스데반과 야고보, 베드로, 바울이 모두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혼을 살리려는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물욕의 육신, 음란의 육신, 시기 · 교만의 육신, 거짓의 육신, 권력의 육신 등과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 : 24)고 말씀하셨습니다.

망한 사람을 보면 거의 전부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합니다. 돈이라는 자기, 음란이라는 자기, 시기와 교만과 권력이라는 자기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자기를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고전 9 : 27)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음란하고 패역합니다. 홍수 심판 때의 노아와 같이, 소돔 성의 롯과 같이, 애굽에 있던 요셉,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곧,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도 마귀에 속할 때가 있습니다. 음란과 불신앙, 시기, 질투, 미움, 분열, 작당의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엡 6 : 14~17).

언젠가 미스바 대회 둘째날 저녁에 한인장로교회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난 큰 상점을 운영하는 부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종일 일에 빠져 있을 때 그 집의 딸아이에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 집 딸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보고 자기도 돈을 벌고 싶은 생각에, 오전에는 학교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부모가 오기 전까지 헐리우드에 가서 창녀 노릇을 하였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니 바쁜 부모가 이 사실을 알 리가 만무하지 않았겠습니까?

'설마 내 자식은 잘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관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에 취해 있으면 모두 잃고 맙니다. 하나님도 잃고,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건강도 모두 잃습니다.

물론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쉬워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 물질 문명, 황금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시궁창에 그 뿌리를 두지만 꽃만은 예쁘게 피어 있고, 물고기는 짠물을 먹어도 그 살은 하얗고 짜지도 않습니다. 물오리는 물 속에 들어갔다나와도 한 번 흔들면 물 한 방울도 그 몸에 남지 않습니다. 송사리는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나무토막 등이 물 속에 떠내려오는 가운데서도 생명이 있어 올라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은 떨어지지만 연어는 몇 번이고 뛰어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자본주의,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 이 땅에 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엄격한 신앙, 협동 정신, 감사의 신앙으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제2의 청교도라고 자부한다면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좋은 씨를 이 땅에 뿌리고 터를 잘 닦아, 우리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유산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믿음과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의 생활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믿음 위에 바로 서는 현명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에 대한 교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

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고후 8 : 1 ~15).

고린도후서는 주후 56년경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심히 가난해서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최초의 교회요, 모교회로서 무척 가난하였습니다.

가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로마 사람의 정치적인 압력과 유대교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해외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교회를 돕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사랑임을 강조하면서 도와야 할 이유, 즉 근거를 다섯 가지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해 줄 것을 호소한 이유 다섯 가지와 헌금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헌금해 줄 것을 호소한 이유

(1) 마게도냐 교회를 예로 들어 호소하였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

라"(1~2절).

마게도냐 교회는 그리스 북단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단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극한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후한 연보를 해준 것을 말하면서 그들도 가난했지만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왔으니 너희도 저 교회와 같이 도와 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2)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실을 들어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9절).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화를 함께 누린 부유한 분이셨지만 우리 인생을 살려 주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하셨습니다. 그분의 고생과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같이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주라는 호소를 했습니다.

이곳에 이민 오신 1세대 부모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제 마음이 아파옴을 느낍니다.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켜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구두 수선공, 청소부, 마켓 등의 일을 가리지 않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녀를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들이 너희를 위해 고생해서 그 결과로 너희가 전문직을 가지고 잘 살게 되었으니 너희도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일은

부자보다도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⑶ 고린도 교회는 과거에 선한 일에 앞장선 교회였음을 강조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10절).

즉 너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려고 1년 전부터 마음 먹고 소문을 내고 일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후에 시작했지만 벌써 연보를 보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기를 "지난날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선한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 일에 뒤떨어지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어야 합니다.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용의 머리는 크지만 꼬리는 짧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했지만 나중에 결과가 형편없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종일관(始終一貫)' 이라는 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플 때는 선교를 위한 헌금이 전보다 떨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예산위원회와 당회원들에게 호소합니다. 교회는 빚을 져야 부흥되지 은행에 예금을 하면 부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게 마련입니다. 교회일은 세상일과 다릅니다. 세상일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기본금을 따지지만, 교회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는 다릅니다.

(4)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11절).

성도들이 마음에 가진 것을 그대로 두면 아무 소용이 없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 도와야겠다'고 마음만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누가 슬픔을 당했는데 차라리 가서 손을 잡고 같이 슬퍼하면 좋을 텐데 집에서 신문이나 보면서도 '안 됐구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잘 하는데 실천이 하나도 없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으로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흔히 있는 인생의 비극은 고상한 생각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생각으로만 끝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소냐 송 여사는 35만 불을 들여 6 · 25 전쟁기념관으로 산타모니카 비치에 우정의 종각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은 한국 교포를 위해 많이 봉사한 개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전에 병으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분을 병원에서 보았는데 목숨에 비해 35만 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좋은 일을 위해서 이 돈을 썼을 때 매우 값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벌기도 잘 벌어야겠지만 쓰기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합니다.

(5) 마게도냐 교회는 먼저 몸을 바쳤습니다.

돈을 바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귀한 것은 그들이 몸을 먼저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인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죄 없는 죄인으로서 양손, 양발에 쇠고랑을 차고 로마 황제에게 끌려갈 때 '저 분은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데 내가 저 분을 돌보고 병 간호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주며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과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냥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주인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자유인인 그가 노예가 되어 스스로 묶여 따라가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이전에 바울이 주의 종이므로 주의 종을 도운 것입니다. 마게도냐 신자는 물질만 바친 것이 아니라 몸까지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30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신자 중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를 시켜 추운 겨울에 두툼한 옷을 만들고, 먹을 양식과 용돈을 줘서 멀고먼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돌보게 하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돌보다가 거의 죽을 뻔 했습니다. 이 사람도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마음과 시간을 바치는 것은 귀합니다. 은사를 바치는 것, 물질을 바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만약 연로하신 부모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합시다. 어떤 자녀들은 돌아보지 않고 용돈만 주고, 음식만 사 주는 데 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저녁에라도 와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잠자리는 편하신지, 드시는 것은 잘 드시는지 등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진정한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부 어린애와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 마디 물어 봐 주는 것이 어떤 물질을 갖다주는 것보다 더 좋으니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거북하지만 저희 자녀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자식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현대 고려장을 지내듯이 부모님을 미국에 모셔 놓고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하는 자녀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만 가져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으로써 하는 것이 정말 귀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가난한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돕기 위해 5가지 이유를 들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심히 환난도 많고, 가난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했으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일부러 가난하게 되어 오히려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교회들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하였으며, 당시의 성도들은 좋은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겼으며,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몸을 바쳤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말하면서,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성의껏 헌금을 해서 도와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둘째, 헌금에 대한 내용

헌금을 분석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적인 헌금, 자기 만족의 헌금, 영웅심의 헌금, 기복적인 헌금, 성서적인 헌금입니다. 우리는 어떤 헌금을 바치고 있을까요?

(1) 의무적인 헌금

세금 낼 때 기쁨으로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를 생각하고 속이기까지 하는데, 신자는 절대 속이면 안 됩니다. 적게 속인 것이 나중에 큰 화를 입습니다. 나라에 바친 세금은 노인 복지, 교육 사업, 도로, 국방, 의료 등에 쓰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불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헌금을 낼 때 보면 준비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갑에서 모르고 100불짜리 돈을 꺼냈으면 다시 지갑에 집어 넣습니다. 50불짜리, 10불짜리가 나와도 그렇습니다. 결국 1불로 헌금을 내기도 합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불을 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헌금낼 돈이 없는 분이야 못 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선 안 될 것입니다. 친구에게 점심을 사 주려고 해도 5불로도 모자라는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것 가지고 도넛 하나 잡수세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고 싶지만 못 내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이때 어떤 집사님이 와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유인즉, 마음만 있다면 왜 빈손으로 오겠냐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만 굶어도 3불은 못 가지고 오겠냐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처럼 의무감에서 하거나 억지로, 체면으로 하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모습은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감사로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자기 만족의 헌금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냄으로써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만족한다'는 등의 자기 중심의 헌금을 합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헌금을 많이 내고, 못하면 적게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3) 영웅심의 헌금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시에 1불을 낼 때는 가만히 남 못 보게 내고, 100불짜리를 낼 때는 한 번 흔들어서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해서 한 말인 줄 알지만 이는 바로 헌금을 영웅심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상이용사(傷痍勇士)가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창피당할까봐 억지로, 또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가는 도중에 보면 아름다운 바닷가에 유원지와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은 그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말씀하기를, 몇 해 전에 이 식당에 배우가 와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25불짜리를 먹고는 천 불을 냈다고 합니다. 975불을 팁으로 주었다는 소문이 쫙 악 퍼졌답니다.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팁을 준 것보다 이름 하나 내기 위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헌금도 이름 내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를 보았다가 어느 때에 내가 연보를 내야 이름이 드러날까 하는 영웅심의 헌금입니다.

(4) 기복적으로 하는 헌금

한국 교회에서 종종 이러한 말들이 들려 옵니다. 헌금을 많이 하

면 일류대학에 내 자녀가 들어가고, 차 사고도 안 나고, 건강하고, 장사도 잘 된다고. 이것은 바로 무당 앞에 복을 빌면서 돈을 내는 것과 같은 기복적 헌금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성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지양(止揚)해야 할 행동입니다.

(5) 성서적 헌금

성서적 헌금은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시련,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자원해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기쁨으로, 다같이 하는 이것이 성서적 헌금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은 헌금을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헌금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교인 이상부터는 헌금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대로' 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부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냈다고 칭찬하신 것은 그 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디 기도하시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바로 드리는 헌금의 결과

우리가 헌금을 바치면 값있게 쓰여집니다. 세상 일반 단체나 기관과는 다릅니다. 헌금을 성서적인 관점에서 낼 때 이에 대한 결과로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1) 자신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복이 옵니다. 첫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확신이 옵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교회에 돈 바친 적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참으로 돈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돈은 이렇게 벌어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고난 후부터 선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올바로 드릴 때 남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유대 사람이 고린도 사람을 개로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동시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신앙 성장에 확신이 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보면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 없는 사람은 시험에 들까봐 일부러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자랐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받기만 하지만 장성하면 주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서 주면 기쁨이 옵니다. 저도 누구에게 받으면 마음에 어색하고 부담이 되지만 줄 때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 납니다.

전에 저보다 일곱 살 많은 동기동창 박명원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지금은 천국에 가 계심) 만남의 기쁨을 나눈 후 돌아가

실 때 제가 여비에 보태 쓰시라고 용돈을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희 교회에 또 오셨을 때 또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얼마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극구 사양을 하셨지만 제가 이겨서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한 번 드릴 때보다 두 번 드릴 때가 기분이 더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2) 이웃에 대하여

타인을 통하여 복이 옵니다. 첫째, 어려울 때 도움이 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 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 분을 통해서 도와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남미에 갔을 때 일입니다. 남미에 계시는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여비가 없어 못 간다고 하기에 그 목사님이 경비를 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난한 목사님이 말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사람이 가령 실패하고 몸이 약해졌다고 합시다. 다시 일어날 희망이 없다고 합시다. 누가 그 사람을 믿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합시다. 돈을 빌려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은 '내가 아직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진 않았구나, 나를 믿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분의 사모님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 목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하다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강단에서는 그가 본부인을 두고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 그 분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 분을 계속 도와 줍니다. 양복도 해주고 선교비도 보내 줍니

다. 그 분이 지금 목회는 못하지만 한국 여러 큰 교회에서 나오는 주보를 걷어 시골과 도서에 문서 선교를 합니다. 오히려 목회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용기와 희망,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르헨티나 신자들을 두고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큰 농장을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분이 거리가 멀어 매주 오진 못하지만 올 때마다 쌀을 많이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 줍니다. 그리고 옷가게를 많이 하는데 옷가게에서 철이 지난 옷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면 그들이 두 가지를 칭찬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최고라고 칭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 줄 때 그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하나님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첫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혼식이나 결혼식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상대방에게 다이아반지도 주고, 목걸이, 귀걸이도 많이 줍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

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교, 교육, 봉사, 구제 등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을 찾아뵐 때 빈손으로 안 갑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생선이나 쇠고기라도 들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다. 구약엔 소, 양, 비둘기를 가져가서 속죄의 제물로써 희생의 불을 태웠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바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의로운 열매, 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헌금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고린도후서 8, 9장에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8장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광야 생활 때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많이 거두어 남겨두기도 하였는데 다음날 보면 다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써야 값있는 것입

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자꾸 주다 보면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지만 주고 나면 자꾸 또 돈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물의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단물이 생깁니다. 우물의 물을 퍼내지 않으면 이끼가 생겨 더러운 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잠 11 : 24),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후 9 : 6).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장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는 인쇄소에서 노동을 하고, 아내는 12년 동안 바느질하고,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는 회사에 가서 1전이면 따뜻한 물을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 먹지 않고 아낍니다. 처음에 교회를 살 때, 가족 회의를 열고 우리의 집을 바치자고 하니까 가족 모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아 당황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과감하게 16,000불을 헌금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아끼고 절약하는 사람이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당시에 집이 없었지만 기쁘게 살았습니다.

없는 분은 기도만 하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작정한 대로,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에 대한 교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 : 1~3).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사 61 : 10~11).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몇 번씩 울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많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뜻하지 않은 눈물을 흘릴 때가 무척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상고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억만리 먼 타향에 있던 요셉은 형제를 만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아우 베냐민을 보고서는 마음이 타는 듯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창 43 : 30).

바사 나라의 장관으로 있던 유대인 느헤미야도 조국의 어려움을 듣고 밤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느 1 : 4).

민족의 장래의 비운을 내다보았던 예레미야도 강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애가에서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애 1 : 2)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욥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욥 16 : 20)라고 하면서,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몸부림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왕하 20 : 3)라는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눅 23 : 27)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우셨겠지만 성경에는 뚜렷하게 세 번 우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까이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눅 19 : 41).

이것은 장차 닥칠 멸망을 모르고 현재 값싼 술에 취해서 춤추고 뒹굴고 죄 짓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신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 : 35).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 : 7).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심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눈물을 흘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가난한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 고독한 것과 병든 것이 슬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슬프지만, 가난한 것도 슬픈 것이

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은 대개 배가 고파서 웁니다. 어른들도 여러 때를 굶는다면 울지 않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한 흉년과 기근 속에서 우는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사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아프리카에 가면 못 먹는 사람들은 눈물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뱀을 잡아먹습니다. 쥐도 잡아먹고, 기어다니는 벌레 혹은 나무껍질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볼 때, 배고프고 가난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비가 없고 또 식당의 식권을 살 돈이 없어 나흘 동안 굶은 적이 있는데 이때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은 육체적, 물질적인 가난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난을 느끼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 5 : 3)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겸손을 말합니다. 무욕(無慾), 자기 부족을 말합니다. 옳게 믿고 옳게 살아 보려고 할 때,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바울 사도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 : 24)라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옳게 살려고 할 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흘리는 눈물은 성도들의 값비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음이 상한 자가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운다는 것은 상처를 받거나 또한 마음이 깨어졌을 때에 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시 6 : 6)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순간적인 실수로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의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눅 7 : 38)라는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케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요 11 : 33)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이 동생과 주위 친지들이 와서 우는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어떤 때는 계획적으로, 어떤 때는 불식 중에 죄를 범해 아픔을 가지고 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송장에게 얼음을 대봐도 차다는 말이 없고, 숯불을 대도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차고 뜨거운 것을 즉각 느끼는 것처럼, 실수를 했을 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는 것이 참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습니다. 아주 오래 전 신문에 '토이 김'이라는 청년이 친구 형제를 복수심으로 죽이고 그

할머니도 죽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일을 당한 세 사람이 바로 저희 교회의 정 집사님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 내외분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정든 고향과 고국을 두고 미국에 와서 밤잠 안 자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도 미국에 오셔서 함께 고생을 하셨는데 한 한국 학생에게 그렇게도 끔찍하게 망치로 맞아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때문에 울었고, 흉기를 휘두른 그 젊은 학생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또 그 학생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울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3) 포로 된 자들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 137 : 1).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쳐서 생존자를 붙들어다가 바벨론 강가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고 천막을 쳐서 그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포로 생활은 비참했고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고향과 고국이 그립기도 하고, 낮에 혹독한 고역을 치렀기에 팔다리가 쑤셔 밤에 잠이 안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강변에 앉아 멀리 고국 이스라엘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사랑하는 후배요 친구인 김 목사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아내와 자식을 한국에 두고 혼자 와서 노동을 하면서 고학을 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에 일을 합니다. 저녁 늦게 일하고 새벽에 집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밥 해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몸은 피곤하고 방은 춥습니다. 음식 만들어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드러누우면 아이들과 아내 생각, 그리고 한국 생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미국 와서 직장을 찾으러 몇 달 동안 헤매고 다녀도 직장을 찾을 수 없어 집에 와서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반짝 들어다가 서울집에 도로 갖다 놓아 주세요."라고 기도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의 몸이 되어 이곳 바벨론 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고독의 눈물이요, 고통의 눈물입니다. 망향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간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군에게 잡혔던 포로들, 일본군에게 잡혔던 포로들,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게 잡혔던 포로들, 월남전쟁 때 월맹군에게 잡혔던 포로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영화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심한 고문 속에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죽거나 불구가 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포로 된 자의 눈물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4) 갇힌 자들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범해서 갇힌 자들이 아닙니다. 무슨 간음죄, 강도죄, 살인죄를 저질러 갇힌 것이 아니라 의롭고 구별되게 살다가, 나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다가 애매히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

다. 이것 또한 눈물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요셉은 애매하게 애굽에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바른 말을 하다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옥중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바울도 여러 번 옥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저도 길진 않지만 짧은 기간 동안 북한과 한국에서 바른 말 하다가 세 번 옥중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참 괴로웠던 기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갇힌 사람은 고독하고 배고픕니다. 겨울엔 춥습니다. 많은 학대와 고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우는 것보다 의분 때문에 웁니다. 죄 없는 자신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어 고생을 시킬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분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네 종류의 사람을 본문에서는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를 슬퍼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미국이 지상천국이라고들 말합니다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 있습니까? 아마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민자 가운데도 웃는 사람보다 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본국을 생각해 볼 때 남북한에 웃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춤추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우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세계를 볼 때 웃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갇힌 사람, 마음 상한 사람, 포로 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없이 울며 통곡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울지 말라고 달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웁니다. 그래서 말리는 사람, 우

는 사람 소리가 합해져서 더 큰 울음소리가 나옵니다.

이때 나이가 든 한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자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죽었고, 12년을 혼자 산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과부 생활 하던 이 여자가 오더니 말리는 사람에게 말하길, "그냥 두세요. 실컷 울게 그냥 두세요. 실컷 울어야 속이 풀립니다." 하며 말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말렸다고 합니다.

먼저 과부가 된 여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실컷 울면 좀 나아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좀 나아지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컷 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울음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인생이 가난해서 울고, 마음 상해서 울고, 포로로 잡혀서 울고, 갇혀서 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통령입니까? 미국에 있는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1~2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고 능력과 사명을 부

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고,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아 주시기 위해서 문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벳새다 광야에서 시장한 배를 움켜쥐고 우는 자에게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1) 가난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왜 가난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나라가 왜 가난한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유는 아마 게을러서 그럴 것이고,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지 못하고 모험심이 없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나쁘기 때문에, 독재자가 착취하기 때문에, 부정 부패가 성행해서 개인과 나라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헌법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정당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자리를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게으른 사람 마음속에, 게으른 가정 속에, 독재자의 마음속에, 그리고 온 국민 속에 들어갈 때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가난이 추방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서유럽의 기독교 국가들 특별히 개신교 국가들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잘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개인, 가정, 나라 속에 있을 때만이 빈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 마음 상한 자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 : 18).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시 51 : 17).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 : 15).

세리 삭개오는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남편을 가진 여인도 상한 마음을 가졌고, 칠계를 범하다 잡혀온 여자도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 9 : 12~13).

예수님은 다윗의 상한 마음도 고쳐 주시고,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상한 심령도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어 울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거든, 혹 마음이 상해서 잠 못 자고 혼자 우는 사람이 있거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 28~30)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모두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포로 된 자를 누가 자유케 해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시 126 : 1).

바벨론에 잡혀 가서 70년 동안 노예살이로 동물적인 대접을 받다가 드디어 그들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시 126 : 2~3)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 : 6),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 : 32).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육정에서 해방,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심판에서 해방을 받은 것은 해방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 죽음의 심판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권을 존중해 준 것도 예수님의 덕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도 예수님 덕분입니다. 계급을 타파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예수님의 해방 덕분입

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4) 갇힌 자를 누가 놓아 줍니까?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 내주셨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때 기적으로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어 버리고 바울을 무사히 살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갇힌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갇힌 사람, 정욕에 갇힌 사람, 물질 향락에 갇힌 사람, 오락에 갇힌 사람, 제도에 갇힌 사람 등 갇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뜻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생의 무의미한 것을 계속하고 삽니다. 여기서 해방시켜 줄 사람, 놓아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셋째, 눈물 뒤에 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많은 복을 받습니다.

(1)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산상수훈(山上垂訓)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 : 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왕하 20 : 3)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에 대고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 연

장시켜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만약 아내가 배신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괘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할 때, 아내가 울며 회개하면 한 번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는 마음에는 진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2) 화관을 씌워 줍니다.

'무릇 시온에서' 라는 말씀 중에서 시온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화관을 씌워 준다는 것은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에 2 : 17)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한 신부에게 화관을 씌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슥 3 : 5)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 가운데 누추한 옷을 입고 서 있는, 그슬린 나무 조각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회개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끄집어 내서 누추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화관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의

로운 세마포를 입히시며, 머리에는 신부가 된다는 의미의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 희락과 찬송이 있습니다.

재앙을 대신해서 희락으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많이 우는 사람에게는 희락과 기쁨이 오고 찬송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탈선해서 죄를 지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밀라노 성전에 가서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회개해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입에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니까 어려서 다섯 살쯤부터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아직까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며칠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했다. 너는 의롭다. 나의 후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입에서는 찬미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나, 좋은 일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에게 그 대가로 마음에는 기쁨, 입에는 찬송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4) 의로운 옷과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육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받습니다.

생활의 구원은 우리가 계속 생활해 가는 가운데 받습니다. 육신의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에 관을, 마음에는 기쁨을, 입에는 찬송을, 또 몸에는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매년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 그때에 영화 배우들의 옷차림을 보면 굉장합니다. 저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들 천국 가서 좋은 옷 입고 설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제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밍크코트 입는 것 환영합니다. 그래야 밍크코트 집도 돈을 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값진 것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자주옷을 입은 부자보다 오히려 하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값비싼 옷을 지금 못 입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옷을 입은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 보석으로 단장해 주십니다.

요즘 미국에서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 보면 보석,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약혼식 때 주고 결혼식 할 때도 또 줍니다.

오래 전에 동아일보를 보니 영국의 왕비가 사용했던 약혼 반지가 하나에 290만 불에 팔렸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우리 교회 교육관은 270만 불에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이 깃든 너무나도 값진 교육관인데 과연 그 반지의 가격이 290만 불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석은 개도 돼지도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석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 보석을 안 가졌다 하더라도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욱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의 머리에는 면류관, 마음에는 기쁨, 입술에는 찬송, 몸에는 의로운 옷, 그리고 갖가지 보석으로 단장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서 나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우시고 하늘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교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 : 7~10).

사람은 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단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의 철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 이라고 한 말은 거기에 근거한 말이라고 봅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 형제들, 조금 커서는 이웃과 친척들과 더불어 삽니다. 학교에 가면 스승과 친구들,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면 상사와 동료들,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자식들, 미국에 와서는 백인, 흑인 등 여러 나라 종족들과 함께 모여 사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서로' 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

불교는 자비의 종교, 회교는 복종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 4 : 8).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사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 : 20).

죄 없으신 그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갈 5 : 22).

이 중에서 성령의 제일 첫 열매는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막내 제자 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요일 4 : 7)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분은 여러 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수로 세상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다른 분은 다 순교를 했지만, 이 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90이 훨씬 넘은 늙은 몸을 이끌고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 앉아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자."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 : 13)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나 전통, 교리나 신학, 건물, 장소, 숫자, 헌금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 수제자 베드로는 8절에서 "서로 사랑하자."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 : 20)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내 자식, 내 식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 이웃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조국과 인류를 어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 : 18).

행동과 실천으로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사랑이 없는 신앙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사랑 있는 신앙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

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 지식은 부족하고, 기도는 좀 못하고, 철야와 금식을 못하더라도, 그 마음에 예수의 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참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참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임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 세 사람만 뽑아 보겠습니다.

첫째, 구약 룻기서에 나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봅니다. 옛부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오미는 유대인으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동안 병들어 세상을 떠나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해서 이방 여자이지만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아들이 죽고, 조금 있다가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한 집에 과부가 셋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훌륭한 여자여서 두 며느리를 불러 놓고 "내가 너희 남편을 대신할 수 없고 너희들은 젊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 재가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말에 큰며느리는 떠나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6~17)라고 말했습니다.

그 갸륵한 마음과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작은 셋방을 얻어 살면서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가 남의 보리밭에 떨어진 보리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고, 밤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아기자기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룻의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이 온 땅에 퍼져갈 때, 베들레헴의 유지요 부자인 보아스가 이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룻은 부잣집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한 고로 좋은 데로, 훌륭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셈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계보 가운데 이방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의 결과는 위대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아가서를 읽어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민 생활과 여러 가지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가정은 아가서를 읽어 보면 다시 첫사랑을 찾게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권태증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혹 사랑에 금이 간 사람이 있습니까? 봄이 돌아왔건만 그

가정에는 아직 엄동설한인 가정이 있습니까?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을 읽어 보십시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아 4 : 1~5).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아 2 : 3~7).

지금 연애 중에 있는 남자가 있거든 이런 편지를 써서 한번 보내 보십시오. 아마 여자가 황홀해 할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오래 되었어도 제 아내가 저를 무척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여기에 나타나는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라"는 말을 못 들어 봤습니다. 아가서를 읽어 보면 정말 두 사람 사이의 뜨거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주고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만들어야 하는, 창조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로 사랑한 사람들 중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을 들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라는 목자의 여덟째 아들로서 목동입니다. 하나는 왕자였고, 하나는 시골 목동이었는데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족장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나라를 건지고 나니 이스라엘 천지의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하며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장군이고,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이 나라의 임금인데 나는 천천을 죽이고 어린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마음속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산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항상 사람을 보내어 피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을 불러 놓고 말합니다.

"너는 장차 내가 죽으면 왕이 될 텐데 어찌 다윗을 사랑하고 그를 보호하느냐?"

그러자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생명도 몇 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다윗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래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만 못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만큼이나 사랑했습니다.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생

각하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자 요나단의 아들 중 신체 불구자가 된 절름발이 므비보셋을 데려다가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를 돌보되, 친구의 아들과 조석으로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친구의 의리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공은 던질 때 받고 또 던져야 재미있습니다. 사랑은 한 쪽만 하면 재미가 없는 법입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몬토레이 백작 시종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알렉산더와 시저, 그리고 나는 장군이다. 우리는 말을 타고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오늘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없구나. 그러나 예수는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으로 점령하여 오대양 육대주 없는 곳이 없구나. 긴 시간 어떤 무서운 파괴자라 하더라도 예수가 점령한 땅은 뺏을 자가 없다."

오늘도 가장 강한 무기는 권총이나 수류탄, 원자탄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무기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딴 생각 하거나 집에도 안 들어오면 아내는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왜 그런지 살펴보시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로 대접하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마 7 : 12). 다시 말하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먼저 대접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운 예로, 동물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어떤 사람이 자

기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동물을 귀찮게 여기면 동물도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하고 예민합니다. 어린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면 그 아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꼬집고, 야단치고, 미워하다가 그 부모가 있을 때 "이리와." 하면 절대로 안 갑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성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애굽에 가서 룩소라는 나일강 근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날이었는데, 그곳에서 작은 어린애 하나를 보게 되어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무엇을 사 가지고 와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나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 : 35).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여름철에 집에 있노라니 세 명의 나그네가 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반가이 맞이하며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목이 마를 테니 물도 마시고, 발도 씻고,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며 대접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당신이 나이가 구십구 세이고 부인도 팔십구 세이지만 자식이 없으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생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지만, 그때 사자는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

이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떠나가고 세월이 흘러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나이 백 살에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 두 군데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왕상 17 : 8~16).

아합 왕 당시에 왕과 왕후와 백성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천지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시냇가에 있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워 자기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니, 그 과부가 "우리 집에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것을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까?"라고 말은 했으나,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그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니 그릇마다 가루가 다 차고 병의 기름이 가득 차 남은 여생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대접하면 복을 받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왕하 6 : 8~23).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능력의 종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군인의 눈을 전부 멀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 피할 길과 살 길을 지시할 테니 따르라고 하며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 가운데 두었습니다. 주위로 사마리아인들이 둘러서 있으니 그들은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엘리사에게 그들을 칠지를 물으니 엘리사가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 아람군대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돌아간 군인들이 자기들의 임금에게 "우리가 포로가 되어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니 엘리사가 살아 있는 동안 아람 군대가 다시는 그 땅을 침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떡과 물로 수많은 생명을 건지고 나라를 구원했다는 것은 정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한국전쟁 마지막 종전 때, 중공군 100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밀듯 내려오니 국군과 미군이 장비도 집어던지고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함흥에 살고 있는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는 수송부대 책임자 미국인 한 분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빈대떡과 떡도 해주고, 식혜도 해주고, 감자도 구워 주고, 그 피난 야단통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송부대 책임자가 사랑에 보답하고자 아예 수송기 하나를 전세로 내서 그 직계 가족을 다 태우고, 쌀, 간장, 된장 등을 전부 싣고 동해바다를 거쳐 부산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은 미국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함으로 함흥의 환난 속에서 내외 뿐만 아니라 아들딸 손자까지 집 안에 있는 것 다 들고 피난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대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갈릴리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호렙 산에서 내려오는 청아한 물에 고기가 뛰놀고, 새는 노래하고, 사람들은 낚시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광객이 들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위에서 물을 받고, 밑에서는 물을 자꾸 빼줍니다.

그런데 사해로 가서는 빠지는 데가 없고 받기만 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자꾸 수분이 증발하니 소금바다가 되어 송사리도 없고, 꽃 한 송이도 없으며, 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셋째, "서로 봉사하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 : 45).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마지막으로 몸까지 주어서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봉사하고, 병을 고쳐주고, 상담하고, 전도하느라고 제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너무 많이 잡수셔서 숨이 가쁘고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병을 고치는 비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치유의 방법은 금식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형편에 있었을 때 어느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다니면서 당신보다 더 건강이 나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도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경 예민한 것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고 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 :

13~1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하고 많은 존경을 받는 것은 문벌이나 학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또한 돈이 많아서가 아니요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별로 한 것이 없고, 일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어떤 음악가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그것으로 레코드판을 만들어 팔아 백만 불 정도의 수익을 거두어 오천 명을 죽음에서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두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하셨다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살기는 넉넉한데 자식이 없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아 넷을 데려다가 양자와 양녀로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복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느 집에 아들딸 5남매가 있는데, 한국의 고아 다섯 명을 데려다가 모두 열 명을 기르는데, 한국 고아 다섯이 전부 신체 장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돈을 벌면 좋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합니다.

카네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 학교를 세우고 미술관, 병원, 음악단, 도서관, 학술연구원, 장학재단, 평화운동, 문화사업, 복지사업에 쓰면서, 물질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봉사를 합니다.

대구에 경북대학을 나오신 김상엽 영어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분은 봉산성결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분은 대학교수로 받는 돈이나 개인 교습을 하고 받는 돈, 강의를 해서 받는 돈으로 최저의 의식주 생활을 합니다. 여름엔 면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머리는 빡빡 깎고, 책보에 책을 싸서 다니면서 나머지 돈으로는 이웃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제자들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으로 주기도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 : 7~9).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기계 문명 때문에 모두가 다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서가 메마르고 의리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신 교훈을 받아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지간에, 또는 자녀들과 이웃과 성도와 백인과 흑인과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 먼저 사랑하라, 서로 먼저 대접하라, 서로 먼저 봉사하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때 가정이 보다 더 행복하고, 교회가 보다 더 부흥되고, 사회가 보다 더 명랑해질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눅 7 : 36~50).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3절, 마가복음 14장 3~9절, 누가복음 7장 36~50절, 요한복음 12장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다소 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기와 사건의 내용을 보아서 같은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

본문 37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를 가리켜 '죄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리에서 몸파는 여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매춘부', '창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 창세기 때 부터 창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여자는 어떠한 이유로 창녀의 신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찌하든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존재였습니다. 한 남편의 여자가 아니었고, 정숙함을 잃은 여자인 것입니다. 누구나 신분을 막론하고 돈만 주면 이 여자의 몸을 살 수 있는 상황의 수치를

당하며 사는 여자입니다. 또한 이 여자는 이방 여자로서 불명예스러운 여자요, 이름조차 없는 여자였습니다.

구약 시대 유대 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여인의 신분 위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숫자에 넣지도 않고 "여자에게 영혼이 있느냐?"라는 망언을 할 정도로 여자의 가치를 격하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사라, 리브가, 에스더,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루디아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자는 이러한 여자들 서열에 끼지 못한 것을 보아 아마도 존재적 가치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베드로가 출생해서 사는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그만 동네이며, 인구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신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더 잘 알았을 것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도 이 여자를 거리의 여자요, 매춘부, 창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천시와 멸시를 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가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긍휼과 자비, 사랑보다는 정죄와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쏘아붙였을 것이고, 제사장은 성전의 뜰 안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에 빠져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 여자에게도 지, 정, 의가 있고, 양심과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도 자기의 생활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 된 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린 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예수님의 구원

한번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에서 온 위대한 선생으로서 병자를 고쳐 주는데,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낫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분은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는데,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고, 눌린 사람과 죄인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 이 소문을 듣고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도 사랑해 준다는 그 분을 만나 보고 싶은 충동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마침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간 여자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 줄기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지금까지 보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 군인, 정치가들의 얼굴과는 다른 인자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몸을 버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마 20 : 28).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마 9 : 1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편히 쉬게 하여 주려고 오셨고(마 11 : 28),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러 오셨습니다(마 5 : 3~4).

이 여자가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을 흘리며 준비해 온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붓는, 자기의 심정을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예수님은 곧 이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순간 이 여인의 영혼은 새롭게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창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딸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한국의 모 신학교의 여자 교수가 보낸 성탄 축하와 새해 인사를 담은 카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과 저와 제 아내가 서로 잘 아는 사이였는데, 이 분에 대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분은 일제 시대 때 만주에서 기생 노릇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화장을 하고 기생방에 들어가 뭇남자와 더불어 장구를 치고 밤새도록 흥겹게 지내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해도 잠은 안 오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즉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춰 봐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영혼에 평안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교회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맨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급기야 기생의 생활을 청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 해방되자마자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롬 5 : 20)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불

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게 5남매가 있어 키우는 과정에서 막내가 신체가 허약하고 정신이 흐리고 제구실을 못할 때 튼튼한 4남매보다 부모의 연민과 애정, 관심이 더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잘못 읽어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다 하여 오늘부터 나가서 더 많이 죄를 지어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5세기의 성자 어거스틴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한때 신앙을 떠나 타락의 길로 들어서 많은 여자들을 상대하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 32세의 대학교수일 때 14, 15세 된 처녀하고도 산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때 끊임없이 눈물로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낳아 준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의 기도가 탕자인 사람을 성자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즉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 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발휘되어 어거스틴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책을 써서 지금까지도 후대 사람에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양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바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고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는 사라지고 용서 가운데 확실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알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를 가지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간절하게 죄인들이 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셋째,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오기 전까지는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극단적이요, 보수적이며, 독선주의, 배타주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이방인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창녀의 몸으로 그곳에 간다는 것은 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포기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자기의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한편 이러한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더러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텐데, 죄인을 받아들이다니…….'

그러자 곧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으시고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떤 부자에게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빚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돈을 꿔 준 사람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몬은 물론 탕감을 많이 받은 자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시몬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44~47절).

갈릴리 해변은 황토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따라서 귀빈이 오면 주인의 종이나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데 시몬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 머리는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를 붙잡는 것은 아주 몰상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놀라운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뒤에 섰다는 것은 겸손을 말합니다. 눈물로 발을 씻은 것은 감사를 뜻하며, 머리로 씻은 것은 헌신이요,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사랑이며, 값비싼 향유를 쏟은 것은 예물과 헌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다섯 가지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자가 가져온 향유는 삼백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나가 하루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삼백 데나리온은 약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만한 돈을 갖다 부은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 여자의 우상이기도 하고 그 여자의 재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조건적 대가, 공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 무엇을 바치고 강사를 대접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집 한 채 바쳤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귀한 것을 바친 것은 "이것을 바치니까 나에게 구원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 감격해요."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재확신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격도 적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적습니다. 과거 베드로, 바울, 스데반, 성 어거스틴 등은 자기의 시간과 은사, 땀, 눈물, 물질, 생명, 몸 전부를 바쳤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기름 붓는다' 고 말할 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것을 모르고 그저 정치적인 구주로 오신 것만으로 알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야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안이 열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선지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제관식을 베풀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 누구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막 14 : 8)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유를 부을 때는 온 방 안의 악취가 다 없어지고 향기가 가득 찹니다. 방 뿐만 아니라 동네에도 가득하고 이 지구촌에도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일도 전파되어 저를 기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유대 땅에 수많은 부자들과 학자, 권력자들이 있었고, 제자들마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못 부었는데 한 죄인인 여자가 삼백 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 여자처럼 옥합을 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옥합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이 가장 소중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 남편, 돈, 집, 오락, 예수 믿기 전 과거에 사랑하던 것이나 아끼던 것, 귀중히 여기던 것이 옥합입니다. 그것을 먼저 깨야만 향기가 나고 모든 사회의 공기가 달라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새 역사의 창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깰 때만이 희생과 봉사가 있고,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만이 역사는 창조됩니다.

제3부

힘써 기도하자

공포를 극복하는 비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 : 9~14).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요일 4 : 18).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보다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안과 공포, 초조와 전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별히 이민자들이나 대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은 현대인의 불안과 공포를 7가지로 지적했습니다.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 노쇠에 대한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포를 느끼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보거나 불을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독, 큰소리, 낯선 사람을 보아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 아주머니는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흑인이 와서 가까이 앉으니 몸이 오싹해지면서 물러앉았답니다. 그랬더니 흑인이 "왜 그러십니까? 내가 당신을 잡아먹습니까?" 라고 한국말로 말하더랍니다. 한국 여자와 같이 사는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흑인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은 수가 나쁠 수 있으나 소수를 보고 전체를 다 나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는 흑인, 백인, 멕시칸들이 개척을 했고 우리는 뒤에 와서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선입관이나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녀를 키우고 발전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경제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대한 두려움, 시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잘 교육을 받아 탈선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핵무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는데 이 에이즈는 꼭 죄를 지어야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 대중탕에 들어가서도 걸릴 수 있고, 공중 변소에 가서도 걸릴 수 있고, 수혈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과 지진에 대한 두려움, 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 강도에 대한 두려움 등,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옛날보다 정신병 환자, 고혈압 환자, 소화불량 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불안한 사회에서 산다는 것이며 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위대한 발명이나 지적 발전은 두려운 환경이나 무서운 조건을 피하려는 욕망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대한 공포는 전기를 발명하게 하였습니다. 병에서 오는 공포는 의술을 발달하게 했고, 무지에서 오는 공포는 오늘 많은 교육이 진전되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오는 공포는 국제연합의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변호사가 저에게 미국에서 유대인 의사와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동유럽이나 유럽에서 이민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이 없이 알몸으로 왔습니다. 나라를 잃고 세계를 유랑하면서 가는 곳마다 멸시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을 마지막 정착지로 알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열과 성을 다하여 그들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면서 유대인들에게 직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세워진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나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의사와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두려움의 환경을 이용해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월남전쟁이 한창이어서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많은 한국 사람이 공장이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어 할 수 없이 작은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어 한국 사람이 경제적으로 빨리 자라 미국에서 한국인 거부가 몇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 불안, 공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공포는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공포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정상적인 공포는 개인적, 집단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동기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공포는 우리의 내면적인 생을 끊임없이 해치고 좀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제는 공포를 전적으로 없앨 수도 없고, 공포 없는 세상으로 이사갈 수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세계도 없습니다. 현실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떻게 공포를 길들이고 치유하고 극복하고 이용하는가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공포를 어떻

게 극복하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포는 용기로 극복됩니다

인간에게 최고 덕목이 있다면 용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평상시에는 보통 사람인 것 같지만, 일단 위험이 내 앞에 닥쳐올 때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superpower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한 능력이 나옵니다.

옛말에 동네에서 10년 동안 사랑방에 앓아 누웠던 사람이 난리가 나면 동네에서 앞장서서 도망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둔한 것 같지만 유사시에는 아주 비호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빠른 것이 인간이고 용기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용기는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간격을 잇는 영혼의 한 요소"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이라고 봤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용기는 최고선의 도달을 위협하는 어떤 방해물도 정복하는 정신력"이라고 했고, 베토벤은 "인간의 위대성의 척도는 용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이 왜 위대합니까? 그 분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왜 위대합니까?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무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군인수가 많아서, 훈련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독립이라는 대전제와 신념과 용기가 있어서 그 대영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남쪽이 돈이 있고 군인도 많고 훈련이 더 잘 되어서 북군이 밀리고 밀려 궁지에 몰려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국회의사당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승리의 축하를 할 것이라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최후의 5분이라는 말, 이것은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로 과감한 용기는 어떤 불안과 공포도 항복시키고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 염려가 40%, 근심해도 도리가 없는 염려가 30%, 불필요한 염려가 22%, 꼭 염려해야 할 것은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92%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은,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8월 말에 지진 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멀리 나갔다고 합니다.

15년 전쯤 대지진이 한 번 났었습니다. 다리가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도 여파가 있어서 위로 굴뚝이 다 금이 가고 집이 흔들려서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지진이 난다고 하니 집을 값싸게 팔고 먼 데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집들을 누가 샀냐면 아주 악착 같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의학박사 러셀(C. H. Russel)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불안에서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지만, 마음에 몹시 충격을 받았을 때에는 밥도 못 먹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위에 들어가서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성을 바짝 올린 다음 고기를 던져 먹게 하면 얹힌다고 합니다. 속이 편해야 합니다. 셋방을 살아도, 가난해도, 부부간에 화목하고 애들이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마음 편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쥐를 유리병에 집어 넣고 자꾸 약을 올리고 골탕을 먹이고 열흘 후 그 쥐를 꺼내 해부해 보니 건강하던 쥐인데 십이지장 궤양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해를 갖다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공포를 느낄 만한 것도 아닌데 인간이 미리 겁을 내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염병이란 것이 그 성을 전염시키겠으니 문지기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문지기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막으니 이 전염병이 말하기를 들어가서 꼭 한 사람만 잡겠다고 했답니다. 문지기가 전염병과 옥신각신하다가 꼭 한 사람만 잡을 것을 약속하고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천 명이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붙잡고 야단을 쳤습니다. 왜 한 사람만 잡아 가기로 하고 천 명이나 잡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전염병은 정말 한 사람만 잡았는데 나머지 사람은 자기가 겁을 먹고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방을 맞이한 1945년 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해방을 맞이하자 저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형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깊은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는데 기차를 타고 오다가 춘양에서 내려서 상당히 큰 산을 지나가야 했는데 이것이 장백산입니다. 인기척이 없는 곳입니다. 그때 제가 스물두 살이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타나도 한 번에 죽일 것 같은 힘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나무가 많았고 나무 줄기들이 하늘에 뻗쳤고 산속은 컴컴했습니다. 산만 지나면 집인데 갑자기 눈앞에 큰 흙더미가 보

였습니다. 그 흙은 황토였으며 큰 구멍이 난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오싹하고 머리카락이 전부 하늘로 치솟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산돼지인가 싶은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산돼지는 사람 잡아먹으면 뼈다귀도 씹어 먹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되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좌우간 죽을 때 죽더라도 가보자 해서 살살 기어서 가 보니 아무것도 없는 큰 구멍이 뚫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탄 하나가 떨어져 구멍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왜 떨었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도 여주에 전도사로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대비라고 하는 세종대왕비를 넘어 작은 동네에 개척을 했는데 주중에 늘 저 혼자 갔다오곤 하였습니다.

계절은 늦은 가을이었고 석양 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늦게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깜깜한데 인기척도 없고, 소나무도 많고, 무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다녀도 전에 보지 못하던 흰 것이 보였습니다. 별수 있습니까? 저는 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살살 가 보니 거기에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에서 새광목을 사다가 빨래를 해서 이슬을 맞히려고 걸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했습니다.

용기는 공포를 물리치는 무기이고 비겁은 공포에게 굴복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의 홍수를 막기 위해 용기의 제방을 끊임없이 두텁고 높게 쌓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인 애머스는 "매일같이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신념을 가지고 "잠잠하라, 어째서 떨고 있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지금

은 애굽 사람을 보지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못 보리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간 애굽에서 배웠고,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고생과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공군 목사로 있을 때에 장성이나 고급 장교는 비행기를 타면서 죽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생도들이 3년간 학과 공부를 하고 4년째 되었을 때 비행 훈련을 하다가 많은 학생이 죽는데 그것은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배운 후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여러 번 해보고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해 볼 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둘째, 공포는 사랑으로 극복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요일 4 : 18)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당들에게 잡혀 갖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얼굴에 침 뱉음을 당했습니다. 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서 영문 밖으로 쫓겨 그 갈보리 언덕에서 강도 틈에 끼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고통,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을 가졌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본국인은 물론 이방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옥중에도 갇히고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언제나 평온을 잃지 않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

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분이 많이 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영국의 육군 대위 한 명이 결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 와서 폭풍을 만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데 남편은 고단했던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가 참다참다 못해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배가 뒤집혀 죽을 것만 같은데 당신은 잠만 자고 있어요?" 하면서 야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위가 가방에서 칼을 빼서 여자의 목에 대니 여자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깔깔깔 웃었습니다. 대위가 무섭지 않냐고 하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 칼이 사랑하는 사람 손에 들려 있는데……." 하였습니다.

제 작은딸이 세 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가 연세대 앞 폐철뚝에다가 학고방을 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세 살 된 딸을 데리고 내려가는데 누렇고 털이 복실한 개 두 마리가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아이구 무서워, 아이구 무서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가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소리는 안 들리는지 기절을 합니다. 그때 아주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딸아, 네 아버지가 이 똥개보다 못하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진 날까, 차 사고 날까, 결혼에 실패할까, 전쟁 날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실상은 개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참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명장이냐 용장이냐를 알려면 전쟁이 나서 격전지에 가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압니다.

오늘날 이 공포는 미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면서 공포가 일어납니다. 군인과 백성, 교수와 학생, 노동자와 주인, 여와 야, 남과 북, 흑인과 백인, 소련과 미국, 이라크와 이란 등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불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공포를 갖는 것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공포는 불신과 미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공포를 이기고 치료하려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제가 1965년 미국에 와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야 먹고 또 공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서부에서 세 번째로 큰 인쇄소에 취직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백인이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시험해서 그런지, 우습게 봐서 그런지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흑인을 비롯해서 멕시칸, 인디언, 백인이 다 저를 괴롭히고 끌고 가서 잡아 매달고 놀립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고 커피 갖다 주고 명절 때는 카드도 보내고 한국의 재미있는 장난감, 신발, 노리개를 갖다 주기를 몇 해 동안 했더니 나중에는 저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고 도와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참친구가 되어 전화만 하면 저희 교회에 쓸 종이박스 같은 것도 보내 줍니다.

여러분, 증오는 공포를 자아 냅니다. 증오를 해소시켜야만 공포가 없어집니다. 공포는 사랑으로써 해결됩니다. 인종, 원수, 이해를 초월하는 아가페의 사랑만이 오늘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공포, 단체의 공포, 민족적 공포, 인류적인 공포는 사랑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삶을 마비시키고 사랑은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미움은 삶을 혼돈하게 만드나, 사랑은 조화를 가져옵니다. 미움은 삶을 흑암으로 끌고 내려가지만 사랑은 광명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공포는 사랑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포는 믿음으로 극복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 : 23).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적게 믿는 자야 왜 의논하느냐, 적게 믿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너희들이 의심하고 의논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믿음이란 알 수 없는 이 우주 공간에 내가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과 우주는 무의미한 혼돈의 비극적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한한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뿐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택한 백성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주의 놀라운 목적과 질서와 유지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비관주의나 병적인 공포의 짐도 없이 생의 대로를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실존, 부활,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덴버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옷 색깔이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알록달록한 색 등 여러 가지인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을 집회하는 목사님도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에 갔는데 왜 검은 옷을 입고 와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신자들을 보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관이 땅 속에 묻힐 때까지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에 간 것을 믿는데도, 다시 만날 것인데도 계속해서 울어댑니다. 이렇게 죽을 것이면 나도 같이 죽자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이 죽음에 대한 개선가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개선가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김활란 박사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서에 "내 장례식에서 슬피 울 사람은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시오. 기쁨으로 찬송할 사람만 오시오."라고 했답니다.

저희 교회 이건기 장로님의 누님 남편이 미국으로 이민 왔다가 가게에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 이 미망인의 눈은 퉁퉁 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하는 과정 중 찬송을 부를 때 제일 똑똑히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라서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먼저 좋은 곳에 보냈으니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나흘 후에 저희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분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 어디를 가든지 꼭 혼자 안 가더니 죽어서도 혼자 안가고 손자를 데려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데려가려면 아내를 데려가지 왜 손자를 데려갔냐고 하면서 울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집에 초상이 두 번이 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시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 방에서 혼자 우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까는 안 우시더니 지금 왜 울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나마저 울면 집안에 혼란이 날 텐데 어떻게 우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믿지 않는 할머니도 이런 침착함이 있는데 믿는다면서도 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합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죽음이 닥쳐 옵니다. 그런데 자연수로 죽으면 덜 하지만 병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면 심리적인 변화가 다섯 단계로 온다고 합니다.

첫째, 부정의 단계인데 나에겐 그런 병이 없어 진찰을 잘 못한 거라고 부정을 합니다. 둘째, 분노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와?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 혼자 죄 지었나?' 하는 분노가 옵니다. 셋째, 교섭을 합니다. 언제 데려가려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오래 살게 해달고 합니다. 넷째, 수긍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엔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입니까? 믿음으로 평안을 가집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눈앞에 놓고 맞는 부정, 분노, 교섭, 수용,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평안을 가집니다.

분명히 믿음은 공포를 극복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왔을 때 모

든 사람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수장을 시키냐고 말입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이 9척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앞에 서서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흰 뼈가 나오면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중해 유라굴라 광풍이 14일이나 부는데도 마음에 평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한국전쟁 때 저와 아내가 경상도로 피난을 갔다가 인민군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뚫고 나갔습니다. 낙동강까지 오니까 장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왔는데 낙동강 물은 바다가 되고 배는 다 부서지니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건너가야 산다고 믿고 성경을 들고 물에 들어갔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걷다가 정 급하면 헤엄을 칠 생각을 하고 가는데, 성경이 물에 젖지 않도록 머리 끝에 올렸는데 그것만 안 젖고 온몸이 젖었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계속 '모세 홍해, 모세 홍해, 물 위를 걸은 베드로, 모세, 베드로' 이 생각만 하면서 가니 차차 목이 나와 다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국군과 경찰들이 거기서 나를 붙잡고 만세를 부르며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감해서라기보다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미국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최대의 공황이 와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했고, 핸디 데이빗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흑인에 대한 편견, 교통 사고, 지진 등을 무슨무슨 문제라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쓸데없는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좋아질지 어려워질지 저는 성경을 보고 예언합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악이 성해지는 법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공포에 떨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십시오. 오직 사랑과 용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옵니다. 1년이 365일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천지는 변할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용기, 사랑,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실패해도 낙심치 말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 년을 지내었더라"(삿 16 : 28~31).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주전 1070년경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13대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왕정시대 이전의 신정시대 때 그 나라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그 당시의 왕입니다. 최고의 통치자요 재판자로서 신앙을 지도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한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말로에 자신의 처신을 바로 하지 못하고 흥청거리다가 결국 여인에게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출발만큼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실패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삿 13 : 5).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실인' 이라는 것은 '성별되었다', '구별, 헌신되었다',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를 의미합니다. 즉 나실인은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사회 속에서 같은 생활을 하지만 규정에 의해 몇 가지의 사항을 지켜야 했습니다. 즉 율법에 따라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머리털을 깎지 말아야 했으며, 시체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실인의 종류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서원(민 6 : 2, 행 18 : 18), 부모의 서원(삼상 1 : 11),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한 서원(삿 13 : 5 · 7, 눅 1 : 15)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생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례를 성경에서 찾아 보면, 삼손과 사무엘, 레갑 족속, 세례 요한, 바울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실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히 7 : 26). 즉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온전한 제사로 자

신을 드려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예고하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예고한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예고되고 잉태된 사람입니다.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잉태하게끔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다가 결국은 여자에게 빠져 원수에게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초라하고 실패한 인간이 되어 최후의 죽음을 비참하게 맞아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20대는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살고, 30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고, 40대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살고, 50대는 자기를 위해 살고, 60대는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고, 70대가 되면 과거만 회고하다가 살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즉 20대는 우주 문제를 해결한다고 큰 꿈을 가지고 살다가 60, 70대가 되면 마지막에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고등학생과 중년 군인을 보고 비교하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군인을 보고 아직도 저 나이에 소령밖에 계급이 안 되냐고 속으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옛날 나폴레옹,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나이 20대에 원수까지 되었다는데 기껏 소령이 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실상 이렇게 얕잡아 보지만 젊은 고등학생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 하나도 하늘의 별과 같이 높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출발할 때처럼 마지막은 화려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등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주 인물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남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웅변가로서 설교도 힘차게 잘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였습니다. 이 다음에 한국 교계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훌륭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젊은 전도사가 열 살 연상인 전도사 부인과 함께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초라한 인간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하는 것을 알지만 그후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처음 출발보다 마지막이 못한 것을 알게 되면서 동정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래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상원의원 게리 하터가 인물도 잘생기고 케네디처럼 머리도 좋고 인기가 대단했지만, 어떤 신문사에서 그가 마이애미에서 젊은 여자와 배를 타고 동침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여 그 사람의 빛은 첨점 사라지고 한국인은 물론이고 미국인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초라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했다가 마지막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어서 재

정을 맡은 재무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 그는 물질에 탐을 내서 처음 화려한 출발보다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출발도 좋아야 하지만 그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남산에 이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동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마땅했을 텐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이 되면 안되겠다고 말 한 마디를 했었으면 4 · 19 때 학생들이 다 끄집어내려 없애 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천재는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일관된 생애를 보내야지 처음의 시작만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 : 12~14)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시기는 아마 백발이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는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힌 사람으로서 보통사람 같으면 훌륭한 생애를 지냈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본인이 아직 잡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푯대를 향하여 달음박질한다는 진행상을 말한 것을 보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종지부를 찍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둘째,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삿 14 : 6)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상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초자연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자를 양 새끼 찢듯 찢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날쌘 여우를 삼백 마리나 잡았고 (15 : 4), 또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 용사 천 명을 죽인 것(15 : 5)을 보면 그가 힘이 굉장히 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칡넝쿨 일곱 개로 꽁꽁 묶였는데도 한 번 힘을 쓰니 썩은 실이 끊어지듯 끊어져 나갔다고(16 : 9) 하는 것을 보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인적인 비상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떠남으로 초인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한 범인이 되어 원수에게 사로잡혀 노리갯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갈 6 : 3)고 했습니다. 옛부터 보름달보다 초승달이 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름달은 점점 작아지지만 초승달은 점점 커져 간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 하는 것보다 2등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은 2등 하는 사람은 항상 노력하지만 1등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 중 달리기 시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5,000m나 10,000m를 도는 과정에서 처음에 맨 앞에서 뛰는 사람

중에 기권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이 마지막에 모았던 힘으로 질주하여 선두로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1등으로 가던 사람이 끝까지 1등을 유지하며 가는 것은 열의 하나, 백의 하나이지만 뒤따라가던 사람이 마지막에 힘을 내어 우승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30절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의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할 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배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갖다 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는 들어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하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게을러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에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무서운 주인으로 내가 알므로 잘못 장사하다가 본전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그대로 두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왜 은행에 넣어 변리라도 취하지 못했느냐?"라고 꾸짖으며 그 한 달란트를 빼앗고 어둠 가운데 내어쫓았습니다.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다만 성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여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라 “교사로 자원하실 분 중에서 훈련을 받고 2세를 길러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70명이 자원해서 교사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중 연설가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같이 일곱 가지를 갖춘 사람이다. 즉 신념, 창의력, 상상력, 열심, 인내, 집중적 노력, 신앙이 그것인데, 혹 일곱 가지를 다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만이라도 성실히 실천하는 사람이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최선으로 순종과 봉사와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건강, 지식, 물질, 기술, 은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쓰지 않고 밤낮 낚시나 가고 오락을 즐기고 자기만을 위해 즐긴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규탄을 받을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 어떤 한국인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15만 불을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씀이 마땅해서 바쳤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한국 이민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 사람 이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응답자 50% 이상이 아시아 사람들은 미국을 위해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서부, 동부, 중부에 사는 백인 중 64%가 역시 부정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 조국과 미국,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우 기업의 김우중 씨가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해 받게 되어 읽을 기회가 되어 읽어 보았습니다. 처음을 보니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권사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많이 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걸렸던 것 중 하나는 첫 장면에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목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으니 지구를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5 to 9'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른 사람은 9시부터 시작하여 5시면 일을 끝내는데 저자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밤 9시까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 땀을 빼고 애를 쓰는데 그는 일감이 많아서 제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이 골프 치러 가서 조그만 구멍에 공 집어 넣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에겐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 분은 그만큼 시간을 아끼고 아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공한 것이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9 to 5' 할 때 이 사람은 '5 to 9' 일한 것을 볼 때 우리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고,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

아 능력만큼, 또는 능력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부모와 그 나라 민족도 삼손에게 거는 기대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날 때부터 예고를 받고 성별된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이고, 그 나라 사람들은 그를 사사로서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는 한낱 원수의 기생에게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전직 대통령 중의 한 사람은 그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민주주의를 시행하겠다고 큰소리를 내고 북방정책도 초당파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기대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중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도 하나님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들이 모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지혜와 능력을 받아 바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바른 정치를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미국의 워싱턴, 링컨, 아이젠하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래 전에, 올림픽에 나갈 아시아 축구선수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홍콩에서 북한과 남한이 축구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남한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남한 선수들은 고개를 들고 기뻐하고 있는데, 북한 선수들은 졌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한 선수들은 남한의 국민이 기대한 만큼 보답을 해주었고, 북한 선수들은 북한 사람이 기대한 만큼 보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김일성 앞에 가서 혼날 것을 생각하니 동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부모와 아내, 남편, 자녀들의 기대에 보답할 만한 사람인가? 스승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제자인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인가?'

어떤 사람은 직분도 없는데 직분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사님인데 장로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로님인데 목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 보고 반성해 보고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기대에 얼마나 보답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님 중에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 부모와 나라의 기대에 어긋난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의 실패자일 것입니다.

넷째, 공인으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한 실패입니다

삼손은 나라의 통치자요 최고의 재판자,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할 일은 국방과 교육과 신앙을 위해 솔선수범(率先垂範)하고, 밤잠을 못 자고 동분서주(東奔西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노력해야 하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제쳐놓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기생집에 드나들다 거기 빠져 두 눈이 뽑히고 소처럼 매여 일하다 마지막에 죽은 것을 보

면 이 사람은 공인으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16~1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여인이 계속 졸랐기에 그만 실토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술을 먹인 후 무릎에 재워 놓고는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카락 일곱 가락을 밀었습니다. 그 다음 묶으니까, 힘을 쓸려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의 맛은 달콤하지만 그 열매는 쓴 것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에이즈(AIDS)에 걸린 사람들은 대개 성적 문란 때문에 걸려 자기도 죽고 자기 아이도 죽습니다.

오래 전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비서와 잘못된 관계를 맺은 사실로 신문에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헌금을 빼돌려 사치하고 방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45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공인으로서 실패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게 마련입니다. 신이 아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알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롬 3 : 10).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삼손도 이후에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은 버림받고 나면 반성하고, 죄 짓고 나서 고통에 빠졌을 때는 탕자처럼 회개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삿 16 : 28).

삼손은 땀과 피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피땀 섞인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우상 신전의 큰 기둥 사이에 서서 마지막 힘을 쓰니까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살렸고 처음에는 부끄러운 삶이었지만 마지막엔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삼손과 같이 눈물과 피땀 섞인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하기만 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렘 29 : 12),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 : 3)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쟁에 이기지 못해 우울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간적 실수로 범죄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울에 계신 김동희 목사님이란 분은 실패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만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아무것도 성취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인가 새로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용기를 내야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출발해야 할 좋은 이유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더 오래 투자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새출발할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새로운 각성과 각오, 새출발이 된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훌륭한 노아도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벌거벗고 망신을 당한 실패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도둑질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질렀고, 다윗도 여자 때문에 잠시 타락했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했으며, 마가는 전도하다 집으로 돌아갔었고, 탕자는 나가서 다 탕진하였고, 바울은 사람 죽이는 데 공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큰 복과 큰 인물로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별된 만큼 아름답지 못했습니

까? 능력만큼 역사하지 못했습니까? 기대만큼 보답하지 못했습니까? 공인으로서 윤리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겸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실패를 거울 삼아 남은 여생을 빛 가운데 생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자의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 1 : 2~4).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시험을 경험하지 않았거나 단 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시험과 시련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학업의 실패, 결혼의 실패,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재산의 손실, 건강 상실, 부당한 비난, 환난과 핍박, 허영과 사치, 지위와 명예, 정욕과 유혹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송장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은 살아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을 때에 실패하면 불행과 저

주이지만,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 은혜와 발전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이 시험을 받는지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게 되는 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

(1)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이마에서 피와 땀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지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자다가 큰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 목동 시절에는 밤을 새워 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지낸 사람이었고, 군인 시절에도 밤을 새워 가며 기도하면서 신앙의 불이 타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임금이 된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차고 기도 생활에 나태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경건의 시간

을 가져야 할 사람이, 지난밤에 파티를 가졌는지 잠을 늦게 자서 오후 저녁때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사방을 보다가 건너편 집 뜰 안 우물가에서 목욕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큰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씻지 못할 시험에 빠진 것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궤계에서 벗어나려면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아침에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천사를 만나 축복을 받은 야곱,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 새벽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디베랴 바다에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 고기를 많이 잡은 제자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위에 나열한 사람들처럼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즉 교회마다 시행하고 있는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새벽에 기도하여 하루의 삶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2) 부(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 : 9~10).

부하려고 하는 사람,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돈의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과 인격과 사상과 신앙과 생활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돈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삶의 우선 순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유물론자입니다.

물론 돈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의식주를 위해 필요하고, 건강, 자녀 교육, 세금, 휴식, 손님이나 친구 대접을 위해서, 여행 갈 때 필요합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돈을 부모나 처, 자식, 친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조그마한 아이 성을 침공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함락시키기는커녕 크게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원인이 무엇인지 찾았는데 아간이라는 군인 하나가 아름다운 외투 하나, 은 이백 세겔, 금 오십 세겔을 훔쳐 장막에 숨긴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군인이 패하고 만 것입니다. 아간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성에 다시 가서 쉽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돈을 탐낼 때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전쟁의 패전을 가지고 오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시험이 온다고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지, 성실한 사람이 되는지,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선량한 시민이 되는지, 그리고 선량한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지, 이것을 밤낮 생각하는 것이 참다운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기보다는 아름다운 생각과 행동 속에서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 : 14~15).

성경이나 일반 역사를 살펴볼 때 외부로 인한 실패보다는 자기 마음의 욕심에서 실패하는 것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이 자제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갈 5 : 22~23)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제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를 잘 살펴보면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도 보신 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삿 16 : 4). 삼손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신정시대에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요 왕인 셈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힘을 받아 기운이 매우 센 사람이었습니다. 사자 입을 찢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가 왜 실패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었고 자제력이 없어 실패한 것이요, 여자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 블레셋 나라의 기생에게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가 말리고 친척과 친구가 말려도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결국 자제력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자의 꾀임에 빠져 자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는지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

지막 삶의 모습은 원수들에게 묶이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큰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집을 무너뜨려 그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돈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권력에 대한 자제력이 없고, 술에 대해서도 자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먹으면 그것도 약주가 된다는데 잔술, 사발술, 댓술, 손술, 낮술 등 술에 대해 자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도 자제력이 없습니다. 도박에 대해서도 자제력이 없습니다. 운전 속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차가 새 차이고 잘 달린다 하더라도 옆의 사람이 빨리 가고 앞서가더라도 거기에 상관없이 정한 속도로 달려가면 될 것을 앞의 차에 뒤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심지어 운동에 대해서도 자제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마비에 걸려 죽습니다. 운동도 적당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부부관계도 자제력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대나무가 좋은 것은 겨울에도 잎사귀가 푸르러서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대나무의 매듭, 이 매듭이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가다가 정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돈 많이 벌다가도 조금 쉬고 교회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운동하다가도 주일에는 교회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신앙 생활과 인생의 삶 속에서 가다가 정지할 수 있는 자제력이 있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4) 분방(**分房**)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 : 5).

바울 사도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왜 다른 집에서 살고 딴 방에서 잡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당연히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바로 대화를 해서 합의를 보고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 때 손잡고 기도하고 자면 되는데, 분도 안 풀고 기도도 안 하고, 남자가 집을 나가기도 하고 여자가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거실에서 자는 여자도 있고 자동차 안에 앉아 있는 여자도 있고, 모텔 또는 친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여자의 모습이 길어진다면 남자들도 하여금 라스베이거스, 멕시코로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잘못했다 해도 이렇게 하면 아내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방(分房)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남편이 월남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정의 아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특별히 행동거지에 신중하고 더욱 정숙한 여인이 되어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위나 주변에서 이런 경우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극한 상황도 있긴 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이기에 때로 환경의 지배를 잘 받습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혼자 있어서 타락한 것입니다. 아담이 없는 틈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일단 결혼했으면 부득이한 일 외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국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낮에 일하고 여자는 밤에 일하고, 여자가 낮에 일하면 남자는 밤에 일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방함으로써 시험에 드는 일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고도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갈 6 : 1).

형제가 시험받는 것을 보면 자신도 시험받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다른 사람이 시험받아 실패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거울 삼아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간혹 신문을 보면 뉴욕,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흑인들이 많은 곳에서 Liquor Store하는 분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냥 하는 것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Liquor Store 하시는 분은 기도해 보시고 다른 장사를 하십시오. 물론 죽는 것은 언제라도 한 번은 죽는 것이지만 좀더 살다 죽으려면 바꾸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 장사 해서 그래도 돈을 꽤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데요."라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헌

금을 조금 해도 좋으니까 다른 장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술 팔아서 바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흠 없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도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둘째, 시험당할 때 지녀야 할 태도

(1) 인내하며 주를 섬겨야 합니다.

시험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습니다. 그후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럴수록 더욱 참고 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지만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저울로 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이 당한 어려움과 내가 당한 어려움을 저울로 달아 보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에게 제일 어려움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같은 목사에게서 옵니다. 같은 장사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때로 목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아니 매사에 어려울 때 다른 생각은 안 합니다. 예수님의 어려움과 내 어려움

을 달아 보기만 하여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어디에서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른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주장하사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 : 13).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정도에 따라 일을 시키지, 아이가 못할 것을 절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견디지 못할 일은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출 14 : 21)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홍해까지 왔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병정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망망한 바다가 있습니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순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서 지팡이를 바다에 내리칠 때 바닷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험, 즉 뒤에는 애굽 병정들, 앞에는 홍해가 있어 꼼짝못할 시험 같지만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해방 후 남쪽에서 사상범으로 유치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북한에 가서 사상범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꼭 죽을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 여러 번 인민군에게 포위를 당해 꼭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또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같은 군목들이 제 군종감 직책을 뺏으려고 별별 모략중상(謀略中傷)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무사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교회를 두 번 옮기면서 돈을 지불해야 할 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계약일은 다 되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어려울 때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⑶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2~3절).

시험은 믿음의 연단을 가지고 옵니다. 시험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책을 통해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품과 인격 신앙은 고난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생의 폭풍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박

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 : 3~4).

제가 듣기는 미국에도 육, 해, 공군 가운데 제일 강한 군인이 해군이라고 합니다. 한국도 해병이 제일 용감합니다. 육군, 공군 출신의 성도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감한지 아십니까? 훈련을 아주 호되게 받기 때문입니다. 보통 훈련이 아닙니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용감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죽을 고비가 닥쳐도 죽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총알이 사람을 피해야 살지 사람이 총알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침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환난과 시험을 많이 당한 성도는 그의 마음, 그의 성품, 그의 신앙이 연단되어 앞으로 닥쳐오는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4)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 : 18).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종교적 시험, 정치적 시험, 배고픈 시험, 목마른 시험을 받고 오해까지도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 듯이,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민 온 사람에게 힘 닿는 대로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

험받는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 118 : 6~7).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미워하다가 고라는 산 채로 지옥에 갔습니다. 발람은 선민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놓은 올무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합시다.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면 고라와 같이 땅에 묻힐 것이고, 발람과 같이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하만과 같이 장대 끝에 달릴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5)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시험을 면케 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 : 10).

저는 가끔 답답할 때마다 시편 121편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

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한국일보 미주판 1986년 6월 3일자(화요일) 2페이지에서 너무 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김태수 씨의 가정은 아파트 17층 꼭대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피곤해서 잠을 자고 어머니는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 집의 외아들인 11개월밖에 안 된 영준이가 책상으로 올라가다 그만 창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17층이나 되는 높은 곳이고 밑에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냐면 떨어지는 문 앞에 5피트 되는 사과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5cm 정도 자란 가지에 그 아이가 걸려 가지가 꺾어지면서 그 아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집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17층에서 떨어져도 사과나무를 통해 이 아이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도 너무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진 피로 사신 바 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는 복

(1)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좇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단 1 : 12~15).

바벨론에 붙잡혀 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임금이 먹는 진미는 한 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더러워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채식을 먹겠다고 하며 열흘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고 나서 그들을 보니 임금의 진미를 먹은 자보다 더 아름답고 얼굴이 윤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과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냅니다.

(2) 칭찬과 존귀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 : 6~7).

시험을 이긴 사람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존귀를 얻습니다. 창세기 39~40장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용모가 준수하고 정직하고 훌륭한 소년이어서 장관의 아내가 흉측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유혹을 했으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붙잡고 매달릴 때 요셉은 자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찌 이런 죄를 범하리오’ 하면서 웃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죄를 덮어씌워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애굽의 장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후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이스라엘 소년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소년을 불러와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칭찬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시험을 잘 참으면 마지막에는 칭찬과 존귀의 자리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3) 부족함이 없이 온전해집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4절).

이 시련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려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 교회 식구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석 깎는 공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석을 가지고 와 깨뜨려 기계로 돌려 깎는데 좋은 보석을 깎기 위해서는 하루도 걸리고 어떤 것은 이틀, 사흘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냥 갈고 닦고 재보고, 또 갈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은 울퉁불퉁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쿡쿡 찌르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갈고 갈면 조금 나아지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4)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 : 12).

시험을 잘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6장 8~9절을 보면 모르드개가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되었지만, 시험을 잘 참아 바사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임금이 썼던 면류관을 썼습니다. 잘 참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받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건강도 좋아지고, 자녀 교육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좋은 가구도 가지고, 여행도 다니지만, 신앙 생활을 잘 해야 생명의 면류관의 복을 받습니다. 주일 낮에만 나오지 말고 저녁에도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직업을 가진 분들, 즉 간호사라든지, 밤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든지, 야간 당직을 하는 의사면 모르지만 제직들은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많이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곳에는 신자 이백만 가운데 목사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동 같은 곳에 가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목사를 만나 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모여서 마음대로 웃기도 하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왜 좋은 일을 하지 못합니까? 오락, 향락,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5)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를 갖게 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

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 : 28~30).

예수님과 같이 고생한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다윗이 군인 시절에 고생하며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같이 고락(苦樂)을 한 군인들이 다윗이 임금이 되니 장관이 되고 대장이 되고 모두 다윗과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고생한 사람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축구 경기가 있을 때 TV를 봅니다. 특별히 한국팀이 축구를 할 때 기도하며 봅니다. 어떤 날은 무의식중에 내 발이 따라 나가기도 하는 것을 보고 웃곤 합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며 그들이 못한다고 구박하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다면 그 사람들보다 100배 못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한 나라가 우승할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면 굉장할 것입니다. 그 나라 수상이나 그 나라 대통령이 그들을 모두 포옹하며 같이 먹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신앙 생활도 신령한 운동입니다. 저 운동선수들이 우승하기까지는 땀 흘리며 큰 노력을 한 것처럼, 신령한 운동가인 여러분도 잘 싸워 승리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는 항상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고뇌의 길입니다. 시험을 하나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험이 옵니다. 죽을 때까지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험이 올 때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마귀로부터 오는지, 사람에게서 오는지 살펴보아

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순종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싸워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도망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먼저 큰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압니다. 아브라함, 요셉, 욥, 다니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시험을 받았지만 순종함으로 이겼습니다. 요셉은 자제력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욥은 인내로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이 오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요셉과 같은 자제력, 욥과 같은 인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보여 주신 모범을 따라 닥쳐오는 시험을 이겨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뭄과 기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왕상 18 : 41~46).

1988년쯤 미국에 지속적인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개는 미국의 북쪽에만 가뭄이 들었었는데, 남쪽에도 비가 오지 않아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보도가 기억이 납니다.

요즈음 미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에 가뭄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농부들이나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밤낮 하늘을 보며 일기예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미국 농촌에서는 밤마다 모여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 가뭄이 계속되면 미국 식량 뿐만 아니라 세계 식량 사정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심한 가뭄에 많은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7대 왕 아합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신을 떠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의 신을 섬겼습니다. 극도의 부정과 부패한 정치가 그 땅을 덮었습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침으로써, 산천 초목이 말라 죽고 모든 농사가 흉년이 들고, 가축도 다 죽어 백성의 생활은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 나라의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꼭대기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알아보자.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며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모든 불과 나무와 흙과 물까지 다 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왕상 18 : 21～40).

이런 부정한 것이 일소되고 나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

고 갈멜 산에 올라가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큰 비가 쏟아져 만물이 소생하고, 풍년이 들고, 가축이 번성하고, 그 나라가 다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재(旱災)가 많은 지구촌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여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기도는 기적을 낳는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도였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확신의 기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가뭄도 장마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과 민족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41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꼭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임금에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는 확신의 소리를 했습니다. 또한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44절)라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갈멜 산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갈멜 산은 높은 산으로서 지중해 바다로는 평평하게 내려가고 디손 강 쪽으로는 깎아진 절벽과 같은 길입니다. 갈멜 산에서 평지까지 가려면 한참 꾸불꾸불한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이 많은 비를 주셔서 길이 막힐 것이니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한 기도, 상상적인 기도, 추상적인 기도, 관념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분은 어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택한 백성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정당하고, 순수하고, 깨끗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많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마 8 : 26),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마 14 : 31),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마 16 : 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막 4 : 40),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 1 : 6~8) 등의 말씀을 통하여 의심 없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인천 송현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장자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분이 서울 중앙성결교회 부목사로 시무하실 때 딸

만 여럿 낳고 아들을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자기에게 주례해 달라고 잘 부탁을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결사적으로 금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아들을 안 주셔서 우리 신자들이 저에게 결혼 주례를 안 맡기니 저도 주례 좀 할 수 있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름까지 지어, 신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인데, 명년 어느 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름까지 이야기하니 장로님들이 "아이구 젊은 목사 하나 망쳤구나." 하면서 근심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바로 그때쯤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 번을 봐도 분명히 아들이더랍니다.

제가 그때 그 설교 간증을 듣고 그 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아들 없는 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치과의사이신 김지수 집사님이 12년 동안 딸 하나만 낳아 기르다가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앞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인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 동래 온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피난 목회를 하는데 울릉도에서 권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은 부산 남성고등여학교 교장이신 정일정 장로님의 어머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울릉도에는 어업이 주업이지만 논밭이 조금 있어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서 예수를 잘 믿는 농부 부부가 엘리야와 같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다섯 살 된 아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집에 잠깐 갔다가 온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우산을 가지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면 비가 올 거니까 집에 가서 우산을 가져올게요."라고 했답니다.

이것이 참신앙입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 조금 전에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비를 달라고 하면 주실 줄을 확실히 믿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둘째, 겸손의 기도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 놓고"(42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창 24 : 26).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출 33 : 10).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삼상 1 : 12~13).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전 2 : 8).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행 7 : 60).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

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 : 39),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 : 13).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제가 보통때는 그냥 침대에서, 의자에서,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어려울 때는 의자에서 내려오게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에서 겸손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낮은 곳에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서 겸손한 자에게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겸손한 기도를 한 사람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 : 10~14).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성전 깊이 들어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의 이성봉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도 받고, 교훈도 받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흥회를 하실 때 보면, 어떤 때는 걸어다니실 때도 기도하시고, 성경공부, 저녁예배, 새벽예배 등을 다 인도하시고도 밤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잠을 자다가 12시, 어떤 때 2시에 깨어 보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주여, 벌레만도 못한 것, 주여, 굼벵이만도 못한 것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속으로는 우스웠었습니다. '왜, 굼벵이보다 못하다고 하시나?'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굼벵이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이성에 깨끗하고, 물질에 깨끗하고, 영이 깨끗하고, '한국의 무디' 라고 일컬음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었는 줄 압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

본문 43절에 보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하고는 종에게 지중해를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는 이쪽이지만 지중해는 산등성이를 조금 넘어가야 보입니다. 광야 쪽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종을 시켜 바다를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징조가 나타나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중해의 일기예보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는지 한 번 갔다오고 나서 없다고 하자 또 기도하고, 또 징조가 없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일곱 번이나 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을 찾아보면 창세기 18장 22~3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의인이 있을 터인데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 오십 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하셨지만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인 45명, 의인 40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끝으로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하여 조카 롯을 구해 냈습니다.

창세기 32장 24~29절을 보면 야곱이 얍복 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쳤지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며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서 밤낮 24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실, 고기 뱃속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고기는 아주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찾아 행운으로 알고, 점심도, 저녁도, 내일도 안 먹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뭔지 들어가더니만 생후 처음으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어기고 내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다가 요모양이 되었사온대, 한 번만 용서하시면 제가 니느웨로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겠습니다."라고 사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의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으니라"는 말씀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고 능력을 얻어 내려왔습니다.

저도 1948년 7월 강원도 오대산 북쪽 암자에 가서 엿새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한 성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재판관 하나가 나옵니다. 과부 하나가 가서 원수를 갚아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물리쳤지만 그 과부가 자꾸 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생각에 갚아 주지 않으면 자꾸 와서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귀찮아서 그 원수를 갚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히 대하는 법관도 과부가 여러 번 말하니 그 부탁을 들어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밤낮으로 구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을 말

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내외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속아서 돈을 사기당하고 보증 선 것을 물어 줘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제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갔습니다. 어떤 때는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울며불며 전화로 호소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 : 7~1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이미 준비한 것으로,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꼭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답된 기도

본문 44절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

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일곱 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징조입니다. 장마가 들다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면, 이것은 비가 안 온다는 징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고향에서 아버지께서 모 심을 때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날이 심히 후텁지근하고 동남풍이 부니 곧 비가 오겠다." 하시면 그 말씀대로 영락없이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비가 오는 징조를 성경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눅 12 : 54)라고 하셨습니다.

지중해에 구름이 뜨면 비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큰 것을 한꺼번에 모두 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것을 보여 주시다가 그 다음에 차차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여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작다고, 사소하다고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이 작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악이 아무리 작아도 악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작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과 성정(性情)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약 5 : 17~18).

잠을 안 자면 안 되고,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추우면 감기들고, 때

로는 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남미에 가서도 이민자들의 수고의 열매를 보았지만 브라질에서도 또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의 동양선교교회 교육관도 아름다웠지만 브라질의 연합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교회 기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제 신학교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는 다섯 살이나 많습니다.

50분 정도 차를 타고 기도원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리 높은 산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1,7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샀는데 꼭 서울 영락교회 같았습니다. 큰 성전을 짓고, 기도실을 14개 만들고, 4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만들었고, 기도굴을 20개, 아파트를 9개 만들고, 숙소는 200명 들어가는 곳 2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사관 하나, 28개의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30명쯤 공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정자를 9개, 축구장 2군데, 테니스 코트 3개, 어린이 놀이터와 호수를 만들었는데 150만 불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더욱 놀랐던 것은 장로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브라질과 파라과이는 물이 없는 나라로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양회를 할 때만 되면 물이 없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상파울로는 아주 높은 고원 도시입니다. 1,000피트 높이인 남산의 4배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아주 물이 귀한 도시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과 설거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땅이 자연 반석이므로 석유 파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파는데 100미터를 파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골짜기에 150미터를 파도 안

나오고, 세 번 옮겨서 200미터를 파는데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세 군데를 파는데 6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었답니다. 브라질에서 6만 불은 큰 돈입니다. 그러니 불만을 갖는 신자들도 많았고, 헌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진 장로님 네 분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헌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해도 물이 안 나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50미터만 더 파겠습니다."

이제 다시 땅을 파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회 헌금으로 하지 않고 장로님들 사비를 들여 5천만 원씩 내서 2억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246미터를 파니까 펑하고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물을 아무리 퍼 써도, 한 달을 퍼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물은 얼마나 맛있는지 생수입니다. 브라질은 물이 비싸니까 교회 식구들이 맛있다고 물을 담아 가고, 다른 교회 식구들도 퍼 가고, 원주민도 퍼 갔습니다. 또 물 장사하는 사람이 와서 20만 불 줄 테니 팔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쓰는 것이라고 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배웠습니다. 땅을 파 내려가면 물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00미터, 150미터를 파도 물이 안 나오면 더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으면 여러 군데 다니지 마시고 끝까지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극단적인 일이 생겨 부득이한 경우 교회를 옮길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

회에서 믿음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자주 옮기면 뿌리가 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확신과 겸손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쏟아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비는 백성들에게 생명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마치 금, 은, 보석과 같았을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촌 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을 찾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되어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합시다.

또한 현재 나의 모습이 영적으로 기갈되어 있다면 촉촉한 단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을 꿇어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써 기도하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역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위를 견고케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대하 7 : 11~18).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밤

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 전에서 너희의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이 전에 항상 머물러 있어서 기도하면 그 구하는 바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와 내 자녀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 : 28).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올라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일어서면 또 채찍에 맞고, 또 쓰러지고 …… 힘들게 일어나는 예수님을 보고는 주님을 사랑하는 무리들과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 때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눅 21 : 36).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랑이 식어 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관이 늘어나고, 공부하는 사람도 많이 배출되고, 좋은 사업 기관이 많아져도 악의 세력은 이를 이기고 어두움 가운데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 경찰도 증원되고, 여러 가지 사회 안전 질서를 위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왔을 때는 죄가 이 정도로 만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하며 마음의 평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탈바꿈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 9~14절을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서로 다르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올바른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얼핏 보아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책망하셨고, 오히려 가슴을 치며 울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감히 성전 뜰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뒷전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나를 남 앞에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외식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고하여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금식과 구제, 십일조를 철저하게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즉 외형을 중요시하는 것보다 내면을 정직함으로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 성화되었나? 예수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늘 부족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지도 못하고, 온전하게 성결하지도 못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성령 충만도 못 받았고, 성화도 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도 이루지 못하여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깊이 살펴보고 자중해야 합니다. 교만한 것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아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자꾸 하다가는 자기도 끌려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 사는 10대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성 경험을 가졌다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음란죄가 성합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받은 것도 간음과 동성연애가 너무 팽창해서 전멸당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망한 것도 음란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도 망할 징조입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부도덕합니까? 오래 전 신문에 계속 기사화되었던 내용은 12세 된 킹슬리라는 아이가 부모에게 재판을 걸어 "우리 부모가 나를 학대하니 나는 이 부모를 떠나 양부모한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이겨 양부모에게로 갔습니다. 미시시피에서도 12세 된 아이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국의 가정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손자 손녀가 앞으로 범죄하지 않고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니라"(벧전 5：8~9)고 했습니다. 마귀는 잘 믿는 사람, 열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에게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할 때 제일 사격의 목표가 되는 사람이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을 잠재우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烏合之卒)로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귀의 화살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님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나 자신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할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혼탁한 사회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타락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한국 아이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공부도 안 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조석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해 일생 동안 회복하려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자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 : 6).

이 말씀은 즉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은 형통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2~14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

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4분 5열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아름답지 못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좋은 교회로 칭찬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지내는 교회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갈라져 있는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평안함이 없고 분열과 다툼, 미움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유언비어(流言蜚語)는 좋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듣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도 듣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유언비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되기를 늘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맘대로 교회를 뒤흔들 수 없고, 나의 의견과 나의 신앙만이 최고이며 척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창립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교회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가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고 실력 있고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비하고 늘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셋째,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느 1 : 4).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에서 장관으로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이 올라와서 고국의 형편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성이 무너져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잘사는데 조국에 있는 내 동포는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 : 10).

다니엘이 외국 사람으로서 총명이 있어 그 나라에서 임금 다음가는 총리대신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가는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 바사 나라 장관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까 하고 궁

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꾀를 냈느냐 하면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우상 이외에 다른 신에게 비는 사람은 사자굴에 다 집어넣도록 왕의 마음을 사서 조서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항상 하던 대로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이 되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만, 떠나 온 나라는 변함없이 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고, 우리의 친척이 살고, 조상의 뼈가 묻어 있는 나의 조국입니다. 이곳에 와서 한국을 생각하니 더욱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만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헛것입니다. 다만 버려진 고아일 뿐입니다. 매일 부지런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졌으니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렘 29 : 7)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원수의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그 나라가 잘되어야 너희

도 잘된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유익을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민자 가운데 세금을 속여서 보고하는 일이 숱하게 많다고 합니다. 정직함으로 내가 있는 곳을 평안한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 L.A. 폭동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금을 꼬박 내고, 법에 따라 보험을 제대로 든 사람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서 어려움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었는데,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결국 그에 맞는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마약을 밀수하여 돈을 벌고, 떳떳지 못한 장사로 남을 해롭게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해, 경제적 부흥을 위해, 합당한 대통령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의 바른 가치관과 생활, 구조가 합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아진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上達)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영국과 마지막 독립전쟁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강이 있는데 그곳에서 워싱턴 대통령이 겨울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에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하여 미국을 독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이 독립해서 헌법을 만들 때 13주가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잘못했으면 독립이 무너지고 분열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벤자민 프랭클

린이라는 사람이 잠시 정회하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하고 나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도 합니다. 우리 모두 나 자신, 자녀, 교회와 조국, 미국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기드온 300용사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벧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삿 7 : 19~23).

기드온은 주전 11세기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이며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므로 하나님이 이웃 적국들에게 그 백성을 치게 해서 남쪽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방해할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도 곡식을 빼앗아 가고 모든 육축을 약탈해 갔

습니다. 살아 남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적군의 짓밟힘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파고 그 속에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참상을 본 기드온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오랫동안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의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해 있는 그에게 세 번에 걸쳐 확실한 표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미디안 군을 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기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향해 모병(募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병에 응한 사람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미디안 군대에 비해 극히 적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숫자를 줄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을 향해 말하였습니다. 너희들 중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남은 숫자는 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은 숫자라 하시면서 더 줄이도록 지시하

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별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되 개의 핥는 것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로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개의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첩한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머뭇거리며 느리게 행동하였기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시험을 거쳐 합격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적군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습니다. 기록에 보니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삿 7 : 12).

백분의 일, 이백분의 일, 천분의 일밖에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떼와 같이 많은 자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은 아무리 전쟁에 경험이 많은 명장이라 하더라도, 위대한 천재적인 전략가라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게 한 후 미디안 군대를 향해 가서 마침내 대승(大勝)을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물리친 다음 40년 동안 그 나라가 부흥 발전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승전(勝戰)할 수 있었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드온의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즉 승리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쟁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 말에 프랑스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가 전쟁 목적을 모르면 세계에서 가장 약한 군대요, 전쟁 목적을 알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다."

옛날에 프랑스가 오랫동안 월남을 지배하다가 호치명이 독립전쟁을 일으켜 마지막에 프랑스 군대들이 다 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 군대가 전쟁 목적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프랑스가 잘사는 나라인데 동남 아시아에 와서 이 사람들을 식민지 정책을 써서 이들을 착취해 가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즉 싸울 명목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패했습니다.

미국의 월남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싸웠지만 군인들이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걱정하고 학생들은 군대에 안 나가려고 반전 데모하고, 언론기관은 부채질하고, 미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왜 월남에 가서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월남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몇 년 전 걸프전쟁에서도 이라크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손들고

나온 것은, 이 전쟁은 후세인이 제2의 느부갓네살이 되겠다고 영웅 심리로 한 것이기에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쟁은 침략전과 방위전이 있는데 방위전은 마땅히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원수가 내 나라에 쳐들어와서 짓밟고 내 나라 백성을 죽이고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얻어맞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고, 쥐도 나갈 구멍이 없으면 돌아서서 문다고 했으며, 개도 나갈 구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전쟁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남의 나라를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주권을 위해 강토와 생명, 민족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패전하면 땅 주권도 뺏기고, 생명도 잃고, 노예가 되고, 선민의 씨가 마르고, 신앙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니 싸워야겠다는 비장한 일사의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삼상 14 : 6)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원용학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전에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다가 지금은 미국 덴버에 계시는데, 그 분의 말씀 중 두 가지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는 다릅니다."

아주 뜻깊은 말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사람의 숫자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믿

음으로 하니까 되는 경우를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삼손이 나귀턱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한 사람이 천 명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군의 장군 골리앗을 소년 목동 다윗이 쫓아가서 물매로 머리를 맞히고 대장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 드니 블레셋 사람이 혼비백산이 되어 다 도망을 가고 대승해서 나라를 살린 것처럼 전쟁에는 숫자가 많고 무기 보급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정의로운 싸움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느냐, 그리고 이 정의로운 싸움을 위해 한마음으로 각오를 한 싸움이냐에 그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분명 위의 300명 용사처럼 숫자가 적어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굳센 단결력과 절대 순종이 있었습니다

단결은 약소 민족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한 것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 : 12)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뭉치면 산다' 는 교훈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주권과 강토, 생명, 재산, 문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샐 틈없는 단결을 하였습니다. 종이는 한 장이면 다섯 살 된 아이도 그것을 다 찢어버리지만, 수천 장 수만 장이 모여 있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스파르타의 500용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역전(力戰)의 용사요, 백전백승(百戰百勝)의 용사요, 군인정신이 충일(充溢)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에 용맹한 이 500명의 용사가 한번은 적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도저히 포위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원병도 못 오고 식량 보급도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파 비틀거리지만 항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뜻하지 않게 적군이 물밀 듯 들어오는데 싸우다가 50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5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비밀 지하길로 적진에 가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며 말하기를, 배가 고프니 떡 한 조각만 주면 비밀 통로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떡 한 조각에 전우들을 판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들아, 스파르타에 가서 고해다오. 우리는 죽지 않고 여기 살아 있다는 것을."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단결력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신앙 안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리와 사랑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담임하는 동안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무거운 마음으로 울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개성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둘로 나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 의해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생

각해서 나간 쪽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굳게 뭉치면 그들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수도 많았고, 칼과 창과 활, 화살, 말, 병거, 낙타 등 무기가 많았습니다. 또 식량도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 300명 용사는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은 다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 전부였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드온 장군에게 "나이가 많이 들더니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니야?"라고 할 것입니다. 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연합 군대에는 무기, 식량, 보급품이 많고 군사는 메뚜기떼와 모래알같이 많은데, 우리는 기껏 300명이고 또 아무 무기도 없고 나팔, 항아리, 횃불이 전부라니……, 무슨 장난을 합니까? 원수의 입에 기어들어가 죽으러 갑니까?"라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단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드온 장군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 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

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벧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삿 7 : 17~23).

만약 기드온 군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항아리를 미리 깨뜨렸던지 아니면 나팔을 먼저 불었든지 하였다면 작전은 와해되고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0명이 꼭 한 사람같이 절대적으로 단결 순종하였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 전에 소심한 자나 부모와 처자와 고향을 생각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다 돌려보내고 바로 생각하는 사람들만을 데리고 승리한 것처럼, 언제나 십자가 앞에 모여드는 깨달은 소수의 사람이 오늘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속해 있는 성도들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단결과 순종으로 목사님들을 위시하여 온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각 부서에 필요한 봉사자가 있을 때 성도들은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순종이 앞설 때 성도들은 모두가 단결된 힘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신과 봉사, 충성을 해야겠다는 순종의 다짐으로 모든 교회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기드온의 군사들은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팔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는 곧 비무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말씀은 전쟁에서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실패자이고 예수는 승리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기가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했다. 누가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기드온 300명 용사도 무기 없이 나팔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나팔이 아닌 복음의 나팔을 말합니다. 복음의 나팔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미디안과 연합군이 망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정 러시아를 뒤집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프랑스 사람이 루이 왕정을 뒤집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습니까? 중국의 손문이 청조를 뒤집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뿌렸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 흘린 혁명은 결과가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15세기 유럽이 흑암 가운데 빠졌을 때 독일 청년 마틴 루터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 유럽이 다시 광명을 찾았고, 18세기 영국이 도탄에 빠졌을 때 아무도 영국을 구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웨슬리가 나타나 복음의 나팔을 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19세기 미국이 배금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로 흘렀을 때 무디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었으므로 미국이 다시 소생했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1 : 1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 : 18).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 해부력, 폭발력, 중생력, 부흥력, 성결력, 인도력, 현정력(賢政力), 해방력, 예술력, 교육력, 자선력, 융화력, 의료력, 구제력, 선교력, 구원력 등 놀라운 능력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말씀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 나라,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하나님의 능력이 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로 외칠 때 회개가 일어나고 중생과 헌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팔을 부는 소리는 그 때마다 곡 고조가 다릅니다. 기상 나팔, 집합 나팔, 전투 준비 나팔, 전진 나팔, 후퇴 나팔, 돌격 나팔, 장송곡 나팔 등 군인생활을 한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죽었을 때의 나팔곡은 참 슬픕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가 돌격해 갈 때 보면 힘찹니다. 즉 돌격하는 나팔수가 후퇴하는 곡을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바로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도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도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재림파, 인본주의, 자연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등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萬事亨通)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병도 없고, 부자가 되고, 집안일이 형통하고 잘산다는 말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잘 믿으면 이런 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비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전할 때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사회가 정화됩니다. 우리 모두 기드온 300명 용사가 되어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 잠자는 영혼과 죄악에 취한 영혼들을 깨어 흔들고 일어나게 하는 힘을 발휘합시다.

넷째, 항아리를 깼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항아리를 일시에 깨뜨렸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컸겠습니까? 이것은 심리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리 떡을 꿈꾼(삿 7 : 13) 그 심리전을 이용한 것입니다.

항아리는 내 몸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 : 7)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항아리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 : 7)고 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성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행악하며, 정과 욕심이 가득하며, 썩을 것을 추구하며 더러운 정욕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경은 이 육신을 깨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대항하며 육신을 좇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 : 6).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 6 : 8).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전광우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에 오셨다 가신 후에 새벽 예배에 500명을 목표로 해서 나와 기도에 힘쓰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으로 교회가 부흥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 새벽 기도를 통해 마음에 기쁨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새벽 기도 때문이었다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에 와서 새벽에 지나가는데 어느 천막 교회에서 기도소리가 들려 알아보았더니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빌리 그래이엄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분명 한국은 이 새벽 기도 때문에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벽에 천 명, 삼천 명, 오천 명, 만 명까지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2부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망할 수 있는 형편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아마 새벽 예배의 위력일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 때문에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부르짖으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집이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나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왔더니 사업에 지장이 있고, 일에 지장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기분도 좋고, 머리도 명석해지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주저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시라고 말입니다. 처음 며칠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전광우 목사님 말씀처럼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새벽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다면 <뉴욕타임> 지에서 취재하러 나와 사진을 찍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민자들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미국 대통령과 국회위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 미국이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깨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계 22 : 16).

다섯째, 횃불을 들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더니 놀라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횃불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개인을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분별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권능을 줍니다. 성령은 교회를 위로하고, 성령 충만, 부흥하며,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게 합니다.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육관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 새벽 예배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니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뜨겁습니다. 밝고 힘이 있고 불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모두 새사람이 되어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제가 다르

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동구 사회주의 변혁의 물결, 세계 경제권의 재편성, 과학 첨단 산업의 눈부신 발전, 산업 재해에 의한 자연환경의 훼손, 전쟁과 천재지변, 영계의 세속과 정신 문명의 타락, 도덕의 타락과 사회 범죄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미국이 망하고 인류가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왔다가는 인생길,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상을 바로 보고 부름받은 기드온 용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신령한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단결과 순종과 복음의 나팔을 바로 불고 육신을 깨뜨려 밝은 성령의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사회를 밝혀 나갑시다.

사회를 정화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으로 많이 인도하는 기드온의 용사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도상의 4종 인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눅 10 : 25~37).

제가 1989년 8월에 성도님들의 물심양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10명(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의 공산권 선교단과 함께 19일 동안 소련에 무사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동기는, 소련 내에 우리 동포들이 50만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한 번 만나면서 공산권의 선교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고, 또 소련의 중앙아시아의 카작공화국 알마타에 있는 아리랑 강단 단원들이 미국 순회 공연을 열망하는 까닭에 우리의 도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녀와서 느낀 소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를 느꼈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공산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들은 영적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것과 자유의 물결이 공산주의 사회에 불어서 많은 자유가 보장되었으므로 선교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널리 알려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 참된 이웃이 누구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품의 손길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공산국가인 소련에게도 우리의 정성 어린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사랑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서 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리고 도상에 나타나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즉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

늘날 한국이나 미국, 소련 등 어느 나라에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리고 도상에 나타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강도를 만난 사람

첫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칼에 찔리고 옷이 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이렇게 약하고 세력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며 매맞고 피 흘리며 신음하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감옥은 두 종류의 사람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짓을 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미움 받아서 시기와 모략과 질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 때문에 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소크라테스, 안중근, 유관순도 죄인이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련에 강제 노동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고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강제 수용소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이 자유 세계라고는 하지만 미국도 감옥이 만원이 되어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죄를 지은 사람이 많아 감옥 안이 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심수' 라고 하여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불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전 세계를 보아도 강도를 만난 사람이 얼

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련의 실정을 그린 「소리 소리 소리」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한국 사람이 해방 후 소련군에게 잡혀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몰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 강제 노동을 하였는데, 탈출 후 그 모든 전모를 쓴 글입니다. 한 번 읽어 보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신령한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하고 신령한 눈으로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잔인한 강도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

힘 없고 세력 없고 가난한 나그네를 강도들이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만들고 도망갔습니다. 강도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벌어먹고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한당(不汗黨)' 이라고 부릅니다.

1989년 8월 19일자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사들이 줄지어 실려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한국은행 대전지점에서 현금 수송차를 털어 갔다는 이야기, 명동 구청 주택정비 담당 계장이 가짜 입주권 수십 장을 사기쳤다는 기사, 뉴욕 식당 지하실에서 10만 달러와 여행자 수표 5만 달러를 훔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구촌에는 일하기 싫어하고 땀 없이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함께 간 일행 중 어떤 목사님이 호텔방에 시계를 놓고 나갔다가 그만 누군가가 가져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돈을 환전하는데 많이 손해보고 바꾼 적도 있다고 합니다.

공산 국가도 보면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탈린은 집권할 때 4천만을 죽였다고 했는데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 죽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도발해서 500만을 죽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통계되지 않은 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스탈린과 모택동, 히틀러, 김일성은 인류의 강도들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명예와 지위를 연장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인 강도들입니다. 또한 세계에는 정치적인 강도와 물질적인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셋째, 형식적인 종교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31~32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모두 그 당시 종교가였습니다. 그들은 신음하며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은 12지파 가운데 성결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신앙의 사람이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소위 불신앙가 또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며 안식일을 지키며 금식과 십일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나 피 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생명이 꺼져가는 위기를 맞은 사람을 보면서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들은 바로 고질적이고 형식화되어 있는 외식을 중시하는 종교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안

전 제일주의자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사랑보다 성전의 예배에만 더 치중한 형식적인 생명 없는 신앙가요 종교가입니다. 즉 '강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강도들이 다시 내려와서 내게도 이런 강도짓을 할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간디가 근대 7대 고등 죄악을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원칙 없는 정약, 일 없는 건강, 양심 없는 쾌락, 인도 없는 사업, 인격 없는 지식, 인도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가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종교라고 하면 선을 행하고 봉사, 희생을 해야 합니다. 종교가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고,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은 종교가라고 하면서 자기 몸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랑보다 의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시체를 보면 부정을 탔다 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직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픈 사람을 도와 주다가 본 제사직을 일주일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지나간 것도 하나의 이유로 내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리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양이 우물에 빠졌는데 양을 살리기 위해 끄집어내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의식과 전통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차 사고가 나서 남을 다치게 하고,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 도망온다면 그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늦는다 하더라도 혹 예배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큰 호텔(소련 올림픽 때 세계 선수들이 묵었던 호텔)에서 며칠 투숙했는데 아침에 같이 갔던 일행 중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 저는 희한한 꼴을 봤습니다. 목에 십자가를 건 아주 예쁘고 날씬한 창녀들이 저희들을 끌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왜 십자가를 목에 걸었냐고 물었더니, 예수는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목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른 보기에 십자가를 달고 있어 그리스도인 같지만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돈생각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련에 갔을 때 안내원을 따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고르바초프의 사무실과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제정 러시아 때에 왕족들이 입은 옷을 보았는데 전부 금, 은, 보석 등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릇도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마차와 왕관 또한 금으로 덮여 있었고, 여자들의 구두, 말의 모든 장비도 보석들로 찬란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말 장식의 일부만 해도 15억 불짜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정 러시아의 정치가 썩었기 때문에 1917년 레닌이 주동이 되어 공산러시아로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공산러시아가 된 지 72년이 되었는데 어떤 호텔에 가면 화장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당시 소련을 떠나기 전에 소련을 세 번 왕래했던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어떤 호텔은 화장지도

없으니 꼭 화장지를 가지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텔레비전의 채널도 두 군데만 나오고 12시만 되면 끊어집니다. 전깃불도 밤에 꺼져서 깜깜하고, 백화점 같은 곳은 사람은 많으나 상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나라 자체가 개인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앞으로 절대 잘 살 수 없다는 확신을 얻었고, 같이 가신 분은 앞으로 공산주의가 없어질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정러시아 때 종교인이 썩었기 때문에 의자도 금인 것입니다. 성경도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십자가, 지붕 모두 금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들은 굶어 죽는데 귀족 왕족들이 그렇게 사치 방탕하여 썩었으니 그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이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과격한 이야기지만 교회가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에도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력 없는 사람들, 실업자들, 시골에서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잘 먹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 호화 장식을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치에 불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에 쓸 돈으로 구제와 선교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형식적인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

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마 3 : 10)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한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 : 15~17)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각자가 기도한 것은 책임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참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애써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였다면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고 정성과 인내로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넷째, 치료해 주는 사람

위에서 말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과는 달리 측은한 마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닦아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아픈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며 돈이 모자라면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남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행동으로 옮겨 치료해 주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사람을 살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수치심과 자존심을 버리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위해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즉 원수와 민족을 이해하는 초월적 사랑을 실천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천적 사랑을 행하였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사랑하고 시간과 물질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바로 마음과 몸, 시간과 물질의 네 가지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통해야 하고, 몸이 따르고, 시간과 물질이 따라야 합니다.

그때 당시 저와 몇몇 분들이 공산권 지역에 다녀온 것은 관광이 아니라 앞으로 공산권 선교가 가능한지 타진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마타의 젊은 남녀들이 미국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한 번 길을 만들어 보자는 전도의 차원에서 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반가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 저집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고 떠날 때는 울면서 배웅해 주었는데 같은 민족임을 절실히 실감하였습니다.

저희 일행이 그곳을 가기 위해 L. A.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일곱 여덟 시간 기다렸다가 모스크바로 가서 또 남쪽으로 내려가 이란 북쪽 파키스탄 국경에 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국경선까지 갔다가, 모스크바로 다시 와서 체코슬로바키아에 갔다가 독일로 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일곱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L. A.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뉴욕에서 하룻밤 자고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19일 동안의 일정이 무척 피곤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육체적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힘을 낸 여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 한글성경과 영어성경, 소련어성경을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소련에 갈 때 성경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져갔다가 발각이 되면 모두 빼앗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뺏기면 뺏기리라, 감옥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관을 통과하게 될 때가 되어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열 사람의 가방을 하나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보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100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믿음이 적은 탓에 그만…….

성경책 뿐만 아니라 찬송가, 녹음기, 라디오, 종교서적, 성경 요절 볼펜, 파카 볼펜, 넥타이, 남녀 양말, 사탕, 초콜릿, 츄잉껌, 한글사전, 즉석사진 등을 가져가 나누어 주었더니 무척이나 좋아하였습니다. 또한 10불, 20불, 50불, 100불, 500불씩 나누어 주었더니 얼마나 감사해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미국돈 100불이면 의사의 석 달 월급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소련의 한 할머니께서 환갑이 되어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고, 아들과 며느리도 사할린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온 손님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여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중년 부인으로서 한국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환갑을 맞이한 할머니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이 좋은 날에 왜 상심한 얼굴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남편이 오늘 살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부인은 "언니, 그게 무슨 소용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데 같이 즐거워해야지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러시아 여자에 대해 궁금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할머니께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1937년 소련과 일본이 전쟁할 때, 우라즈스토크 동네에 사는 모든 한국 사람이 소련 중부지방으로 강제 이동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추운 겨울에 히틀러가 소련을 쳐들어오는 바람에 서쪽의 많은 사람들을 중부로 피난 보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둠이 깔린 저녁에 할머니가 바깥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애를 둘 데리고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딱해 보이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어디를 가냐고 물어보고 괜찮으면 날도 춥고 어두우니 집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라고 권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여자와 아이 둘을 하룻밤 재워 준 후 아침이 되어 떠나려는 그 여자에게 겨울이 지나거든 그때 가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은 후 집 하나를 만들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허락을 한 할머니 남편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어렸을 때 남편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인에게 총살을 당한 뒤 그 동네에 살 수 없어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데리고 추운 겨울에 정처없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마음씨 착한 소련 할아버지를 만나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이 동생이 죽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소련 할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할머니 남편은 쾌히 승낙을 하여 그 아기가

있는 여자에게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집도 지어 주고 이불도 주며 보살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도 붙고 사랑으로 지내며 살다가 25년을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되어 한집안 식구처럼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이해를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19일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16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더운 곳에서 고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평 한 마디 없이 보람된 여행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마음, 몸, 시간, 물질로 사랑하니 그것은 헛되지 않고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고, 좋은 친구 하나를 사귀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일 3 : 14)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 강도 만나는 사람도 되지 말고, 강도도 되지 말고, 형식적인 신앙가도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모든 일에 참된 도움을 주는 사랑의 빛을 내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후 3 : 6~12).

미국에서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노동절이라 하여 공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또 여름이 지났다는 여름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노동절의 유래는 미국의 피터 맥가이어라는 목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동자 연맹 모임에서 노동자를 위해 기념하는 날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을 노동연맹에서 받아들여 처음으로 기념하게 된 날이 1882년 9월 5일이었고 뉴욕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은 특히 노동자들에게 감사하고 하루 편히 쉬게 하며 그들을 즐겁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일 없이 보낸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고 하였습니다(잠 6 : 6). 왜냐하면 개미는 부지런하고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책에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개미와 베짱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개미처럼 부지런함을 교훈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특징과 각 결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자세가 좀더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 게으른 자의 특징

(1) 잠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잠 6 : 9).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릴 것이니라"(잠 19 : 15).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보다 뒤떨어지고 악마의 올무에 걸리기 쉽습니다. 제가 한국전쟁 때 부산의 동래 온천에서 피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통도사 밑 화천에서 자갈을 많이 모아다가 부산에서 쓰는 한국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보초 한 사람이 마땅히 깨어 충실히 보초를 섰어야 했는데 그만 잠을 잔 바람에 공산당이 내려와 그 사람의 총을 뺏고 그 안에서 자는 동료들을 다 죽였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초 파수꾼이 잠을 자면 결국 나라는 적군의 침입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마땅히 잘 때 자고, 깰 때는 일어나야 하는데,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해서 잘 때도 자고 깰 때도 잡니다.

(2) 부질없이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잠 22 : 13).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잠 26 : 13).

게으른 사람은 방에 앉아서 나가 활동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죽을 것이라고 해서 방에만 있는, 핑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백인도 그렇고 모든 나라 사람이 핑계가 많습니다. 직장이 없다, 불경기라서 구할 수 없다, 있는 사람도 자꾸 떨어진다, 또 직장이 있지만 그 직장은 내게 안 맞는다, 임금이 너무 적다, 건강에 좋지 않은 직업이다 등의 여러 가지 핑계가 많습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온 사람들은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부산 시장 어디에서든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재물을 더 많이 모으고 자녀들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유학시

켜서 큰 인물로 키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게으른 자는 자녀들을 큰 인물로 만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자기를 가장 지혜로운 자로 여깁니다.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잠 26 : 16).

게으른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힘든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하느냐? 머리를 써야지!" 하면서 스스로가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래서 사기나 횡령, 노름, 뚜쟁이, 밀수, 마약 판매, 절도, 강도짓 등을 해서 남의 땀을 훔쳐 먹는 비열한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이러한 강도를 만나 여기저기 칼에 찢기고 피가 나고 옷도 찢기고 다 뺏겼습니다.

강도를 '불한당(不汗黨)' 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풀어 뜻을 보면, 아닐 '불(不)', 땀 '한(汗)', 무리 '당(黨)' 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마땅히 땀을 흘리고 먹으라고 가르치는데, 이런 불한당이 미국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오면 온 이웃이 모여 이자를 안 받고 돈도 꾸어 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한국인들은 몇몇 사람이겠지만 서로 경계하며 경쟁과 비난, 때로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바가지 씌우는 일도 버젓이 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다가 미국에 이민 온 최 선생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글렌데일이란 곳에서 식품가게를 하기 위해 그 가게를 샀는데, 후에 속아서 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한 이 분이 가게를 다시 팔려고 하니 그것이 어디 팔리겠습니까? 아픈 가슴만 안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와서 같은 동족끼리 속이고 비난하고 의리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은 한국인이라 해서 모두 믿어서는 안 된다는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말 같지만 사람을 먼저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그 분을 믿는 것만큼 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게 같은 것을 살 때도 "매상이 얼마이고, 리스가 얼마 남았고, 누가 얼마 주는데, 파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등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꼭 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경험자 또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분명히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알고 있는 한 분도 캐나다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시카고에서 식당을 사는 과정에서 속아 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오래 전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좋은 가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집을 비운 동안 누군가 큰 트럭을 가지고 와서 집에 있었던 값나가는 가구들을 몽땅 가지고 갔습니다.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김영호 집사님이란 분이 교회에서 늦게까지 일을 보고 차가 없어 택시를 타려고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젊은이가 가까이 와서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곧 이를 발견한 황 목사님이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 주머니 속에는 100불짜리 몇 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경관이 한국 사람들을 보고 항상 말합니다. 왜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

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지갑을 잘 터는데 꼭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 지갑에서 반드시 많은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한국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마시고 30~40불이나 50불 정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만약 마약 중독자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20불은 줘야 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나서 칼로 목을 찌릅니다. 저희 교회 김 권사님은 칼로 목을 찔리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경찰들과 함께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왜 한국인을 대상으로 돈을 훔쳐갈까?"였습니다. 한국집을 터는 이유를 물으니 어느 한 경찰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개는 먹을 것이 있는 집만 찾게 마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현금이 있으면 은행에 좀처럼 맡기지 않고 그냥 집에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표(check)로 안 하고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안 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것은 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야 이 나라에 국방, 교육, 후생 사업, 공공 사업에 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미국 안에 있는 백인이나 흑인, 남미 계통, 한국 사람 가운데도 나쁜 짓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4) 게으른 사람은 자기 집 수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게으른즉 서까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전 10 : 18).

게으른 사람은 집이 새도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치는 것도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 고치도록 하는 것도 귀찮아서 자기 집을 수리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이 처음 미국에 온 것은 1903년이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와서 이곳에 있다 보니, 섬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것도 힘들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고, 또 캘리포니아와 뉴욕, 시카고 등으로 옮겨 갔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10번 고속도로(freeway)에 있는 제퍼슨(Jefferson) 거리에 많은 한국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인이 한국인에게는 돈을 줘도 셋방을 안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인에게 집을 빌려주면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서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와서 초기 이민자를 불러 놓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배워야 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이 일본에 망한 것이 배우지 못하고 실력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해외에 나왔으니 적어도 선각자 선구자 개척자로 볼 수 있는데 배워야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백인들은 물어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왔느냐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한국 사람들에게 방을 빌려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프리카에 갔었을 때, 농촌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 외양간보다는 더 작고 돼지 우리보다는 조금 더 큰 곳에서 소와 돼지, 사람, 닭이 다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흙, 돌도 많아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 사는 곳을 잘 짓고, 짐승 자는 곳도 따로 지을 수 있을 텐데, 게을러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 걱정스러웠습

니다.

언젠가 봄에 'pomona' 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내외 집사님이 점심 대접을 원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집은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집 마당에 심은 각양각색의 화초, 나무, 풀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의 부지런함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5) 식사하는 것도 일로 생각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잠 19 : 24, 26 : 15).

밥이 들어 있는 그릇인데도 너무 게을러서 숟가락을 넣고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올리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식사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 있는 대로 하루종일 꼼짝도 안 하고, 누우면 누운 대로 그대로 누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식사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먹는다고 대답합니다.

너무나 게으른 탓에 굶는 것을 일삼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살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게으름으로 오는 결과

(1) 가난해집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잠 6 : 9~11).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잠 20 : 4).

군인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처럼, 게으른 자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가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한국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김복남 씨라는 분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1983년에 가나에 갔을 때 김복남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고기 잡는 배 17척을 사서 생선을 많이 잡아 세계에 팔아 그 돈을 가지고 그 나라에 교육과 후생 사업, 고아원, 양로원, 체육 면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국의 자랑스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17척의 배 안에는 한국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는데,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아프리카인은 한국 사람보다 3분의 1밖에 못 잡는다고 말입니다. 즉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땅을 많이 사서 한국의 농법을 실행해서 쌀과 야채에서 놀라운 수확을 거두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분을 모르면 마치 간첩인 양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땅은 참 좋습니다. 사하라만 사막이지 중부부터 남부는 옥토이고 물이 많은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게으르다는 이유로 나라가 가난에 몰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의 빠른 결과는 곧 가난으로 옵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지 않으면 비천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루는 케냐에 있는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호텔은 한국 회사에서 산 것이었는데, 식당도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한국인이 그 땅에 옥수수, 감자, 배추, 마늘, 가지 등 많은 야채

를 심어 자급자족해서 쓰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2) 부림을 받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 : 24).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볼 수 있는 모습 중의 한 가지는 농사일이나 부업 등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가난하게 살게 되고 남의 하수인 노릇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쓰면 주인이 되어 사람들을 부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남에게 빌어먹는 신세일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남의 밑에서 품팔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게으른 자는 평생 누군가의 명령 가운데 부림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 패가 망신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敗家)하는 자의 형제니라"(잠 18 : 9).

패가망신(敗家亡身)은 집안도 자기 몸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한 처녀가 서울에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바다에 들어가 전복이나 조개를 따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총각이라면 여자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고, 여자를 끔찍이도 위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총각은 반대로 제주도 여자와 결혼해서 여자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살면 참 편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주도 여자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덕을 보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두 남녀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매일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나중에는 패가망신하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남녀 모두 서로에게 미루는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고 서로에게만 돈을 벌어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중공 화장실 같은 곳에 가면 온통 누렇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련은 지금 망해 갑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못하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집니까?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은 일체 인정되지 않고 모두가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노예입니다. 일을 해도 먹고 안 해도 먹으니까, 일을 안 하고 게을러집니다. 그 결과 나라와 개인이 모두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내 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 손수건도 때묻고 더럽지만 내 것이니까 쓰는 것입니다. 내 것은 무엇이든 귀하게 여깁니다. 셋방 사는 사람과 주인이 방 쓰는 것이 다른 것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이 없지 않지만 공산주의는 더 모순이 많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지런한 자의 특징

(1) 근면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 2 : 15).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하라는 것

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인간에게 일하면서 먹고 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 : 17).

즉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요 5 : 17).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거반 목수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중에도 낮에 하루종일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며 부지런한 가운데 주께서 내게 주신 임무를 하루 동안 잘 시행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살후 3 : 10)고 한 말에는, 나도 천막 짓고 일하는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본을 보이기 위함이란 말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면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잠 10 : 5).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잠 6 : 6~8).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길게 뻗어나오는 가운데 온전한 부족도 많이 있고 멸종한 부족도 많다. 그러나 꾸준히 생겨나고 꾸준히 발전하는 부족에는 예외없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고유 문화의 견지, 굳센 단결력, 근면이다."

근면한 사람이 참으로 잘살고 발전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근면성이 뛰어납니다. 일본 사람들도 역시 부지런합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근면하지 못해서인지 가난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많지만 미국까지 와서 노름에 정신이 팔리고,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도 많고, 골프도 적당히 하면 될 것을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골프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지 마십시오. 근면한 정신이나 마음, 행동을 좋은 것에 사용해야지 그렇지 못한 곳에 쓰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3) 자진해서 일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잠 31 : 13).

부지런한 사람은 누가 명령하기에 앞서 스스로 자진해서 일을 합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상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매일 이 말씀을 읽고 새긴다면 남편과 자녀는 물론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 모든 일꾼들에게 일감을 맡기고 저녁까지 자진해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아낌없이 받는 여인입니다.

신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들은 일할 것이 없어 노름하고 그러다 붙잡히고, 댄스하고 그러다가 선을 넘는 부정한 여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일하는 사람 중에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즉 일하라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하라고도 안 했는데 일감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일은 왠지 아까운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십이 된 외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여자를 원하지 않았기에 엘리에셀이라는, 소년 때부터 와서 머슴살이하며 백발이 되도록 충성하던 종을 약대 열 마리와 많은 선물을 들려 고향 땅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중대한 책임을 지고 하란 땅에 도착한 엘리에셀은 우물가에 앉아 기도하였습니다. 물을 길러 오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 처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젊은 주인의 신부감인 줄 알겠다고 말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리따운 처녀가 오기에 물을 달라고 하니 친절하게 물을 내주었습니다. 약대에게도 물 주는 것을 허락받고 그녀는 약대에게도 물을 다 먹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이 처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라 여기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대로 모든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진해서 일감을 찾아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봉사할 것이 없는

지 둘러보고 찾아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할 일을 찾아 몸을 움직여 가며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이런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4) 열심을 품어 일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하면서 밤과 낮으로 일을 하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 붙일 겨를 없이 일을 했습니다(창 31 : 40). 나중에는 놀라운 부자가 되어 성공을 했습니다.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 보고 캐나다와 호주, 남미 같은 곳을 가 보면 한국 교포들이 짧은 시일 내에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아주 잘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고, 놀러도 안 가고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열심을 품어 꾸준히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5) 작은 일에도 충성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예할지어다"(마 25 : 21).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을 잘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자기가 맡은 일에, 그 일이 작든 크든 열심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칭찬했을 때 큰 일을 한

사람보다 극히 해야 할 작은 일이나 정성을 들여 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했을 때(눅 21 : 1~4) 그 정성 어린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10 : 42).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나그네 된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5 : 34~40).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동안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도 집에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전깃불이 켜 있는 곳은 없는가? 수돗물이 한 방울씩 나오는 곳은 없는가?' 하며 살폈고, 또 물 마시던 컵을 몇 번씩 씻어서 또 쓰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헛되이 흘려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저희 교회 김 장로님이란 분이 재정부장으로 계실 때 제직회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누가 저렇게 파서 뒤집어놓은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 1전을 찾으려고 뒤집었습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이 작은 것에 충실하다 보니 이렇게 크고 웅장한 그랜드 캐니언을 발견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돈 1전이 없으면 1전 때문에 운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일에 충성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큰 복이

찾아옵니다.

넷째, 부지런함으로 오는 결과

(1) 살림이 부하게 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 : 4).

이 말씀에서 처음에 나오는 '손'은 '느슨한 손'이요, 그 다음 나오는 '손'은 '활동적이며 긴장된 손'으로 각자 다르게 원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늘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땀을 흘리기에 큰 어려움 없이 부하게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 12 : 27).

게으른 자는 사냥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사냥하여 짐승을 얻었다 해도 귀찮아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계와도 연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부지런한 것은 살림을 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사람을 다스립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 : 24).

아르헨티나에 가면 동양선교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은 멀리 떨어진 곳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큰 농장을 하나 사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백 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밭농사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열일곱 소년 요셉은 보디발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다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후에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애굽 사람을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그 나라 총리 대신까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헌영이라는 김해 산골 소년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해서 고아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을 잘 지키며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 상해의 한 장로님 댁에서 머슴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잘 믿고 주일을 잘 지키고 부지런히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주인인 장로님이 이 청년이 마음에 들어 상해 영국대학 영문과 졸업반의 큰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장로님 큰딸이 머슴이었던 남편을 공부시켜 상해 중산대학 영문과를 졸업시킨 뒤 신학을 해서 일류 목사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은 8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 목사가 5명이나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게 되고 복을 받습니다.

(3) 소망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 6 : 11～12).

아브라함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제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는 재력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돈을 벌어 학교를 세우거나 고향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거나 고아원이나 양

로원, 아파트 등을 세우고, 장학금 수여, 선교사 파송, 성전 건축에 사용합니다. 재력이 있어야 이런 일도 할 수 있겠지요. 부지런해지면 소망이 풍부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돈을 열심히 벌어 값있게 쓰시면 됩니다. 돈 버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목수로서 노동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축 생활을 하였으며, 모세도 한때는 머슴살이한 노동자입니다. 엘리사는 소에 쟁기를 메어 밭 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고, 바울은 전도하면서도 장막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북쪽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 남쪽 이탈리아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탈리아는 공업도시로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남쪽은 따뜻하고 낭만이 있어서 춤추고 노래를 즐겨 일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우리가 벌어서 남쪽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고 말을 합니다.

(4)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하면 심리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놀고 먹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일하면 도덕적으로 탈선도 안 합니다. 죽으려야 죽을 시간도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 한가할 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접근할 때도 저녁에 지붕 위에서 한가로이 걷고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던 것입니

다(삼하 11 : 2~5).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한 몸을 주셨을 때, 또는 젊었을 때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은 오히려 몸의 활력과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아주 무리한 일 외에는 말입니다. 따라서 병들기 전에, 나의 몸이 쓸모가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하면서 잃었던 건강도 되찾기 바랍니다.

(5)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일하면 영적으로 복 받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게으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로,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고(마 4 : 18~22), 세관에 앉아 일하고 있던 레위를 찾아가 부르셨습니다(막 2 : 14).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할 때 일하십시오. 늦기 전에 일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기 전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찾아서 일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일할 것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 할 일을 찾지 못했다면 길거리라도 다니면서 어디에 못이 있나 보고 주우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차에게 해가 안 될 것이고, 아이들도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교회에서나 일감을 찾아 열심히 일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 : 58).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 : 10).

한 번 주신 이 생명 두 번 다시 살지 못하는 이 생명, 잠깐 왔다 가는 귀한 이 시간 일할 때 일하고, 며칠 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 : 13~15).

디모데후서는 주후 66년경 연로한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옥중에서 그의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바울의 서신 중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편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왜, 마지막 유언서와 마찬가지인 이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간곡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서 보냈을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위 말씀에서 19가지 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19가지 죄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미리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죄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19가지 죄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남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기에 해당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인할 때만이 나와 관계성을 맺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말씀에서 '돌아서라' 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타협하지 말라' 는 의미입니다. 즉 위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와 더불어 의논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성도는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눕는 자리를 가려야 하겠습니다. 초인이 아닌 이상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위에 나열한 죄가 보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 다시 글을 쓴다면 분명히 더 보탰을 것입니다. 즉 술, 담배, 마약, 성병, 혼전 임신, 유기, 살인, 강도, 납치, 방화 등을 첨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이 점점 더 만연해 가는 사실을 볼 때 두려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날 여학생 4분의 1이 수업 시간에 빠졌는데 다른 병으로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임신을 하여 체육 시간에 나오지 못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마리화나나 담배는 고등학생쯤 되면 안 피우는 아이가 도리어 더 이상할 정도인 것이 미국의 환경입니다.

200만 이상의 마약중독자와, 500만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와, 새로운 무서운 병인 에이즈 환자가 날로 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영역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들은 점점 길 잃은 양, 굴레 벗은 망아지와 같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섹스와 범죄 내용이 가득 찬 TV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종과 찰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퇴폐 문화를 찬양하는 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라고 하는 기성인들도 쇼핑을 많이 하면 인생에 성공했다는 유물론적인 사고 방식이 점점 침투해 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오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기울어가고 있는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불신 사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 내에서도 이혼율이 날마다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교회도 좋은 면도 많이 보였고 상당히 신앙 생활도 잘하고 성경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이혼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이혼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거중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미국 사회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 이러한 근거에서, 이러한 이유로 말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성경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3 : 14~17).

이런 죄악 세상이 왔지만 그러나 너는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산 말씀이므로 더러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성' 은 그리스어의 '하기오스' 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별되었다' 는 뜻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책과 구별된 책이라고 하고, '경' 은 그리스어에 '캐논' 이라는 말인데 '자, 막대기' 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말, 행동, 마음, 가치관, 생활, 사업체를 측정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맞으면 참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탈선한 죄악된 생활이니 성경으로 측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별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룩한 말씀이니,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여기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을 배우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16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치와 교훈이 풍성한 책입니다. 이 세상의 책은 한 시대 반짝하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책을 애독하고 사랑하지만, 시간이 흘러 가고 보면 그 책이 구서(舊書)가 되고 종이 조각의 휴지로 버려지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대해서는 소련에서는 벌써 그 책에 먼지가 쌓였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점점 문을 열면서 자본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세상의 책은 시간이 갈수록 인기가 하락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성경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생활의 윤택함을 주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은 동양인에게만 이해가 되고 사랑받는 책이지만, 성경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인도인, 남미인, 미국인 등 모든 인종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느냐? 사도에게서 배우지 않았느냐? 직접 예수를 만난 사도에게서 성경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국제 결혼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먹

고 자라난 아이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은 잊어버려도 율법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어려서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교훈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아무리 사도에게서 배웠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해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 가지고 만족되지 않기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확실히 배우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정말 배움의 바다는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아침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교회 식당에서 권사님과 집사님 몇 분이 해주시는 아침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반찬 중 조그만 비둘기알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은 김건태 목사님이 "이것 하나 잡수세요." 해서 하나를 먹고 다른 분들에게 드렸는데, "목사님,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알을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를 많이 못 낳습니다. 둘밖에 못 낳습니다."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둘 밖에 알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말하기를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기쁘지 않으랴."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죄악이 관영해 가고 사회가 악해 가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우리는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배우라' 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에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새사람이 됩니다.

거듭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전 4 : 5)고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벧전 1 : 21)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 때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콩나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예배 때마다 경건하게 드리고, 사경회 때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점점 마음속의 지저분한 것이 다 없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14절을 읽다가, 성 프랜시스는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통하여,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요 목회자인 스펄전은 이사야 40장 31절을 통하여, 선 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다가 새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새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새로운 인격을 갖추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애독하고, 경청하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복종하여 새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믿음이 자라게 기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기도만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 : 17)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많은 제직들과 평신도들이 벧엘 성경공부, 전도 폭발 훈련, 제자 훈련, 교사 훈련, 성경 공부 훈련 등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을 보니 오늘에 와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헌신 봉사를 함으로써 완전히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믿음이 자꾸 흔들려 확고한 믿음이 생기길 원하시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자진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날 줄로 생각됩니다.

셋째,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즉, 산 사람에겐 다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시험이 성도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라 말하기도 하고, 주일을 몇 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사업을 어렵게 하셨다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의인 요셉도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시며 죄가 없는 분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세 가지나 받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일 금식했을 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

들어 먹으라는 경제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 내리면 천사들이 수종을 들 것이라는 종교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마귀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정치적인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때 승리하신 비결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신 8 : 3)라는 말씀으로, 종교적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신 6 : 16)는 말씀으로, 정치적인 시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신 6 : 13)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 : 105)라고 했습니다. 캄캄해서 지척을 분별할 수 없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정통이고 비정통인지, 어떤 것이 참신앙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 마귀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등불이 되어 밝혀 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 119 : 9)라고 했습니다. 제가 1959년 텍사스에서 5, 6개월 정도 공부할 때 안 믿는 청년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매독까지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젊었을 때에 유혹이 있었지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1965년에 미국에 유학 와서 2년간 혼자 살 때 유혹이 있었지만 말씀을 생각할 때 요셉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없었음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유럽을 다닐 때 영국, 런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을

가면 밤에 노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날씬한 여자들이 나를 붙들고 20불만 내라고 잡아 끄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던 허경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눈이 쑥 들어가고 코도 커서 한국에서도 미국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 분이 공군 군목으로 계실 때 여의도 본부 비행장을 가끔 들어가려고 길거리를 지나가면 어떤 여자들이 "Hello" 하면서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래?" 하고 말을 강하게 하면 "아! 한국 사람이다." 하고 도망간답니다. 허 목사님이 말씀의 사람이었기에 악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 : 11)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미국 사회도 도덕적으로 점점 부패해 가고 영적으로 속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말씀이 충만하다면 이 모든 죄악된 세상에서라도 우뚝 서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물어 볼 때 모른다고 하면 부모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들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성경 구절을 모른다고 하면 훌륭한 부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돗물은 저수지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정신 이상의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경을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생활에 모범이 될 때 그 아이들은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아주 좋게 교육관을 세워 놓았습니다. 교실이 완전하고, 좋은 교재를 가지고 있고, 목사님들과 훌륭한 장로님들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을 배우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결심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성경 공부 방에 가셔서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사업에까지 놀라운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셋째, 확신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되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신앙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전 3 : 12~13)고 했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에 타지 않지만, 나무, 풀, 짚으로 지으면 불에 다 타 버립니다. 그러니 금, 은, 보석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나무, 짚, 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은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데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실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배고프고,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

을 때 안 믿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를 원망했으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죽는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나 배고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민교회의 신자는 변덕이 많습니다. 새떼같이 몰려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 와서는 잘 믿다가 자리 잡으면 안 믿고, 가난할 때는 믿다가 부유할 땐 안 믿고, 처녀 때는 잘 믿다가 결혼하고 애 낳으면 안 믿고, 대학 때는 잘 믿다가 졸업하면 안 믿고, 감투 쓰면 안 믿고…… 너무나도 변하기 쉬운 해바라기 신앙이 허다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눅 17 : 27~29).

노아 때에 너무나도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창 6 : 6).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냈지만 구별된 생활을 했던 참된 신앙을 소유한 노아의 여덟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제2의 창조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간음과 동성 연애로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들지 않고 의롭게 신앙을 지켰던 롯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장차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물로 또는 불로 심판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다 녹아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심판의 불이, 지옥의 불이 터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절개를 굳게 지킨 성도들은 하나

님이 이 불에서 굳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으로서, 왕에게 많은 대접을 받고,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통달하여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을 때 나약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 나라 공부를 많이 하면 세뇌가 되어 정신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나약해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에게 장수의 복도 주셔서 80세의 노부로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타입이 각각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했고, 야곱은 봉사의 믿음, 요셉은 정결한 믿음, 이삭은 순종의 믿음, 예레미야는 눈물의 믿음, 엘리야는 열성적 믿음, 아모스는 의의 믿음, 호세아는 사랑의 믿음, 베드로는 소망의 믿음, 요한은 사랑의 믿음, 야고보는 의의 믿음, 바울은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듯이 그 믿음의 스타일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점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궁극적 믿음이 같다는 것입니다.

연꽃의 뿌리는 시궁창에 박고 있지만 꽃만은 대지에 아름다운 향기를 자아냅니다. 진정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의 발은 비

록 시궁창과 같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깨끗한 연꽃과 같이 죄악에 때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밭이나 논에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는 까마귀나 참새가 앉아서 노래도 하고 똥도 싸지만, 산 사람에게는 까마귀나 참새가 지나갈지언정 앉아서 똥 싸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목사인 나에게도 이상하게 좋지 못한 생각이 슬쩍슬쩍 까마귀 그림자처럼 안 지나갈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한 생명이 있을 때 까마귀가 앉지 못하고 새끼를 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오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한 번 흔들면 물방울이 다 떨어지고 다시 기름이 묻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목욕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아무리 술집 뒷방에 들어가서 무슨 동창회니 파티에 참석했더라도 심령에는 때가 묻지 않음을 믿습니다.

한국에 장마가 나서 강화도서부터 한강물이 불고 넘쳐흘러 내려갈 때 나무토막이나 집더미는 떠내려가지만 조그만 송사리와 피라미는 작지만 생명이 있어 물을 거슬러 부천 기슭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악이 범람해서 멸망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갈보리 천성을 향해 힘차게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 충만하고, 육과 세상과 이단과 마귀를 이기는 확고한 신앙의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노동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살후 3 : 6~15).

매년 9월 첫 월요일을 노동절로 지키고 있는데, 잠깐 이 노동절에 대한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년 뉴욕에서 '노동의 기사' 라는 노동 단체가 시가 행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1884년 그 기사들 중 한 사람이었던 조지 로히드라는 사람이 그 행진했던 날을 노동의 날로 만들자고 건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 노동성의 기록에 의하면 오레곤 주가 처음으로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1887년 2월 21일에 발표된 이 법은 노동절을 6월 첫째 주 토요일로 지킬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후 1893년에 노동절을 9월 첫째 월요일로 변경하고, 1894년 미국 국회에서 매년 9월 첫 월요일을 미 연방정부 국가 공휴일로 정하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노동절을 정하고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의 고귀성을 재인식시키고, 둘째, 노동자에 대해서 격려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과, 셋째, 노동자들의 휴식을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연휴인 이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 또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아마도 매년 주일이 연결된 이 노동절 연휴에는 교회의 빈 자리가 어느 교회든 많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매일 한가로이 지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게을러 무위도식(無爲徒食)을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노동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단지 직업을 생계 유지와 자아 성취의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와 노동을 연관시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6~19절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는데, 이를 '대표적 타락', '종자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아담이 타락한 그 원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영감으로 쓴 말씀입니다. 즉,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하라는 것은, 노동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시편 104편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오늘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치러야 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노동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 노동은 신성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일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 노동하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에 대해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이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으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노동은 죄 값만이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 분이 여인의 배에서 나오고, 젖을 먹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우시고, 죽으신 것을 보면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듯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후 열두 광주리를 남기듯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면 완전한 신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인간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아버지 요셉의 일을 하셨습니다. 즉 목수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셨고, 그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르침과 말씀 전파, 병 고침, 귀신 쫓음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구속 사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한 젊은 부부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해가 지도록 일하고 있을 때, 먼 교회에서 들려오는 예배 종소리를 듣고 일손을 멈추고 농기구를 앞에 다 모아 놓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담은 세계적인 명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노동하는 사실과 신앙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세 가지 신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밭에서 기도하는 종교 신성입니다. 또한 따로 떨어지지 않고 둘이 같이 하루종일 일하고, 둘이 마음을 같이해서 같이 기도하는 부부 신성을 보여 줍니다. 또 두 젊은 부부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노동 신성입니다.

노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입니다. 미국에서의 노동은 육체 노동이든 정신 노동이든 모두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6년 반 동안 인쇄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남녀보다 인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봉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네랄 모터스나 포드 회사 등 큰 회사에서 일하는 미국의 노동자들도 그 회사의 주를 가지고 회사에 이윤이 나면 이윤을 나눠 갖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는 좋은 차를 타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일하고 나서 집에 올 때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퇴근을 합니다. 미국은 이처럼 정신 노동이나 육체 노동이나 똑같은 가치를 두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은 은행, 관청, 회사원, 사무원 등은 많이 배우고 깨끗한 직업으로 생각하며 봉급도 더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공장에서 땀 흘리며 기름을 묻혀 가며 허리가 끊어져라, 발이 부르터라 일하는 사람은 천하게 보고, 못 배웠다고 임금도 적게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노동은 천하게 보고, 정신 노동은 귀하게 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모두 노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도 노동을 했고, 엘리사도 밭에서 쟁기를 갈며 노동을 했고, 다윗도 양치며 노동했고, 아모스도 뽕나무 밭에서, 바울 사도는 천막을 지으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일반 역사를 살펴보아도 위대한 인물들도 노동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편 배달을 하였고, 스티븐슨은 기차 화부로서, 에디슨은 신문팔이 노동을 했고, 간디도 자기 손으로 옷을 짜서 입었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

령도 되지만, 참으로 신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은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간이 노동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노동자는 적당히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지만 부자는 일도 안 하고 배부르게 먹으니까 밤새 잠도 못 잔다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제임스는 "노동에서 건강을 얻고, 건강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항상 설교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도 노동입니다. 설교하면 내게 기쁨이 있고, 밥을 먹어도 떳떳합니다. 설교도 안 하고 뒤에 앉아서 매일 듣기만 한다면 육체적으로 지장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장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조사해 보니까 예외 없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아서도 일이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공기 좋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신의 유익을 줍니다. 일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밥맛도 있고, 소화가 잘 되고, 단잠을 이루고, 마음에 안정을 갖습니다. 지금 일감을 가진 사람과 실업한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다릅니다. 일

감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직업을 잃은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정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

프랑스의 시인 볼테르는 노동은 인간에게 세 가지의 큰 유익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즉 노동을 하면 지루한 것을 잊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빈궁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보브나르드는 "노동에서 오는 열매는 모든 즐거움 중에 가장 단 열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윌리엄 페너는 "노동을 사랑하라. 음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약을 얻기 위해 노동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은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덕적 생활에도 유익합니다. 미국의 저술가 보비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개 정직하다. 근면이 그들을 유혹에서 끌어올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평안한 것이 마귀공장'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들판에서 양과 더불어 일하고 어떤 때는 양과 더불어 밤을 새고 할 때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혁명을 하고 군인 생활을 할 때에도 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좀 한가할 때에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자유당 시절 때 정비석 씨가 쓴 「자유부인」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탈선 행위를 하는 것을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가서 잘 벌고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한국에선 할 일이 없으므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서 노름하고, 술 먹고, 극장 가고, 댄스하고, 하나씩 둘씩 여관에 가서 자는 일이 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한 것이 마귀공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낮에 일하든지, 밤에 일하면 피곤해서 극장에 어떻게 가며, 댄스홀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미국의 범죄자들을 조사해 보면 거의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이 담배는 피워야겠고, 마약도 피워야겠고 해서 도둑질, 강도질 등의 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 생활, 도덕 생활에도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넷째,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물론, 17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차별이 심해진 데서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보지만 업주는 종업원의 임금을 착취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지주는 소작인을 점점 더 못살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어그러지니까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유물사관에 의지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낸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빈부차가 심해서 잘못된 제도와 사회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한 것이 사회과학과 경제적인 것만 다루어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근본성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먼저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정신, 인격 등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에 결국은 공산주의가 개인 자본주의가 되고 국가 자본주의가 되어 망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충분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하였는데, 즉 일한 자에게 삯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의 한국 노동자들도 그 날 나가서 벌어 돌아올 때 양식을 사가지고 와야 그 식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유대인들도 가난한 자가 하루 일했는데 품삯을 주지 않고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제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품삯을 제때 응당히 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큰 공장을 경영하십니까? 봉제공장을 경영하십니까? 페인트칠하는 청구업자의 주인이십니까? 청소하는 사람의 대리점을 가졌습니까? 신자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임금을 정당하게 주고 제때 주고, 오히려 더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주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덜 주고, 심지어는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불어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왜 지난번 폭동이 났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한국 사람이

돈 벌어 지역 사회를 위해 쓰고 인심을 얻었다면 그렇게까지 손해를 안 보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의 생활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우와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시간이 넘도록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그 값을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노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신자들에게 편지를 쓸 때 교회 내의 평신도 중에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자들인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을 인쇄할 때 공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찍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되어 삯을 받고, 부지런히 성경책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혹은 신학교를 지을 때 불신자들이 직업상 그 일에 참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옷을 만들 때, 농사 지을 때, 자동차와 기차, 비행기를 만들 때도 안 믿는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땅을 사서 집 한 채를 헐어서 새로 오는 신자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멕시코 사람이 와서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도운 동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자의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주인이나 감독의 눈만 보지 말고, 또한 시간과 삯을 생각지 말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땅 위에서, 장차 하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6년 반 인쇄소에서 일할 때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계를 닦고, 정리하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그만둘 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가 대강국 독일의 침략으로 옥토를 뺏기고 나라가 망했을 때 습지와 사망만 있을 때, 유명한 그 나라의 지도자 그룬트비라는 목사가 온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그리고 자신이 먼저 괭이와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세계 제일가는 농업 국가를 전제하여 그 농산물과 가축을 그대로 팔지 않고 가공해서 국내, 국외로 수출하였습니다. 그것으로 GNP를 올려서 세계 농업 낙토국가를 건설하였고, 지금은 공업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괭이, 호미를 가지고 땅을 파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의 부와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 한국은 1966년까지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보릿고개

가 되면 모두가 먹는 것이 모자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라는 분이 나와서, 물론 몇 가지 잘못된 것도 있다고 하지만, 농업국을 바꾸어 근대화 작업을 하고 공업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옛날에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다 가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도 조용하고, 낮에도 조용하고, 저녁에도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원, 울산, 포항, 창원, 전라도 목포에도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 기계가 3교대, 24시간 가동되니까 지금은 GNP가 올라가서 자동차가 꼬리를 물 정도로 많고 쌀이 남아돌아 가난한 나라를 도와 줍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을 보니까 고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소포크리토스는 "노동이 없이는 아무것도 번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미국의 코라이어 목사는 "가장 좋고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열 손가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열 손가락만 건재하면 이것 가지고 움직여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네기는 "일하라, 부지런하라, 자립하라."고 하였고, 그리스의 격언 가운데 "노동은 수치가 아니고 게으름이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옛날 노래 중에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는 별로 좋지 않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늙어서는 편안히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6절을 묵상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모두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일감이 있을 때 땀 흘려 열심히 일합시다. 일하면 노후에 안식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5부

경주자의 인생

이민의 선구자 야곱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창 46 : 1~7).

야곱은 한 목자의 집에서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고, 한때는 일찍이 자기 부모와 고향을 떠나 남의 집 머슴으로 7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 이라는 뜻은 '간사하다', '꼬부라졌다', '거짓말한다', '빼앗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스라엘' 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황태자'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오늘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야곱으로부터 붙여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관이 하나 있고 야곱의 관이 있는데 비중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관이 중요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에 식구들을 데리고 감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큰 복을 받아 장년과 부녀자를 합하여 인구가 200만 이상이 되고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해방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세우고 자손 가운데 다윗 왕과 솔로몬이 나고 또 자손 가운데 인류 구주가 되는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의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복 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몇 가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야곱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투쟁적이고, 쟁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갖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이었더라”(창 25 : 25~26).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해산할 때 에서가 나오려고 하는데 야곱이 먼저 나오겠다고 하여 에서의 발꿈치를 태중에서 잡았다는 것은 자기가 형의 위치인 장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창 27 : 27~29).

위의 말씀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앞을 잘 못 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삭이 출출했거나 별미가 먹고 싶어서였는지 에서에게 사냥을 하며 맛있게 요리를 해 오면 축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 열심히 사냥을 하는 동안에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 사람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고,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사랑한 것을 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늘 어머니 치마폭에 싸여 있었고, 늘 부엌에 가서 어머니를 도

왔습니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오면 축복해 준다고 했는데, 그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리브가가 일을 꾸민 것입니다.

야곱이 형 대신 들어가 축복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고 하니까, 형처럼 손과 몸에 털이 많도록 양털을 씌우고 요리를 해서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 왔냐고 물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목소리는 야곱이지만 만져 보니 전부 털이어서 에서라는 생각을 하고 음식을 먹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도 형도 속이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칸트의 말, "인생은 목적이지 수단과 방법이 아니다."라는 말이 참 맞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아주 적극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인격적이었지만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지고 가니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축복을 받아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에서는 내막을 알고 난 후 분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날에도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는데 이번에는 축복까지 빼앗겼으니 동생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이나 경관, 형사, 검사, 판사, 사형법도 없었습니다.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빨리 하란 외삼촌에게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형이 화가 풀리면 오라고 하면서 간단히 먹을 것을 싸서 내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 황막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곳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금수(禽獸)

가 있어 생명이 위험한 상태이나 적극적인 자세로 부모와 친척 집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이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민을 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삼촌의 집 하란에 도착하여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은 여자였고 인물도 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은 아름다웠고 영리하고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가 되어 맘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근친 결혼이 가능하였습니다.

멕시코 티화나에 가면 오래 전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 가깝게 있으니까 결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여 라반에게 허락받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은 7년 동안 자기에게 봉사하면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창 29 : 27~28).

옛날에는 이처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수고가 따르게 마련인가 봅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돈이 많아야 장가를 갈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장가를 못 갑니다.

유대 나라 풍습 중 결혼식은 밤에 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도 없었을 것이고, 그때는 양에서 짠 기름을 솜에 묻혀 가물가물한 불빛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곱이 결혼식을 하고 하룻밤을 자고 날이 밝아 신부의 얼굴을 보니, 신부는 그렇게도 원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너무

나 기분이 상한 야곱은 새벽에 라반에게 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이때 라반은 아주 여유 있게 말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라헬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7년을 더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다시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랑입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민자의 삶에서 하나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혼자 이민 온 남자들이 신분을 보장받으려고 한국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형식적인 계약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사랑하는 당신이여, 이 길밖에 없어서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몇 년만 참으시오." 해서 형식적인 이혼 수속을 밟아 놓고는 거기에 푹 빠져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42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의 튼튼한 양을 다 빼앗고 외삼촌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밸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을 했으니 보수를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 양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지능적인 사람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빴지만 적극성이 있고 머리를 쓸 줄 아는,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양들이 있는데 점이 있는 양은 앞으로 자기가 갖고, 점이 없는 양은 외삼촌이 가지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개천에 달고 튼튼한 양을 골라 거기서 물을 먹이고 교미해서 새끼를 낳게 했습니다.

심리 작용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무늬가 있고 색깔이 있는 나뭇가지 껍질을 벗긴 그것을 본 양은 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약한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삽시간에 얼룩하고 점이 있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보다 실패를 각오하고 모험을 하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성공합니다.

미국의 초대 이민자들인 청교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혹한 추위와 맹수, 인디언, 질병, 기근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들은 싸울 때 아마도 승리하고자 하는 의욕과 새 나라 건설에 대한 희망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용기, 머지않아 성공한다는 믿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기쁨으로 추수한다는 의욕과 희망, 용기와 확신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줄 하나가 끊어지더니 또 하나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두 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또 한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비명을 지르니까, 그 사람이 "제가 줄 하나를 가지고 계속

타 보렵니다." 하면서 연주가 끝날 때까지 하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모든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었다 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친구가 모략하고, 신분 보장을 아직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해보는 것이 야곱의 정신이며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 : 14)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라가 89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뒤에서 웃으면서 "경수도 마르고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는가?"라고 하였을 때 천사가 이것을 알고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막 10 : 27)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창 28 : 16~19).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 하룻길을 간 후 날이 어두워 빈 들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입으리라"(창 28 : 13~14).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 : 20~22).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는 길을 지켜 주시고, 양식과 옷을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십일조를 바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또, 야곱은 하란에 가서 처가살이 20년 동안 세 가지 면에서 성공했습니다. 아내를 얻은 성공, 자식의 성공, 물질의 성공을 얻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모든 것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행복해 하고 노래도 부르며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드디어 얍복 강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형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악의 위협, 보응의 공포, 형이 죽일 것 같은 양심의

번민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처자와 노비,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강에 남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끈질기게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넙적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포기하고 넘어질 텐데, 축복을 받겠다고 안 놓는 야곱은 대단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천사와 싸워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고 용기를 내어 형에게 건너가 만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자세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저 형이 끌어안고 비비며 입을 맞추고 그 동안 보고 싶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다시 처자와 함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기도는 헌신적, 단독적,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집에 도둑은 안 맞을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혼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복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놓지 못하고, 모든 죄를 다 아시는데 뭘 꼬치꼬치 말할까 싶어 도매급으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축복받아야 일어나겠다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에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33 : 20)는 말씀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35 : 7)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분은 죄가 없고 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 세상에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중대한 문제여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은 불가분의 필수조건입니다. 천국은 무릎으로 기어가는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유타주에 가면 몰몬교 본산지인 'Saltlake City' 라는 곳이 있습니다. 몰몬교의 창시자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동부에서 기도하다 계시를 받아 성경말고 다른 책, 즉 몰몬경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일부다처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성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핍박을 받으니 새로운 근거지에서 개척을 위해 많은 무리와 함께 마차를 타고 대륙을 건너왔습니다. 올 때 무수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인디언의 공격, 배고픔, 질병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쳤는데 Saltlake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 망망한 평야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옥토에 물까지 있으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언약의 땅, 축복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짐을 풀고 호수로 뛰어가 물을 먹어 보니 그것은 소금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말을 했고, 가자니 더 이상 힘도 없고 해서 거기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의외로 씨를 심은 후에 비가 많이 오고 기후가 좋아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벼가 거의 다 익어 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나더니 메뚜기떼가 날아와서 곡식에 붙어 다 먹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거리에서, 교회에서, 밭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니 어디서 갈매기떼가 하얗게 와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어 추수를 잘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 박물관에 가면 갈매기를 올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몰몬교 같은 이단들도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를 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민 생활 하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헤어날 길이 없을 때, 아는 사람도 친척도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아니 자식도 부부지간에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 남아 있는 길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셋째, 야곱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 28 : 15)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또 하란을 향해 떠날 때,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하나님께

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창 31 : 3),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창 46 : 4).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삶의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식, 수단,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 : 1).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 : 24～27).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돈도 적게 들고 고생도 덜 하고 빨리 지을 수 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힘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기초가 튼튼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사가 연세대학교에 가서 학생과 교수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미는 집을 지을 때 땅에 일직선으로 기둥을 하나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미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끊어지면 그 거미집은 다 끊어지고 맙니다. 미국이 건국 300년이 되어 지식, 문화, 과학, 경제, 정치 면에서 이만큼 발전했는데 왜 청교도의 신앙이 필요하냐고 말하면서 신앙의 줄, 하나님과 나와의 줄을 끊어 버려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줄을 끊으면 그날로 미국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 직장, 개인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신앙의 끈을 끊어 버리면 망합니다.

과거에 아티산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니 하나님이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절구통을 겹겹이 쌓았답니다. 거의 닿을락 말락하는데 절구통이 모자라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 어떤 사람이 밑에 두세 개를 뽑아 올리겠다고 해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쌓은 것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이 신앙도 없이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놀러 다니거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나쁜 짓 하면 무너집니다. 백 번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격에, 지식에, 자식 교육과 가정에, 사업에 기초로 두고 앞으로 쌓아 올리고 발전하면 여러분의 성공이 늦어질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의 선구자인 야곱이 가졌던 세 가지의 자

세, 즉 적극적인 자세, 어디를 가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야곱이 대성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속 어디서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땀과 피눈물을 흘린다 하더라도 야곱과 같은 성공의 이민자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밤중의 찬송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좇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

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행 16 : 16~34).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 귀신들린 점치는 계집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계집종이 바울과 실라를 뒤따라오면서 크게 다음과 같이 거듭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행 16 : 17).

이때 바울과 실라는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의 영혼과 육체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곧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제정신을 찾게 하여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때 이 여자를 통해 이윤을 보던 주인들은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영감이 떨어져서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원에게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이들은 유대 사람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관들은 피고의 말을 한 마디도 듣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있어야 재판을 하는 법도 어기고, 당장 그 하졸들에게 맡겨 때리고 깊은 옥중에 가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옥중에 갇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하며 심한 고통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한밤중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악이라는 것은 조금도 행치 않고 선을 행하셨건만 마침내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성문 바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야고보가 잡혀서 목이 잘려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신교의 신앙 자유를 공포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의와 진리는 항상 적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디에서나 정의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정의와 진리에게 분명히 돌아갑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 발전의 거름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흥왕하는 것은 수많은 시대를 거쳐 순교자의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실라와 같이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힌 것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서가 아닙니다. 또 나쁜 7계를 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무고히 죽인 것도 아닙니다. 또,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계획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귀신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돈 벌어 향락하던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

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이나 영혼이나 사람 그 자체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배금주의, 유물론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무고히 고발하여, 무지하고 우매한 관리들과 하졸들을 시켜 옷을 벗기고 무수히 때려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주석자들은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던지 등에 밭고랑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원망도 하고, 한숨도 짓고, 눈물도 흘리고, 그들을 저주하고, 육체적으로 엄습해 들어오는 쑤시고 저리는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신음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마 저들의 기도 내용은 "이런 심한 매질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무지한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오니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더 많은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든지 드려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 세 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은 기도할 때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기도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사장이 회개하고, 그 가정이 구원 얻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적은 빌립보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53년 한국동란이 끝날 때였습니다. 여름철에 전라도 이리에서 좀더 들어가면 김마라는 촌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장로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계시던 이대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십니다. 제가 그곳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무를 보겠다고 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냐고 하면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동으로 몰려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의인 세례 요한이 옥에 들어갔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옥중생활을 했는데, 나 같은 종도 그런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밤새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새벽 일찍이 동도 트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미친 놈 때문에 우리가 밤새 한잠도 못 잤는데 일찍 죽여 버리자.' 하면서 끌고 성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했는데 "사랑하는 김마에 있는 나의 동포들이여, 내가 죽는 것은 정치운동을 하거나 도둑질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전한 예수를 꼭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아침밥 하러 나온 여인들이 문틈으로 내다보면서 '저런 말 안 하면 혹시 살려줄지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저러고 가나.' 하면서

가엾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성 밖에 나와 나무 밑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직전에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마당에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에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해 주시고, 이들이 모르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도 회개하고 그들의 가족도 회개하게 하시고, 김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참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기도니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권총을 들이댔다가는 곧 내리더니 따라온 부하에게 풀어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책임자에게 왜, 나를 죽이지 않았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가 권총을 쏘려고 하는데 떨려서 쏠 수가 없었고, 둘째는 미친 놈을 죽여서 뭐하나 싶어서 안 죽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한 하나님이, 이대준 전도사님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총도 못 쏘게 하고, 밧줄도 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전쟁 일선에서 총알이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 총알을 피하다가는 백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약 5 : 13),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 50 : 15)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바울과 실라는 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쁘고 건강할 때 노래를 부릅니다. 즉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행복할 때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고독하고, 병에 걸리고, 억울하고, 억눌리고, 매이고, 답답할 때는 한숨과 눈물밖에는 안 나오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라와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매를 맞고, 깊은 옥중에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뼈는 저리고 쑤셔 오는 가운데,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25절)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찬미하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마 저들이 찬송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남을 감사 찬양했을 것입니다. 셋째, 이런 고통을 내 지식이나 의지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생각해서 그와 같이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시 119 : 62), "성도들은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시 149 : 5)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이들이 옥중에서 찬양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5절 끝에 보면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습니다. 죄수들이 옥중 생활 할 때 낮에는 아주 고달픈 생활을 합니다. 잔일을 하지 않으면, 무슨 기술을 가르쳐 주고, 심한 매질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밤이 빨리 오길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서 벗어나 한밤중에는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매우 깊은 잠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찬송을 크게 했는지 철창 속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잠이 깨어 찬송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밤의 노래는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마치 여름밤의 매미 소리와 가을밤의 귀뚜라미 소리와 같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한밤중의 장양의 목퉁소 소리에 강동 제자 8천 명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사기의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 속에 장양이 목퉁소로 망향가를 부를 때 그 군인들의 마음속에 싸울 생각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밤의 노래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는지를 말해 줍니다. 밤의 소리는 멀리멀리 뻗쳐 나갑니다.

가을밤 울고 가는 기러기소리는 사람들의 잠을 깨웁니다. 겨울밤 눈이 많이 올 때 낮에는 안 들리지만 앞동네 개 짖는 소리가 밤에는 멀리멀리 퍼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라와 바울이 한밤중에 부른 찬미 소리는 멀리멀리 올라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된 것을 믿

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옥에 갇힌 죄수들의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한국의 성결 교단에 김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소경이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분입니다. 이 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점을 쳐 주고 다니면서 돈을 벌어 처자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 분의 말씀 전부가 거짓말이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느 집에 점을 치러 가서 그 문턱이 높으면 이 집이 큰가 보다, 뜰 안이 넓으면 배섬지기나 하나 보다, 장판을 만져서 미끈미끈거리면 좋은 장판인가 생각하고 이 집은 좀 잘사나 보다, 벽도 만져 보고 좋은 벽지이면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해서 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담 옆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 보지 못한 의미심장한 노랫소리가 들려와서 그 문을 더듬거리며 들어갔는데 그곳이 시골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저녁 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서 목사님은 풍금을 치고, 사모님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치는 분은 그 찬송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이 분은 점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눈먼 것도 원통한데,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냐고 물은 후, 당장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점을 치던 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후로는 돈을 벌지 못해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장인, 장모가 찾아와서 사위에게 "이 자식아, 내 딸 너 준 것은 점쳐서 밥이나 배부르게 먹이라고

준 것이지, 네가 뭐 잘나서 너 준 줄 아니?" 하고서는 처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 돈줄도 끊기고, 처자도 뺏기고, 배도 고팠습니다. 그는 너무도 외롭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와서 처량한 모습으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분이 목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성량도 좋고, 제가 어느 찬양인지는 모르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같은 노래를 부르니, 지나가던 선교사가 아주 우렁차고 은혜가 넘치는 찬송 소리를 듣고 자동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분에게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 그 분이 지난 이야기를 죽 했답니다.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내 자동차를 타시오. 내가 서울 가서 당신 신학공부를 시켜 주겠습니다." 해서 이 분이 신학 공부를 하여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분은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만 읽고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다시 똑바로 읽으라고 정정해 주기도 하고, 유머도 풍부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장님 목사님이 국수를 좋아하는 것을 안 어느 성도가 초대하여 비빔국수를 드시라고 하였답니다. 잘 잡수시고 계시던 목사님에게 그 성도가 체면을 차리지 마시고 더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하시는 말씀이, "걱정마소. 체면 안 차리려고 눈 감은 지 오래요."라고 하였답니다. 이 얼마나 유머가 풍부하신 분입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생활비도 나오고, 성미도 주니, 장인과 장모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적극적으로 크고 세게 해야 합니다. 실라와 바울같이, 김영수 목사님과 같이 힘있게 세게 불러야 합니다.

저희집 막내 아들에게 두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자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줬나 봅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세게 해줘, 세게!" 하더랍니다. 이에 저희 아들이 할아버지께 가서 세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아주 세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손자는 곧 나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기왕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물론 하나님이 크게 소리만 친다고 다 들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힘도 나고 좋은 응답도 있습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연조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직장에서도, 여건만 되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가정에는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용기가 용솟음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먼저, 26절 상반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26절 하반절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간수가 깨어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8절에 바울이 소리질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말라고 했습

니다. 29절에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30절에 "선생들아" 라고 바울과 실라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까지는 욕을 하고 죄수 취급을 했었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했습니다.

33~34절에 보니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한 후에 온 식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 큰 기쁨이 그 가정에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한밤중의 기도와 찬미로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죄수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간수장이 무릎을 꿇게 되고,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전쟁시 여름철에 신자들을 데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일단 신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놓고 처갓집 예천으로 갔는데 벌써 인민군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의 외삼촌 댁인 중평이라는 산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몇 트럭의 인민군이 새벽에 올라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전도사는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남쪽으로 피난 가라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들 있으라고 하면서 남쪽으로 성경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모두 성경을 들고 가다 잡히면 죽는다고 하면서 극구 성경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도사인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성경을 들고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큰 신작로로 가는데 거기에는 큰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인민군 두 사람이 다리 위에서 총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야 낙동강을 지나 대구로 갈 수 있었기에 논두렁에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뱀이 왔다갔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죽으면 죽

고, 살면 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를 통과해야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앞으로도 전도를 해야겠는데 여기를 빠져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자 미국 전투기 2대가 다리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인민군이 물러가게 되었고 저도 무사히 살게 되어 지금까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진정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원재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습니다. 이 분의 가족들은 함경도 홍남 사람들로서 함홍 복부동 성결교회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휴전되기 바로 전에, 국군과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중공군 100만 명이 개입을 했습니다. 작전상 미군과 국군이 모두 철수하여 함홍이 아주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신자 40, 50명들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가 초저녁부터 찬송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는데 어떤 미군 하나가 문을 척 열면서 "뭐하는 사람이오?" 하고 물으니 "신자들입니다. 비록 목사님, 전도사님이 없지만 이젠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고 마음 먹고 마지막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들에게 함홍 정류장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표를 줄 테니 표를 가지고 홍남으로 가서 배를 타고 피난을 가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람을 보내어 그 표를 가지고 와서 모두 나누어 주었고 정류장으로 빨리 가서 기차를 타고, 함홍의 부둣가를 지나 제주도까지 무사히 피난을 했습니다.

그 식구 가운데 원재숙 권사님 내외가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흥에서 도저히 자유의 땅인 남한으로 넘어올 수 없었지만, 이들이 성전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종을 보내어 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기차와 배를 타고 안전하게 이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오늘날 미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송할 때, 똑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낮과 밤이 있고, 1년을 살아도 봄과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좋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밤을 만나고,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실라와 바울같이 한밤중에라도 간절한 기도와 찬송으로써, 밤을 이기고 밝은 아침을 맞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한 자의 변화

"그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삼십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요 5 : 1~15).

본문 말씀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병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의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큰 불행한 환자가 복을 받아 큰 변화를 가진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베데스다 못가 사람들의 실상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 환자들의 사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2~3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온전하지 못한 불안한 환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모인 사회가 아닙니다. 무언가 변화를 가져와야만 하는 사람들의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도 '환자의 사회'라 해도 과히 잘못된 말이 아닌 줄 압니다. FBI가 미국의 주요 범죄 발생 실태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1960년도와 1980년의 통계입니다.

1960년은 살인 사건이 9,100건이 있었는데, 1980년도에는 23,000건으로 불어났습니다. 1960년도에 강간이 17,200건, 1980년도에는 82,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강도는 17,900건에서 1980년에는 548,800건으로, 폭행은 154,300건에서 655,000건으로, 절도는 912,100건이 3,759,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기 및 도둑질이 1,855,400건에서 7,112,700건으로 증가했고, 자동차 도둑이 328,200건에서 1,114,7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범죄 증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까? 미국의 인구 중에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거의 절반이라 해도 심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이 마약 문제로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 지출을 해가면서 마약 전쟁을 선포한 것을 보면 깊이 병든 사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은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세계는 모두가 병든 환자의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 기회주의 사회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3~4절).

저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본 일이 있습니다만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즉 기회를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기회주의 사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사람의 눈치만 보고, 소신이 없고, 주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철학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시대에 편승하며, 팔방미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놓여 있을 때는 약삭 빠르게 넘어가

며 기회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왕상 18 : 21)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이를 마땅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세력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지 않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는 기회주의자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백성에게 엘리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태도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금력이나 권력, 시대에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관이 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보고 말하고, 바로 증거하고 살다가 바로 죽었습니다. 비록 30대의 일기로 생을 마쳤지만 '여인에게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마 11 : 11)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의 부패상을 바로 보고 외쳤습니다. 헤롯 왕,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독사의 자식들아"(마 3 : 7)라고 꾸짖었으며, 헤롯의 무절제함(자기의 제수를 데리고 사는 것)을 보고 과감히 바른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면서 바로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와 타협하지 않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개척자였습

니다. 광야에서 기거하며 약대 털옷과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바르고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에도 정하게 죽었습니다. 옥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목이 잘려 나가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기독교 역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결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던 참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만을 잡는 얄팍한 신자가 되지 마시고,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회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르지 못한 일들을 보거나 또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과감하게 바른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도 거짓과 탈선, 무절제 등의 죄를 짓고 있을 때 누군가 바르게 사랑을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바른 말을 너무 했더니 공군 참모총장이 저를 불러 하는 말이, "목사님, 오래 사셔야지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 대통령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바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기독교인들이 눈치만 보아서도 안 되고, 손해 볼까 다칠까 미꾸라지 빠지듯 요령을 피우는 기회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3)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7절).

이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 상황은 치열한 경쟁입니다. 남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중한 병을 앓고 있나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못가에 뛰어들어갈 준비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중요시하며 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늙은이, 어린아이 등 상관없이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오늘날 인간 사회의 상태는 이리와 이리의 관계요 만인의 전쟁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리는 의심이 많고 남을 믿지 않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인간들이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만 보아도 여당은 야당을 믿지 못하고, 야당은 여당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학생을, 학생은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처절한 관계가 되어 가고,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 가족끼리, 친척끼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더 심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년이면 몇십만 명씩 떨어져야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할 때도 10 : 1, 100 : 1 혹은 1000 : 1까지 될 정도로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예술, 군사, 교육, 종교 부분에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특히 사업 면에서 끝없는 경쟁으로 울고 웃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지난번 가발 장사끼리 서로 경쟁하다가 모두 망한 일이 있었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심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식당 뿐만 아니라 봉제업, 신문사, 비디오 가게, 교회까지도 경쟁의 지경 속에 있습니다.

한편, 38년 된 고질병에 걸린 성경 본문 속의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의 경쟁 속에서 전혀 이길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런데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그에게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명절이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부림절이라 생각합니다. 부림절은 주전 473년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에서 살 때 하만이라는 못된 총리 대신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신앙 여성 에스더가 금식 기도하고 임금에게 호소해서 자기 민족을 멸망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부림절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도 부림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의 잠자리가 좋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부잣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실 것이며 자기들도 따라서 잘 자고, 잘 먹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부잣집 사람들이 아니었고 성 밖에 버림받은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저희 교회의 '나사렛 청년부' 라는 부서에서 노동절에 60여 명이 자동차에 여러 물건을 가지고 멕시코에 가서 어려운 한국 개척교회를 도와 준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페인트칠을 해주고, 길을 닦아 주고, 옷도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3,000불도 주고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참 지도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불쌍한 자들을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진실된 자가 아닐까요?

20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의 일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 노벨평화상 수상식에 참석하려고 스웨덴에서 기차를 타는데 많은 신문 기자들이 그를 만나 취재하려고 기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차 1등석에 앉아 있어야 할 그가 없었고, 2등석에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3등석에서 마치 시골 할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해진 옷을 입고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왜 선생님 같은 분이 형편없는 3등석에 앉아서 가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문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위를 세 개나 받았고, 세계 일류학교에서 명예학위를 20개나 받고, 영국에서는 백작이라는 칭호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민 온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성적도 좋은데, 그렇다면 졸업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 멋진 자동차와 집을 사고, 여가를 즐기면서 남은 생애를 호화롭게 살 것인가?"

이러한 삶은 바르지 못합니다. 나에게 좋은 조건들이 있다면, 이것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값진 봉사 정신을 앞세우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큰 인물입니다.

둘째, 38년 된 환자의 병을 고쳐 주게 된 경위

(1) 예수님이 환자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픈 환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픈 환자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해서 바위 틈에 숨어 떠는 것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먼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바로 왕 앞에서 노예로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누가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들을 끄집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시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고기잡이를 하는, 비린내 나는 시몬을 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신다면서 제자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공모한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5 : 16)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 번 읽어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이성과 오성, 감성, 지식, 영혼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안목과 육신과 이생의 자랑에 급급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소돔 성에서, 죄악에서,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어, 은총의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은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 : 10).

이 말씀은 칼빈의 3대 은총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즉 선행적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 상성적 은총입니다. 선행적 은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상성적 은총은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힘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은총을 말합니다.

저도 이북 유치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아직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나서 깨닫고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강권적 사랑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6~7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쳐다

보고 힘겹게 이야기하는 간절함입니다. 아마도 환자의 얼굴은 오랜 병고 끝에 광대뼈도 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얼굴은 백짓장 같았을 것입니다. 38년이나 앓았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던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창 32 : 24~25).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나가면서까지 축복을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왕상 18 : 44).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까지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많은 비를 내려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마 15 : 27~28).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렸을 때 결국은 그 여인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눅 11 : 8).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눅 18 : 5).

이 과부의 끈질긴 강청함과 간절함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감동시켜 결국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밤낮으로 구하는데 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야곱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가나안 과부와 같이 무엇이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렘 29 : 12).

여러분들이 현재 무슨 문제로 불행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까?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곧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8~9절).

이 병자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불구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 지키

고, 헌금 내고, 성경 보고, 기도, 봉사, 충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 : 22)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고,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복의 근원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4절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겐 아무것도 필요없었습니다. 돈, 명예, 장관 훈장, 아름다운 여자, 자식, 좋은 집도 다 소용없었습니다. 오직 나아만의 바람은 자기 병을 고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 온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 : 17)는 말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 1 : 4~5).

그래서 제자들은 원수들의 소굴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성령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온 지 오래된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와서도 우리 교회를 잘 다니며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수천 불의 액수 되는 check(수표)를 주면서 필요한 곳에 선교 후원금으로 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적당히 믿지 않았습니까? 혈기도 부리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작년 한국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갔었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변화와 복이 함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시면 의미 있는 변화와 수없는 복을 받습니다.

지금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이 나약한 모습으로 힘든 길을 홀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38년 된 병자처럼 병 낫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

면 우리 곁에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본문 속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14절).

그는 가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아마도 병이 나은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의 병을 고치신 분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강함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그 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고 꿋꿋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또한 나의 삶에 큰 변화와 복이 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매일 지키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망자의 재기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왕상 19 : 1~4).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비를 쏟아지게 한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도 능력 있고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절망에 빠져 한사코 죽기를 원하는 장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강했다가 한때는 약하고,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은 참으로 엘리야의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4절).

'내 생명을 취하라' 는 말은 나를 죽여 달라는 말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이렇게 헐값으로 값싸게 죽여 달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한때는 신앙이 좋다가도 한때는 약해지는 모습을 찾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 11 : 15).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다스릴 때도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애굽을 돌아보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원성이 자자할 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 이 곤고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절망의 부르짖음을 하는 장면이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 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욥 3 : 11~13).

이 말씀은 욥이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순식간에 다 몰살당하고, 자신의 몸에는 욕창이 나서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아내마저도 욕하고 가 버리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탄식입니다. 아주 애절한 절망의 소리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욘 4 : 8).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로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니느웨 성 밖에서 박넝쿨이 머리를 덮어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될 때 기뻐하다가, 버러지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갉아 먹어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지며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를 쬐자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때는 좋다가 어느 때는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호경기가 있는가 하면 불경기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도 꼬일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으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환영받을 때와 배척받을 때, 튼튼할 때와 병날 때, 가정이 행복할 때와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들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쪽의 맛을 느끼는 사람만이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많은 이해 속에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한때는 능력의 종이었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취해 달라고 절망의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를 통해 그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든 절망의 상태가 닥쳐왔을 때 엘리야를 생각하며 힘차게 이겨내는 방법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망하였던 이유

(1) 그 사회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크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 왕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간계에 조종을 받아 선량한 백성 나봇의 포도밭을 탐내어 누명을 씌우고 그 백성을 죽이는 악한 짓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비유한다면 나라의 아버지요, 백성을 비유한다면 아들과 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님이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가는 너무나 마음 아픈 짓을 일삼았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왕의 타락과 권력의 남용에 절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이방인 여자가 왕비가 되었는데, 그녀가 올 때에 그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그 신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방방곡곡에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자신입니다. 바알신은 농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는 신이고, 아세라신은 음란한 신으로서 아기

를 임신하여 생산을 장려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 앞에 드리는 의식은 남녀가 모여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그 신 앞에서 부도덕한 짓을 행하는 음란한 종교입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잡아 불살라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잔인하고 쓸모없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겨 오던 이스라엘에 이런 좋지 않은 종교가 들어옴으로써 종교가 부패하여 정신, 윤리, 가정, 사회가 망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종교는 그 나라의 진리의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런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 심한 고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 19 : 14).

엘리야의 이런 고백 속에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없고 동조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의 뜻을 몰라주니, 고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들을 들어 본다면, 갈멜 산에서 참신을 가려내기 위해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과 싸운 일을 볼 때, 분명 하나님께서 홀로였던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또한 흉년이 되어 온 지면이 갈해 있을 때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강퍅해서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여왕의 세력 속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들이 눈치 보면서 여전히 왕의 편에 서서 엘리야를 모략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 여기에서 오

는 고독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병 가운데 고독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고독에서 오는 병에서 절망의식을 가졌습니다. 마치 전도서에 나와 있는 다음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전 4 : 8).

자식과 형제, 아내, 부모도 없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 헛되구나!' 라고 고독하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고독을 탄식하는 미국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에서 사는데 1년이 가도 전화 한 번 걸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시 137 : 1)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강제 노동을 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할 텐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고생을 앞으로 얼마나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속히 자유를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고생을 계속하자니 기가 막히고, 그래서 모두가 강가에 나와 앉아 고국 유대땅을 향해 하염없이 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물은 아마 고통의 눈물, 망향의 눈물, 회개의 눈물, 고독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1964년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먼저 온 신학교 후배 목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저는 처자를 두고 미국 와서 사는데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밤 12시까지 일하는데, 추운 겨울 12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들어와 보면 쓸쓸하고 배는 고픈데 만들어 먹기는 귀찮고 그래서 한국땅을 쳐다보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또 뉴욕으로 이사 가신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혼자 사는데 취직이 어려워요. 남들은 취직을 잘 하는데 저는 버스 타고 멀리 왔다갔다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한 번 집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반짝 들어다가 서울 내 집에 내려 주세요.' 하면서 울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독할 때 절망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3)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2절).

아합은 이세벨 왕후의 꼭두각시였습니다. 이세벨이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고 주장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신과 싸워 승리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분노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너를 저 사람들과 같이 죽이겠다는 시한부의 변고(辨告)를 알렸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인 까닭에 겁이 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 광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가시나무인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집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맹세하고도 세 번이

나 부인한 것을 보면 보통 사람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 그곳에서 북한 간첩을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결재를 맡아 오리동 골짜기에서 사형 집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목이므로 입회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개종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겠으니 잘 말해서 제 생명을 건져 주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쌍하기 짝이 없어서 제가 법관들에게 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은 기도나 하세요. 목사님, 그것도 공작입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울면서 제게 애절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북에도 아내가 있고, 안양에도 아내가 있는데 안양에 있는 아내에게 자식을 잘 돌봐 달라고 전해 주세요."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 의식을 가집니다.

둘째, 엘리야가 재기(再起)하게 된 경로

엘리야는 고독과 절망을 느꼈지만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재기하게 되었으며 과거보다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왕상 19 : 5~7).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어야 갈 길을 가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그제야 엘리야는 순종하여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만약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그냥 죽어 큰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고독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즉 절망 중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라' 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 : 1).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 : 24).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딛 3 : 1).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히 13 : 17).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 : 29).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 : 21).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 : 22).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요 13 : 23).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신 5 : 29).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 : 8).

신 · 구약 성경을 읽어 볼 때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람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어미 꿩이 새끼 몇 마리를 데리고 콩밭에 가서 콩을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새끼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멀리 떠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모이를 쪼아 먹어라. 그리고 입으로는 쪼아 먹지만 내가 말할 때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해라."

그런데 이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새끼 꿩 중 한 마리가 어미 말을 듣지 않고 멀리 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꿩은 새끼 꿩들에게 어서 훨훨 날아서 나무에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어미 말을 듣고 순종했던 새끼 꿩들은 살 수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멀리 가 버린 새끼 꿩은 여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듣는 신령한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돈을 버는 데 힘이 들어도, 또는 자녀를 키울 때에도 세상으로 눈을 향하지 말고, 사람 소리에 귀를 기울

이지 말고 하늘을 향해 언제나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 하나는 새벽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에서부터 엄마의 손에 이끌리어 나오는 갓난아기까지 다양합니다.

제가 더 감동받는 것은 아이를 둘, 셋, 넷까지도 데리고 오는 아기 엄마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께 물어 보았습니다. 남편에게 허락받고 새벽 기도에 나오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기 엄마가 자기 남편은 새벽이면 더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자기가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있기에 저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디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도 한없는 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에게 순종하고, 군인은 상관에게 순종하고, 성도는 목사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 크게 잘못되고 얽힐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만약 그 규정이나 법대로만 준행하고 순종하면 사고의 수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삼상 15 : 22).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재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 주 사십 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

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 : 8~9).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사십 주야를 행하며 갔던 곳이 바로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호렙 산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굴 속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 새 능력, 새 사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시 91 : 15).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 : 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 : 7).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 : 15).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 : 12~13).

제가 오래 전에 필라델피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목사가 미국 독립전쟁 때 마지막으로 전쟁한 곳을 가보자고 제의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아주 넓은 평야에 흘러가는 강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총사령관 조지 워싱턴이 나와서 이 눈 속에 엎드려 밤새 울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장교가 그 모습을 보고 막사에 들어가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

자 모두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실 테니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강을 건너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울며 기도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지만 벽을 향해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15년을 연장받았으며,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 과부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성도라면 의무로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기도는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기도가 인간의 심신에 끼치는 영향은 호르몬의 영향과 같다. 기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 지적 활력이 증가되고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완전한 인격 성장이 된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기도는 영적 호르몬의 흐름이다. 맑은 공기를 공급받듯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3)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 : 12~13).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즉 "네가 있는 곳이 바른 곳이냐? 내가 옳다고 인정하는 곳이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여기 와 있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리냐?"라고 하셨습

니다.

여러분들도 서 있을 때 스스로 자문자답(自問自答) 하십시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나를 부르신 자리인가?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인가?"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왕상 19 : 15~16).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일어나 돌아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벌써 35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집안도 좋은 편이었는데,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겠다고 하여 그곳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고 농촌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에 집안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축도 죽고 많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했으나 도저히 소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빚쟁이는 돈 달라고 재촉하고, 애들은 먹고 싶다고 울어대니 그 아픈 가슴을 누가 알아 주었겠습니까? 하루는 세상 살기가 싫어 자살을 하려고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110마일 정도 되는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달리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아이들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죽게 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고쳐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크게 성공하여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 희망을 갖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숯불로 입술 지짐을 받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웃시야 왕이 죽었고, 나라는 양분되고, 사회는 혼란스럽고, 건질 길은 막연하여 낙심하고 있었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을 숯불로 지짐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50년 동안 나가서 봉사함으로 그 나라를 바로잡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작은 것, 큰 것 각각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물건에도 모두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일신 종교의 창설을 위해 보내졌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닦기 위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 생

각으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척자의 사명을 다하라고, 제2의 청교도 사명을 다하라고,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개척자가 되어 길을 잘 닦아 많은 한국 이민자가 더 잘 살 수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개척자가 되어 이 잠자는 미국 땅을 기도로 깨워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교육가요 사상가인 칼 힐티는 "일생 일대의 최대 행복한 날은 그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라고 말하였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일본을 위해 있고, 일본은 세계를 위해 있고,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사명감에 불타는 말을 하였습니다.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약해 있거나 강해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결국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때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헌신한 모습으로 지난날보다 앞으로는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주자의 인생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전 9 : 24~27).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구원의 상급을 위해 앞으로 경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운동 경기 중에서 달리기를 실례로 들어가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사회의 경기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 후서를 쓸 때 고린도가 그리스의 한 도시이니까 신앙 생활하는 사람도 경기장에 선 경주자와 같다고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경기장에 선 사람마다 우승하기를 원합니다. 개인경기든 단체경

기든 우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경기에 우승하려면 몇 가지 법칙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도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26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경주에서도 승리하려면 법칙을 알아야 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싸움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승리를 놓고 하는 하나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만인과 만인의 관계는 전쟁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가 전쟁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로 아벨 형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뱃속에서 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롬 7 : 23)라는 바울의 고백도 있습니다. 즉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것인데 그것은 육과 영의 마음이 항상 싸운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오늘까지 개인적 싸움, 씨족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 등 태평양에 한 번도 파도가 일지 않는 날이 없는 것과 같이, 인류 역사는 투쟁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피로 물들인 땅, 즉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린이도 젖꼭지 하나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가지고 서로 뺏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약육강식(弱肉强食), 우승열패(優勝劣敗)가 갓난아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군에 입대하고, 진급하는 것도 경쟁이며 취직, 결혼 생활 하는 것도 경쟁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 군사, 예술도 싸움이고 심지어 교회도 신자 쟁탈전으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서울 올림픽에서도 각 나라 선수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명예를 걸고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승자는 기뻐하고 패자는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신앙 생활도 신령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 : 12)고 했습니다. 즉 육과 더불어, 혈기와 더불어, 정사와 권세와 더러운 주관자인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신령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 : 14~17).

둘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주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도 뼈를 깎는 훈련을 많이 해야 금메달도 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은 누가 더 많은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육체적 훈련도 해야 하고, 정신적 훈련도 해야 합니다.

전에 서울 올림픽에서 소련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금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그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체육도 하나의 이데올로기 선전수단으로써 강한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대여섯 살이 되면 그 아이의 소질대로 운동을 시키는데 하루에 4~5시간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잘하는 아이만 뽑아서 올림픽에 내보내기 때문에 금메달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련과 약간 다릅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어느 정도 봐주기 때문에 소련의 선수들처럼 그렇게 통제적으로 강력하게 훈련을 못 받으니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도 지난번 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금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권투 경기를 하는데 우리 선수가 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의자를 치고 심판원들에게 달려들어 막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질서 있게 의사를 표명하면 좋았을 텐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참 급한 성격으로 행동이 앞서 나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애국심은 있지만 참 급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옥의 티입니다. 물론 심판이 잘못했다고 많은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정신의 훈련을 받지 못한 까닭인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문화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민도(民度)입니다. 급작스럽게 경제 성장은 했지만 정신 훈련, 도덕 훈련, 신앙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 그런 추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올림픽에서 김영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우리 한민족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레슬링을 배우고,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오로지 레슬링에만 전념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결혼식은 금메달을 딴 다음에 올리겠다는 굳은 각오로 계속 훈련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훈련을 했으니까 세계 제일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러 간 그 교회 담임목사님에 대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와서 영어 교사를 하시다가 미국에 오려고 유학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분에게 있어 결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49번까지 선을 보고 50번째 선을 본 여선생님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수속을 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를 데리고 가면 목표한 공부를 마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결혼은 미국에 갔다와서 하기로 하고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혼자 떠났습니다.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약혼녀와 함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한 내외가 와서 공부하는 것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사 공부를 과연 할까? 훌륭한 논문을 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결혼도 미루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계에 상당한 소견이 있는 박은태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서울 법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프랑스 소르본 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 등에서 공부했고, 37세에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3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분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서 이기려면 굳은 결심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대성을 하려면, 밤잠 안 자고, 결혼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좋은 논문을 써낼 수 있는 것같이 신령한 세계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키셨고, 모세는 광야에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 : 7~8)고 했습니다. 신령한 훈련도 뼈를 깎는 고생을 해야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신령한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종 공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기도와 금식하는 훈련, 철야 및 산기도 훈련 등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육과 죄와 마귀와 이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이민 신자들을 보면 훈련을 안 하고도 금메달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훈련을 받지 않고도 전쟁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신문만 보고, 골프나 치려고 하고, 놀려고 하고, 그저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위험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금, 은, 동메달은 못 따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전쟁에서 패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니? 다 널 위해서 하라는 것이다."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교육받고, 철야, 금식, 산 기도 하십시오.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왜 성도들을 들들 볶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안 지고 부활만 바라보고, 가시관은 안 쓰고 면류관만 바라보고, 무덤에 안 내려가고 보좌만 바라보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셋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훈련을 해야 하는지,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프랑스인은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 때는 가장 강하지만, 전쟁 목적을 모를 때는 가장 약한 민족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문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개인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이성과 양심과 신앙에 비추어 보아 싸워야겠다는 생각

을 하면 강한 군대가 되지만, 어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약한 민족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그릇된 전쟁이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달려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훈련도 달게 받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성의 완성과 경기를 통한 국가 평화의 증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올림픽이 병들었습니다. 한강물이 맑은 물방울이 흘러내려 이루어졌지만 나중에는 흐려져 구정물이 되는 것처럼, 처음 그리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얼마 동안은 인간성의 완성과 운동을 통해 세계 평화 증진에 이바지했는데,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치화, 상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 소련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고, 1984년 미국에서 개최할 때는 소련과 북한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마다 금메달을 따는 사람에게는 상금이 아주 많이 내려져서 일생을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나라에서 돈을 주지는 않지만, 광고만 몇 번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세계 평화보다 이런 정치적이며 물질적인 것으로 오염이 되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경주를 하는 우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경주와 싸움을 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죄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금메달보다 영원한 면류관을 쓰

고 영원한 기업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 : 7~8).

금, 은, 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세상의 것을 위해 달음질하지 않고,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달음질하고,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주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오태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분에게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부터 일제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유혹도 받았지만 그 분은 정말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아신 분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달리다가 하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마지막 운명하실 때 자손들을 불러 놓고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지만 더 잘 믿고, 교회 봉사를 잘하지만 더 잘하고, 서로 더욱 화목하게 지내라.”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87세를 한결같이 한 길을 달려가시면서, 백발이 휘날리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신 분이십니다. 이 분은 저 천성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신 신령한 운동의 챔피언으로서, 지금은 하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시고 안식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넷째,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25절).

절제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절제가 최고봉의 열매입니다. 경주에도 금메달을 원한다면 절제를 해야 하듯이, 신령한 경주에도 면류관을 원한다면 먼저 상대방을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신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한 신앙의 철인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음식을 줄이고, 단 것을 먹지 말고, 술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에 대해서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안식과 사색적 분위기를 빼앗아 가는 분주와 성급을 피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종교적인 흥분을 멀리하고 모든 일에 신중함과 인내를 지키십시오. 성경과 좋은 종교 서적을 많이 읽고, 새신자와 병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나 신앙 역사를 볼 때 개인이 망한 이유는 상대방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인

은 시기심 때문에 망했고, 에서는 배고픈 것을 못 참아서, 고라는 명예심 때문에, 아간은 탐심 때문에, 발람은 돈 때문에, 삼손은 여자 때문에, 웃시야는 고집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헤롯은 교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도 어떤 때는 약으로 먹는 때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먹어야 약이 되지, 너무 먹으면 병들어 죽든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죽든지 하여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성의 유혹을 못 이겨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왕양명이 산속의 도둑은 물리치기 쉽지만, 내 마음의 도둑을 물리치기는 어렵다고 말하였는데 이것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 : 23).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막 8 : 34).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째, 승리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면 금, 은, 동 중에서 상 하나만 받게 됩

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셔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후한 상을 주십니다. 금, 은, 동만 주고 나머지는 가라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25절 하반절에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주가 되는 경기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그리스가 전력이 약했기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은 전쟁 기간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그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자 한 군인이 쉬지 않고 달려와 승리의 기쁨을 전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마라톤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은 금메달을 준 것이 아니라 월계수의 잎사귀로 엮은 월계관 하나를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흘 후면 말라질 잎사귀를 쓰고도 좋아하는데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 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면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전 9 : 25). 이것은 절제를 많이 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利)한 낫을 가졌더라"(계 14 : 14).

이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 : 12).

이것은 순교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 : 8).

이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빌 4 : 1).

이것은 전도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 : 9).

이것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신실한 신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마 27 : 29).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쓰신 관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도 훈장이 여러 가지입니다. 공로에 따라서 훈장이 다릅니다. 저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한국에서 훈장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이민 사회 교육에 공헌했다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훈장이 다릅니다. 면류관도 절제한 사람, 승리한 사람, 순교한 사람,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받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요 신앙가인 뉴튼이 사도 요한처럼 영혼이

하늘 나라에 갔는데, 세 가지를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고, 생각 밖의 사람이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바리새인들은 안 왔고, 몸 팔던 창녀, 세리, 강도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입니다. 교만한 자는 못 옵니다.

둘째, 조금밖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와서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 집은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파에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셋째,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경주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이 세상에서 싸움에 승리하려면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먼저는 나를 이기고, 선한 싸움 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잘 믿어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第6부

현실과 우리의 사명

학습, 세례의 의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9~20).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각 교회의 형편에 맞게 학습과 세례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학습이란 구도(求道)한 지 6개월 만에 베푸는 의식이고, 세례는 학습을 받은 후 6개월 이후에 그의 신앙 고백과 생활이 정당할 때 모든 문답을 통해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럼, 학습과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중요성과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학습의 의미

에베소서 4장 22~32절에 장황히 잘 설명을 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학습이란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듯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옛사람은 이방인의 허망한 마

음, 방탕과 더러운 욕심, 거짓말과 분노, 도둑질과 더러운 말 등의 성품을 가졌다고 합니다. 허망한 마음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아무런 양보와 타협도 없이 고집 불통인 마음을 의미하고, 방탕과 더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동물적인 인간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양심과 윤리가 없고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거짓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모독합니다. 오늘날도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근거도 없는 거짓말로 새빨간 더러운 말입니다.

분노는 옛 아담의 성질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꾹꾹 참지 못하고 작은 일로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감정을 폭발하고 싸우러 다니는 것은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은혜와 진리가 쏟아져 나왔지만 옛사람은 입을 열면 음담과 패설,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합니다. 쌓은 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옛사람에게 속한 성품이요 행동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학습은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지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인자와 긍휼과 용서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옛날에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남의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는 말을 했지만 이제는 인자한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전에는 아이들에게 "물 가지고 와." "왜 빨리 안 가지고 와?" 이런 말을 했지만 새사람이 되면 "미안하지만 아버지에게 물 한 그릇 떠 줄 수 있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자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보, 나 조금만 더 눈감고 잘 수 있을까?"

상냥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와서 공부하는 배고픈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주말을 같이 보내고, 음식도 대접하고, 바닷가로 함께 놀러가는 일도 새사람으로서 할 일에 속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노인들, 교통 사고로 남편을 잃고 병중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새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저희 교회 여호수아 남전도회에서 경로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느 신문에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사람의 특징 중 한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전에는 쉽게 남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용서하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감히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자가 바로 새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학습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의 의미

세례라는 말에는 "몸을 담근다, 몸을 적신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약속에 동참하는 표를 받는, 즉 인을 치는 것이 세례입니다. 들판에서 먹이는 동물을 보면 뿔이나 엉덩이에 인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네 것이라는 증표로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처럼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속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1946년 인천 송현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 시민이다.' 라는 인을 쳐 주셨습니다. 제가 중공에 갔을 때 정치인, 문화예술인들은 술을 얼마나 잘 마시는지 그들에게서 코를 찌를 듯한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들의 술 문화는 한국과 좀 달랐습니다. 높은 사람이 잔을 들고 건배를 할 때 낮은 사람은 잔의 밑을 잔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높은 사람의 잔 꼭대기를 톡톡 치는데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저에게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하고, 가는 곳마다 술과 담배를 권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권하는 술과 담배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신자는 파티에 가서 누가 술을 주면 "하나님, 이것도 사랑이니 어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 형편 아실 줄 압니다." 하고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신앙의 척도를 잴 수 없고 구원 문제를 논할 수 없지만 자기의 생명에 해롭고 덕이 안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세례는 귀중한 의식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

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죄가 없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동참자, 협동자, 동역자로서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을 보여 주기 위해, 자기도 육신을 가진 고로 구원받는 사람과 동참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구령 사업(救靈事業)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하나의 시발점을 보여 주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베드로는 3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행 2 : 41).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고(행 8 : 38), 욥바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넬료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주었고(행 10 : 48), 바울은 빌립보 옥사장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고(행 16 : 33), 다메섹의 아나니아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행 22 : 16).

셋째, 세례의 열 가지 뜻

(1)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는 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롬 6 : 3),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 : 24)는 말씀처럼 세례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많

이 듣습니다. 일일이 쫓아가 따지고 전화하고 싸우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짓이고,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지 사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죽자, 또 한 번 죽자, 송장이 무슨 기분 나쁠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례는 옛사람, 정과 욕, 과거의 자기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에서도 목사가 죽어야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따지고 달려들면 교회가 몇 조각으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2)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히 9 : 14).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양, 즉 예수님의 피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3) 예수님과 함께 영적 부활의 표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 : 12).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묻어 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육신은 죽고 영혼은 다시 일어나 사는 영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4)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딛 2 : 14).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 후에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받은 후에는 아마도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중공을 다녀와서 한참을 중공 생각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생활은 이곳의 생활과 너무나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도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각종 좋은 음식을 먹고, 예배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하나의 지구 속에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유로운 나라인 미국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도 좋은데, 우리가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쁨이 넘쳐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5)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롬 6 : 13).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병기,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많은 아까운 청년들이 사탄을 위해서 죽어 갔습니다. 히틀러

를 위해 죽었습니다. 동족을 위해 죽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기, 곧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표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6) 예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표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 : 8).

옛날에는 돈 중심, 향락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이 앞서고, 우선이고, 제일의 가치가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7) 신앙 생활 향상의 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 3 : 1~3).

과거에는 땅만 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낙랑장송(樂浪長松)에 앉아 이슬을 받아 먹고 사는 독수리가 구만리 장천을 올라가려고 하늘을 보는 것처럼, 신앙의 향상의 표로 이만치 신앙이 자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8) 성신이 임한 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였고(마 3 : 16),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였으며(행 10 : 44~48),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줄 때도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

다(행 8 : 38～39). 제가 물 속에서 나올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 성찬식 참여의 권리를 얻는 표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만이 성찬식에 참예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초대할 때 초대권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는 권리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도자(求道者)였지만 학습 교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으면 정회원이 되어 선교 사업, 봉사, 재정 문제, 모든 인사권에 발의권, 결의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림살이를 하는 국회의원을 훌륭하게 생각한다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의논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원이 되었으니 이것이 국회의원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넷째, 세례 교인의 생활

세례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만 결혼한다고 하니까 세례 받을 때까지만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장로님도 전에 이런 분 중의 하나였다가 지금 세례를 받고 나서 은혜를 받아 장로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

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위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침을 잘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 10년을 다녀도 자기 식구만 알 뿐 교인들과의 교제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유기적이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어울리고 유대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꼭 기도에 힘쓰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새끼치고, 고기를 낚고, 양이 새끼를 낳듯 전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 속에도 빈곤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 세례 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 자신이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위의 말씀처럼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즉 모이기에 힘쓰고, 가르침을 잘 받아 그대로 행하고, 성도의 교제를 갖고,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을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돕고 돌아보고, 맡은 일에 충성해서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례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 : 26~29).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으로 창설하신 예식입니다. 주후 28년 4월 13일 저녁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처음으로 창설하신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초대 사도들로부터 2,000여 년 동안 모든 교회가 이 성찬 예식을 계승해서 지켜 오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하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매주일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매일 나오는 사람마다 떡을 떼어 주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마음을 다듬고 의미 있는 성찬식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찬에 대한 학설

성찬에 대한 학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는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실재설입니다. 이 학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직접적으로 들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화체설입니다. 이 학설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학설로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학설입니다.

셋째, 공재설입니다. 이 학설은 루터가 주장하는 학설로서 천주교의 입장을 반대해 주장했으며, 중도 입장을 취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넷째, 기념설입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이나 츠빙글리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그 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에서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기념설을 믿고 있습니다.

둘째, 성찬의 의미

(1)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 22 : 19).

즉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분의 몸은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 육신과 신성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일점의 흠과 티가 없는 분입니다. 떡은 그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매를 많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여섯 군데 찢김을 받아 그 찢긴 살의 일부분을 기념하는 주님의 살인 것입니다.

(2)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 : 20).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여섯 군데 상처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레 17 : 11). 그래서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몸에서 피가 삼분의 일이 빠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1990년 12월에 제가 한국에 집회를 나갔을 때 제 아내와 동행을 했습니다. 제 큰딸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내가 출혈을 많이 해서 급하게 한양대학병원에 갔더니 장이 썩어 끊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에게 수술하다가 잘못되어도 괜찮

다는 사인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썩은 자리를 잘라내고 성한 곳으로 이어 붙이는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봉지를 수도 없이 수혈했습니다. 미국의 피는 에이즈 감염자가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위험스럽다는데 다행히 그 피들은 깨끗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이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여섯 군데 피를 짜내서 믿음으로 우리 혈관에 집어넣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피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둘째 아담 되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피를 상징하는 이것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일반 사람들의 피와 다릅니다. 우리들의 피는 아직도 완전치 못한 피입니다. 순결치 못한 피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피는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정결한 피, 속죄의 피, 능력의 피, 화목의 피, 생명의 피라고 하였는데 그 피를 우리 몸에 수혈해 주었으므로 우리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한 경지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피는 성도의 교제와 화목을 의미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행 20 : 11).

이것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 가서 저녁에 성도들을 모아 놓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이

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강론을 했었나 봅니다. 그 때 유두고가 설교가 너무 기니까 졸다가 그만 2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는 것은 즉 친교했다, 화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1970년 미국 북침례교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후에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하기 전 오전 시간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성만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까지 보아 오던 성찬식과는 다른 성찬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이블에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는데 떡은 큰 빵 한 덩어리를 갖다 놓았고 포도주는 적은 잔이 아니고 큰 은 주발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둘이 거기 앉았는데, 한 사람은 떡 뒤에 있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하나씩 나와서 빵 큰 덩이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배종자가 앉아서 사발에 있는 포도주를 조금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집행자가 그 사람의 입이 닿았던 곳을 하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서 놓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가며 나와서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입에 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참뜻이 있는 성찬식이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한 덩이의 빵을 같이 먹고 한 사발에 있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한 피 받아 한 몸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자매, 한 식구, 한 공동체였던 것을 지금도 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피 받아 한 몸이 된 신령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형제자매 친척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 이는 혈육으로 난 것도 아니요,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령한 피로 한 식구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교제와 화목과 한 식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4)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13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지경에 가면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에게, 주께서 오늘 성만찬을 떼실 별실을 준비해 달라고 하면 그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 물동이에 물을 길어가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마가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을 비우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 안에 있는 그 집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방은 굉장히 큰 2층 방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나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열두 제자를 앉히시고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성찬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거행하는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식이 됩니다. 저도 성찬식을 벌써 50여 년 동안 여기저기서 가져 보았습니다만 이 성찬을 떼는 그 순간은 참으로 엄숙한 시간이고, 주님이 오신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떡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라는 것입니다.

(5) 주님의 겸손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유대 나라 풍습에는 식사할 때 발을 씻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은 더워서 늘 짚신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니까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손은 물론이고 발도 씻깁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겨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앉았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맏형이고, 동생들도 많은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 또 요한의 생각으로는 '내가 막내이고, 형들도 많은데 내가 왜 그 일을 해.' 중간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에는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내가 왜 해.'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십자가는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가시더니 팔을 걷고 대야에 물을 떠 가지고 와서 막내부터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발을 죄다 씻어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 발은 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아직도 완전치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내가 다시 한 번 너를 씻겨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내 몸 다 씻겨 주세요."라고 말하자,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미 회개하였으니까 너의 부족한 것 그것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신 후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신 후 손에 묻은 물을 닦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들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주 되고 선생 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들도 나가서 나를 본받아 뭇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여인의 태중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정말로 양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십니다. 예수께서도 스스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집회를 다닐 때 꼭 이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예수님이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또 33년밖에는 살지 못하셨지만 왜 인류 역사상 그렇게 위대하게 사셨느냐 하면 자기를 포기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으며, 그리고 종 되어 섬기셨으며, 희생하신 이 네 가지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항상 자기가 살게 마련이요, 자기가 죽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옮겨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자기 포기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원수에게 입을 맞춰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가 친척은 사랑하기 쉽지만 팔아먹는 배신자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 되어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냄새 나는 발을 섬기는, 희생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집회에 다니며 그 교회의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결혼하신 지 몇 해나 되셨습니까?"

"삼십 년입니다."

"사모님 발 한 번 씻어 드려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씻어 드렸다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밤에 씻어 주세요. 설교만 하실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천을 하세요."

가까이 계신 장로님께도 묻습니다.

"장로님,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사십 년 되었습니다."

"아내의 발을 씻어 주어 보셨습니까?"

"……."

"오늘 씻어 주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씻어 준 사람마다 보고하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독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국 간호사로 독일 남자분과 결혼하셨는데 그 남자분은 천주교인이고 여자분만 독일 한국 교회에 나오는데 그 남편은 개신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남편의 발을 씻어 주었더니 눈을 감고 황홀경에 젖어서 기뻐하며 발을 다 씻은 후에 "오늘 웬일이오?"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발을 씻어 주라고 하더라고 하니까 "그래?" 하더니 그 다음 주일에 그 남자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보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다음에 또 오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남자는 22년 만에 자기 아내의 발을 씻어 주었더니 결혼한 이래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곧 하나님이신데 그 죄인들의 더러운 발, 열두 사람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은 겸손과 봉사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않으시고 실천으로, 무언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코스타메사의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쓰레기가 눈에 띄면 자기가 다 집어져다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도 껌이 붙어 있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본인이 다 닦습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사찰이나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보신다면…….' 하면서 먼저 움직여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백마디 말보다도 하나의 실천이, 한 번의 모범이 산 교육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 교회 흑인 아이들이나 멕시코나 한국 아이들이 잘못되는 것은, 물론 사회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부모님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부모가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6) 영적 양식의 효과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 된 음료로다"(요 6 : 53~55).

위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신령한 떡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3일, 5일만 굶어 보십시오. 물론 40일 금식하고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 날 먹지 아니하면 이 신체가 쇠약해집니다. 지난번 교회 40일 연쇄 금식 기도에서 사흘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세 끼를 굶고 나니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신령한 살, 신령한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새롭게 소생하는 양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물론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 들으러 나오고, 또 자녀 때문에 나오고, 또 친교를

위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봉사를 위해서 나오지만 영적 충전을 하러 온다는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의 배터리가 나갔을 때 가서 배터리를 충전해 오면 다시 씽씽 달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영력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삽니다. 그때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서 영이 내 육을 지배하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영을 충전하는 신령한 떡,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7)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잔치', '성찬' 입니다.

저도 어떤 때에는 설교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저 밑에 앉아서 성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학생 때에, 무슨 큰 대회에 가면 저도 한 일원으로서 앉아서 떡을 나눠 주고 떡을 받을 때 2천 년 전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합니다. 그 잔을 받을 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던 주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 : 5).

그 떡을 붙잡고 그 포도주 잔을 잡을 때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은 내가 머리로 죄를 지은 까닭에 쓰신 것이요, 양손의 못자국은 내 손으로 지은 죄, 가슴의 창자국은 내 마음의 흉

측하고 엉뚱한 생각, 그리고 양발의 못자국은 이 발 가지고 못된 곳에 다닌 죄 때문에 못박혀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하며 그것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는 주님을 못박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님께 쓴잔을 드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사람 되어 내 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소서."

제가 어떤 때에 성찬식을 집례하다 보면 우는 권사님, 우는 남자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1948년 정읍 정거장 앞의 제이 장로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밤에 철야를 하는데 그 교회의 전도사님의 동생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삼십 냥에 팔았지만 저는 주님을 십 전에도 팔았습니다."

옳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그 처참한 모습은 내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가질 때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입니다.

(8) 감사와 헌신의 의식입니다.

성찬에서 떡과 잔을 받아먹고 마시는 성도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며 새롭게 살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죄악된 생활은 지난날로 족하고 이제부터는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

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는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50세 되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자꾸 먹고 보니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5년, 혹은 10년? 아니야, 불의의 사고로 오늘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그래서 요즈음에는 순간순간마다 '깨끗하게 살자! 준비하자! 죄 짓지 말자!'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죄악된 생활은 지난날로 족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것이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9) 어린양 잔치의 모형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의 큰 잔치에도 예비 연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먼저 공중에 나타나셔서 7년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사람은 변화해서 7년 잔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찬 예식을 갖는 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그림자입니다. 공중 잔치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결혼식할 때 보면 꼭 하루나 이틀 전에 신부도 오고, 그 부모들도 오고, 들러리도 오고, 신랑도 옵니다. 예행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은 장차 공중에서 주님 잔치에 참석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10) 복음 전파자의 파송식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 : 26).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날 위해 부활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 전파자의 파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 : 21).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 : 16).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 : 14).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 10 : 15).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 9 : 16).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 12 : 3).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식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잔은 예수님의 피요, 교제와 화목을 의미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겸손과 봉사의 교훈이요, 영적 양식을 받는 시간이요, 새롭게 하는 의식이요, 감사와 헌신의 의식이요, 어린양 잔치의 모형이요, 전도자의 파송식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성찬의 깊은 뜻을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순간, 이 시간 새사람 되어 새 생활을 하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날 위해서 부활하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 어린양 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고 그것이 지난 후,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잔치에 참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 : 14~22).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오늘의 터키 나라에 속합니다. 일곱 교회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일곱 교회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시대적인 구분으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부터 속사도 시대까지의 교회를 말하고, 서머나 교회는 최초 300년간의 핍박시대의 교회로 해석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로마 교황 제도까지의 교회를 나타내며,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로마 교황시대의 교회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사데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감리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존재했던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19세기의 선교 시대의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재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시대별로 교회를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이며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건물을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6 : 19)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몸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두 교회는 아주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교회는 다같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도 세 교회는 다소 칭찬을 받기도 하면서 책망을 받았고, 나머지 두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이 신랄한 비판과 가혹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은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지금도 터키에 가면 이 두 교회가 있던 도시는 크게 번성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한 사데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멸망하고 다만 옛날 도시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칭찬받은 두 교회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교회들에서 배울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머나 교회(계 2 : 8~11)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계 2 : 9).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항만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1969년 7월에 제가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과 실지 현지 답사 교육에 한 번 따라가 본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인천이나 부산 항구보다 몇 배 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한 고대시인 호머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감독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부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

회적인 권력와 명예와 지위를 가진 인물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날그날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외적 환난과 육적 궁핍이 오히려 내적인 부요를 가져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은 상반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물질이 많으면 영적으로 풍요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할수록 믿음이 더 좋다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난하셨습니다. 사도들도 가난했고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이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교회가 믿음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업에 앞장섭니다. 미국에도 보면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물질을 바쳐 교회를 사거나 짓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 와서 노동하며 땀흘리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짓고 산 사람은 많지만 부자가 재산을 드려 교회 짓고 샀다는 이야기는 교포 사

회에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인 가난, 외적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내적인 부요를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나라에 있어서 어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개인이 부유하고 태평할 때에는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요 개인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큰 환난, 핍박, 역경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겸손해지고, 신앙이 다시 불붙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봐서도 그렇고 일반 역사를 봐도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나라 한국전쟁 때 부산에 피난 나온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지만 철야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부산에 와서 집회를 하고 새벽에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에서 난로도 없이 새벽에 신자들이 가득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부유하고 편안할 적엔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고독하고, 병들고, 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바울 사도도 성경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고후 1 : 8)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부유할 땐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울 땐 가까이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민 생활에 너무 돈, 물질, 명예,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부유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낫지만 도에 지나는 부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적당하게 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로 가난하

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 : 8~9)라고 기도하였는데 참 모범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 전 신문에서 본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이민국에서 40건이나 들춰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미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은 마약 장사하고, 한국 사람들은 돈만 아는 사람들인데, 일본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와 있는 교포들이 이 사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 보따리 가져올 때마다 이상한 것을 가지고 오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6백만 명이나 죽인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잘못한 것이지만, 죽인 이유가 독일군은 전쟁에 나와 목숨을 바쳐 싸우는데 유대인들은 뒤에 앉아서 독일의 돈을 다 긁어 모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히틀러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믿음에 있어 부유하다는 예수님의 칭찬은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빌라델비아 교회(계 3 : 7~13)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심이 많은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

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계 3 : 8).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지진이 많은 도시입니다. 큰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오고, 집이 무너지고, 많은 재산이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진 외에도 미진이 잦아 사람들을 불안케 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곳을 떠나갔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 그대로 삽니다. 파괴된 집을 복구하고 다시 세우면서 그 땅에 애착심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 사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참을성이 많았습니다.

신앙 생활에도 이처럼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핍박자가 있었고 이단들의 유혹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도 사랑하십니다. 큰 능력을 가진 모세, 엘리야, 바울 같은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적은 능력을 가진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는 적은 능력을 받아 가지고도 힘껏 일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적어도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

시나니"(고전 1 : 27~28)라고 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큰 능력 가진 사람이나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나중에 천국 가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을 더 받겠느냐 이름없는 평신도가 더 상을 받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없는 성도가 더 상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 : 10)고 했습니다. 인내했으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인내'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인내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내한 것을 지켜 인내했으니 장차 온 세상에서 지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영감을 주십니다. 대낮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야 수만리 떨어진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눈이 많이 왔을 때 깊은 한밤중 저 먼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셔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 : 18)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죽은 송장 외에는 시험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크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 모세 등을 비롯하여 성경 역사나 인간 역사를 보면

사람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을 더 탄다는 말처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 분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적으로나, 자녀에게나, 친구지간에나, 직장에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아닌가 보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믿음이 없나 보다, 죄가 많나 보다.'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시험이 올 때 말씀과 인내를 가지면 시험이 연단이 될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곽선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길 "평상시 공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아이는 시험볼 때 마음이 두근거리지만, 평상시 준비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시험날이 되면 실력을 보여 주겠다고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연단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뱃사공은 바람이 불수록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몰고 가고 독수리는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간다는 말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복음을 끝까지 잘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셋째, 에베소 교회(계 2 : 1~7)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 2 : 4).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이고 상업 중심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최후까지 목회를 하던 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여생을 같이 보낸 곳이 여기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크게 성공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디모데도 일생을 에베소에서 대부분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디모데와 같은 좋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신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계 2 : 2~3).

처음에는 이것저것 칭찬하다가 '그러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러나'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심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하였고,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 이단자들이 들어와

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서로 파가 생겨 의심을 하고 대화가 끊어지고 미워하고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먼저 나누어 준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던 것처럼 기독교라는 것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고 마침내 천국 가서는 가장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 어떤 교회를 보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미국 L.A.에 1965년도에 왔는데 그때는 5,000명의 교포밖에 없어서 주말만 되면 사방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때 2년 동안은 저 혼자 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식사를 하라고 해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반갑고 죄송한 마음으로 각 집에 가면 정성껏 음식을 해주고, 음식도 싸 주곤 하였습니다. 그때는 서로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저 멀리에 동양인이라도 있으면 가서 한국 사람이냐고 묻고 맞으면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뜨겁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일도 뜨겁게 하고,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것이 변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새 목사님이 오시면 뜨겁게 반기다가 좀 지나면 뜨겁게 쫓아낸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연애할 때,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 할 때, 약혼 전에 뜨겁게 사랑하다가 점점 식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며칠 후에 뜨겁게 내버리는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지만 첫사랑이

없는 가정은 마음으로 간음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처음 믿는 사람은 첫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 중에 뜨겁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도 안 받고 직분도 없지만 새벽 기도까지 참석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대개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도 목사가 무슨 설교 할지 미리 다 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령한 남편,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정열적인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나오는 것, 제직들이 제직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심야기도 나오는 것,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등을 놓고 평가해 보면 내가 아직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지 식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버가모 교회(계 2 : 12~17)

버가모 교회는 배금주의, 유물주의, 황금만능주의로 떨어진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계 2 : 14).

발람은 돈을 사랑하다가 망한 선지자입니다. 버가모는 로마시대에 아시아의 정치적 수도였고, 거대한 문명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으며, 동시에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예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과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모압 나라 임금 발락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미혹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천사를 보았지만, 사람인 발람 선지자는 돈에 눈이 어두워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책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유 1 : 11)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발람이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할 때 생의 우선 순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치 판단을 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자녀를 가진 이상 물질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당하게 벌어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에서, 롯의 아내, 아간, 발람, 게하시, 가룟 유다가 물질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

는 경제학 박사는 말하기를, "물질 생활에 시간을 많이 바치면 이에 반비례해서 신앙은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만 보아도 7일 동안 가게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 초기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목사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저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어떤 신자에게 예배 시간에 나오라고 하였더니 가게를 어느 누구에게 맡겨 놓아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너무 시간을 많이 바치면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과 "재물이 많아 곳간을 늘려 지켜도 오늘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누구 재물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두아디라 교회(계 2 : 18~29)

두아디라 교회 역시 향락주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계 2 : 20).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방 나라 시돈에서 데려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거기에 자기 우상을 섬기고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의식이 특별한데, 예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남녀가 가서 죄 짓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은 위에서 말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니고 다른 여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자인데 아마 구약시대의 이세벨과 같이 우상을 좋아하고 음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살던 곳인데, 공업도시로서 많은 조합 상인이 있었고, 돈이 많이 있었고, 태양신과 바다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남녀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간음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偶像崇拜)란 무엇입니까? 꼭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절해야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남편, 자식, 지식, 과학, 정치, 오락 등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기울여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세상과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민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이 향락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중의 예배 시간에 무엇 때문에 못 나오십니까?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에 다니는 분은 부득이 하지만, 집에 계시면서 무엇 때문에 못 나옵니까? 성도가 주일날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녁예배는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도 잘 안 나옵니다. 예수 잘 믿어 남 줍니까?

미국의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 중 마약을 하는 학생이 100만 명이 되고, 임신한 아이도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처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 생활 잘하고 모범을 보여 주면 그런 집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 생활하고 자녀를 기

르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향락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낚시도 가고, 총 사냥도 하고, 골프, 테니스, 야구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공예배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여섯째, 사데 교회(계 3 : 1~6)

사데 교회는 다음과 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계 3 : 1).

즉 죽은 교회입니다. 사데라는 곳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명성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한때는 대단히 부흥했고 명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외적인 박해도 없었고 이단자도 없었으므로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극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연히 내려갔습니다. 영적으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 모습은 훌륭한 신자 같아서, 학습과 세례도 받고, 의무 이행도 잘하며, 공부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신령한 조건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습니다. 사람들 중에 간판은 뭐다뭐다하며 많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 삶은 따라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뿐, 간판뿐이라는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일곱째, 라오디게아 교회(계 3 : 14~22)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계 3 : 15).

라오디게아는 금융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극장이 있었고, 공장, 눈을 치료하는 약학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합니다. 누구나 미국 생활을 잘 하려면 '예, 아니오'의 구별이 확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차가운 것은 뜨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뜨거운 전도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개 전도해 보면 "예, 믿지요." "예, 나가지요." 하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안 나갑니다." 이러면 차라리 더 나을 텐데 "예 믿지요."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앙 생활에서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엘리야가 바알과 대결을 하며 싸울 때 말하기를, 모든 백성에게 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고 하며 하나님을 좇든지, 바알을 좇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하였습니다(왕상 18 : 21). 물의 경우도 아주 찬 것이 유익합니다.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유익합니다. 여름철에 미지근하면 내버립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 · 구약 성경 가운데 미지근하다는 말은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미지근한 것은 뱉어 내겠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프레드릭 왕이 하루는 궁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다 아이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동전 한 푼을 가지고 "이것이 어디에 속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예, 광물나라에 속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맞다." 하며 가지라고 주었답니다. 오렌지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속한지 물었더니 식물나라에 속한다

고 해서 또 주었습니다.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며 어느 나라에 속하냐고 하니까 어떤 영리한 아이가 "예,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기쁨보다 마음의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곧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막상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에서 말한 일곱 교회 중 어느 교회 신자에 속해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같이 충성된 교회 신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인내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입니까? 아니면 배금주의로 떨어진 버가모 교회입니까? 향락주의로 떨어진 두아디라 교회 신자입니까? 아니면 간판뿐이고, 이름뿐이고, 말뿐인 사데 교회 신자입니까? 아니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한 군데의 책망에라도 속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지극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내 안의 어떠한 모습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이 임하고, 의의 면류관, 감추인 만나, 만국을 누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들은 책망받는 신자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신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귀한 선물을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의 신앙 생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 : 1~2).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 : 10).

저는 지난 1993년에 남미 선교여행의 최초 목적지인 브라질 리오 자네이로 동양선교교회와 아르젠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 가서 하루 집회를 마치고, 파라과이 아쉼 산에 가서 우리 자매 교회인 연합교회에서 이틀 집회를 가진 뒤, 브라질 상파울로에 와서 이틀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먼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는데, 여행 중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좋은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한 것이 많이 성장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

다. 그 당시 남미는 불경기 가운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흐뭇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지를 탐방하면서 계속해서 느낀 것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자들의 헌신과 열심 여하에 따라 선교와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 외형적으로는 당회의 결정에 의하여 담임목사가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이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마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주어진 직분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직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충성되이 여겨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골 1 : 25).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분 맡은 사람들이 어

떤 신앙 생활을 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크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유없이 결석하지 않고, 모범 사원이 회사를 이유없이 결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은 꼭 거룩하고 구별되게 지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부흥되고,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 : 3)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구별하여 지키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출 20 : 8).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바로 이날은 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교회에 나와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성도간의 교제를 갖게 되고, 바쁘고 고달픈 이민생활에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기계와도 같습니다. 자동차를 1년 열두 달 동

안 시동을 안 끄고 달린다면 그 자동차는 분명히 결국 엔진이 파열되어 터지거나 고장이 날 것입니다. 육체도 우리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는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 돈'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과로하다가 도중에 쓰러진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달러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육체도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영원한 잔치의 하나의 표가 됩니다.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사 58 : 13~14).

주일을 지키면 즐거움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잘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만일 여호와가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은 자기 노력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생활과 좋은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영적 긴장감을 더해 줍니다. '더 성경 봐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곳은 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겠

구나.' 하는 영적 긴장감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무디어져서 마지막엔 양심에 화인을 맞아 결국 죄 값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치관을 알게 됩니다.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 긴장감을 더해 주고 상호 공동친교를 가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서로 만나고, 악수하고, 웃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풍성한 감정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지적인 신앙, 의지적인 신앙 등도 중요하지만 감정적인 신앙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각 교회의 성가대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성도 영적인 감수성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도 우리의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일을 성수할 때 영감과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세상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 기쁨은 찰나적 기쁨과 순간적 기쁨이지만, 이 기쁨은 샘솟는 기쁨, 영원한 기쁨, 뺏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다투고 와도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회개하여 서로 화합하도록 합니다.

미국의 체신부 장관이었던 워너 메이커는 백화점 왕인데 처음에는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잘하다가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를 체신부 장관으로서 일을 좀 해달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신자가 되고, 세례를 받은 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펜실베이니아에 가서 성경 공부와 예배 준비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 월요일 아침 백악관 근무지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시면 제가 장관의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것을 허락하게 되었고, 그는 장관의 일을 하면서도 매주 그의 고향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952년 한국동란(韓國動亂) 때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한번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각 단체에서는 누가 한국을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증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신여고 김필례 여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 분이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 부족함이 없다고 보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을 했으니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장관이 찾아가서 며칠 몇 시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꽃다발을 증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까? 그날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런 것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미국 대통령에게 꽃다발 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가 인권을 존중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한 점을 많은 사람들이 높이 평가합니다. 그

러나 더욱 위대한 것은 그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애틀랜타에 있는 자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뿐 아니라 교회학교 어린이부 교사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 : 25),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 : 10)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 심리, 사회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인격 형성은 부모에게 95%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2.5%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서는 1%밖에 영향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보고, 듣고, 뼈가 굵어지는 것은 부모와 그의 가정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이나 문제아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주로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 생활 잘 하는 집의 아이들은 큰 잘못 없이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줄곧 미국에 살면서 유대 아이들이 마약을 어떻게 했다, 갱단에 어떻게 관련됐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서 철저히 가정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아이들도 이런 일이 적다고 하는데, 주로 한국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 중국, 월남, 히스패닉계 아이들이 나쁜 일에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가정의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에도 유익합니다. 주일 잘 지키는 가정에서는 이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

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을 일류 학교에 보내 미국에서 성공과 출세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 일류 학교에 들어가고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다 죽을 텐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다른 유산은 못 물려 줘도 올바른 종교, 올바른 신앙,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주는 현명한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일은 꼭 해야겠다고 하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면서도 못 보내고, 전화도 해야 하는데 전화도 못하고, 찾아갈 것도 못 찾아가고, 감사할 것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빚진 것을 아직 못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화목할 것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나열한 것은 꼭 하지 못한다고 해도, 기도는 중요한 것이라 매일 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한다면 신령한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려면 호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 생활을 바로 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높으심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좋은 교훈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힘써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 충전지가 나갔을 때 새로 충전하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기도하면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많은 예수님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마 4 : 1~2).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 : 35).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눅 5 : 16).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눅 6 : 12~13).

"이 말씀을 하신 후 팔 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눅 9 : 28~2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눅 22 : 39~44).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면 부족한 우리 인간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요약해 보면, 중요한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개인 문제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 밤중에 주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레이 박사는 부흥사며 설교가입니다. 그분은 기도에 여섯 가지 방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죄가 있으면 기도가 방해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 59 : 1~2).

이기심이 있으면 기도가 방해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 4 : 3).

또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 21 : 13).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막

11 : 25).

그리고 또, 부부지간에 싸우고 마음으로 불화가 있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 : 7).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약 1 : 6~7).

한편,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에는 세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 1 : 11).

구체적으로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셋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 : 2).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 : 10).

왜 충성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바라시기 때문이며, 종은 언젠가 계수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잠 28 : 20)는 말씀처럼 충성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최선의 길로 빛을 발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곧 충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각 교회의 부서마다 충성의 모습을 보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성가대의 열심 있는 연습과 순종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가 무슨 직업,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소입니다. 소는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많거나 적거나, 칭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 일을 충실히 합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것을 짜증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때는 자꾸 시계를 봅니다. 흔들어도 봅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하고 생각하며 일의 대가인 돈을 바랍니다. 그러나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살과 가죽, 창자, 간, 뼈도 주는 충성을 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충성을 다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성 재건을 위해 충성을 하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

였습니다.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업체, 단체,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인의 잔치에 영원히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험담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와 군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OMS라는 선교본부에서 저를 위해 미국에 오는 길을 열어 주더니 영주권까지 내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주었습니다. OMS 60년 역사에 그 선교단체를 통해 온 사람 중에 영주권을 내준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공부가 목적이어서 영주권을 사양했지만 결국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눈치나 보고 적당히 일하며 충성된 모습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선교단체에서 저를 위해 유학이나 영주권을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했더니 복이 임함을 경험했습니다.

가끔 자기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저에게 어떤 어떤 자매들에 대해 물어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좋고 괜찮은 사람이란 평가 기준을 충성이란 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자라면 지체없이 결혼시키라고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은 우리에게 복을 갖다 줍니다. 충성을 하면 자기와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단체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금면류관 받아 쓰고, 삼위의 하나님과 더불어 천사와 영원한 잔치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넷째,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십일조를 바친 사람들과 십일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무엘, 이스라엘 자손 등입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창 14 : 20).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창 28 : 22).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삼상 8 : 15).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레 27 : 30).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대하 31 : 5).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 3 : 10).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마 23 : 23).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

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눅 11：42).

그렇다면 십일조란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권의 인정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나님 사랑의 표시, 신앙의 척도, 근덕의 요인, 복 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 쓰임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이며 과부나 고아, 나그네를 도와 주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신 18：4~5).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신 16：11).

오늘날 교회에서는 십일조를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건물비를 내고, 교육, 선교, 봉사, 신학교, 방송, 전화 등 모든 교회 경비로 충당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십일조를 내서 다섯 가지 기쁨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돈 벌어서 십일조를 뗄 때의 기쁨, 십일조를 봉투에 넣을 때의 기쁨,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릴 때의 기쁨, 회계 보고할 때 내 십일조가 선교 사업에 유용하게 쓰였다는 기쁨, 내 십일조로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기쁨입니다.

브라질에 안정삼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십일조를 십의 일조 이상으로 많이 해서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목사와 전도사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인재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불경기 속에서도 사업이 번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초신자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그러나 세례교인부터는 기쁨으로 십일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사람은 세금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교육하고, 국방에 쓰고, 보건 사업을 하고, 도로 공사에 씁니다. 이것처럼 세례 교인부터는 십일조를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자 명령입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은 서울에서 막차를 탔다가 시계를 빼겨 버렸습니다. 또 만원 버스에서 누가 만년필을 빼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내 나갈 땐 주머니를 단단히 단속하고 나가니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우리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땅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좀먹고 녹슬고 도둑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십일조를 못한 세례교인이 있으면 오늘부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십일조를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선교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에 힘을 쓰고, 그 근처의 땅을 사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이므로 그대로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 전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탕자가 돌아오는 것, 이것은 다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마 28 : 1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 : 9).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숫자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영혼 구원에 대한 숫자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3천 명, 4장 4절에는 오천 명, 5장 14절을 보면 큰 무리가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6장 7절에는 더 심히 많이 구원받았고, 21장 20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인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용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슬기로운 머리로, 친절한 손길로, 끈질긴 발걸음으로, 따뜻한 미소로, 인력 투자로 전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식구가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하기에 어떻게 했는지 물으니, 어떤 사람이 여비가 없고 며칠 굶었다고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재우고 먹이고 직장을 얻어 줬더니 교회 왔다고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좀 데려다가 재우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직장도 얻어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날 호주에서 온 편지를 보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자라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목표는 신 · 구약 성경을 한 사람이 한 번씩 꼭 보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교회의 직분자가 충성과 봉사로 열심을 다할 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직분자의 직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잘 수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과 위로가 각 개인과 교회 위에 있습니다. 각 교회의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들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답고 모범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현실과 우리의 사명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행 16 : 6~10).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아시아 교회를 돌아봄과 동시에 제2차 전도를 떠나려고 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리스 북단에 있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에 와서 도와 달라고 간절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방향을 바꾸어,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동과 서를 완전히 결합시키는 작업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고, 또 복음이 영국으로 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다시 복음이 100년 전(1988년 기준) 한국으로 전파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환상, 즉 "여기에 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말은 옛날 바울 사도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볼 수 있고 애타는 소리가 많건마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대중 문명과 기계 문명 속에, 방관적인 향락주의 속에서 신령한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많은 편지 또는 인편 그리고 전화로써 도와달라는 요청이 매우 쇄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3장을 보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마다 귀는 두 개씩 있지만, 신령한 소리는 육신의 귀만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성의 귀만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에 할례를 받아 깨끗한 귀를 가진 사람만이 신령한 호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이 현실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현실상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크게 네 가지의 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 공산주의, 회교주의, 기타 사회입니다. 그러면, 각 사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민주주의 사회

소위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 자본주의 사회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부르짖는 민주주의의 첨단을 걷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뜻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진단할 때 지금 미국은 병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의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윤리성, 분열과 대립, 의식구조의 변화라고 말들을 합니다.

첫째, 비윤리성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윤리 도덕을 알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인들은 국가는 도덕 위에 세워야만 건전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은 경비도 덜 들고, 시간도 덜 들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들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한 것입니다(마 7 : 24～27).

미국 사회는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7일 올림픽가에서 스물두 살 된 백인 청년이 한국의 세 살 된 아이를 아파트 세탁실로 끌고 가서 욕을 보였다는 신문기사를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납치하여 죽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전과자로서 정신이 건전치 못한 자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미국의 윤리성의 단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혼해서 데리고 온 딸을 겁탈하는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지 못한 미국의 비윤리성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둘째, 분열과 대립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유를 존중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책임질 줄 모르고, 방

종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 경우 바로 분열과 대립이 오는 것입니다. 백인과 흑인의 대립, 흑인과 황인의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 젊은이와 늙은이의 대립, 교파와 교파 간의 대립 등입니다. 똑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립하는 것이 자유 진영의 단점입니다. 대립은 날로 격심해 가고 분열 또한 점점 심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의식 구조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좋은 방면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치관이 잘못된 방면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질과 향락과 현실에 너무나도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정신이 말살되어 가치관과 의식 구조에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죄 짓는 일이 교회 안에서나 정부 고관들에게서나 이 사회에 만연해 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면서 또 하고 반복하므로 마귀가 되어 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 : 15)는 성경 말씀이 틀림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큰 병폐입니다.

(2)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계급이 없다, 내 것 네 것이 없다, 감옥이 없다, 지상낙원을 건설한다" 등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에 만연되어 가고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도 사회주의 국가로 변질되어 가고, 아프리카와 남미도 물들어 가서 한때는 공산주의가 세력을 상당히 확장했었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첫째, 유물론을 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인간 역사도 생산과 소비로 규정된다는 유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인간은 몸, 정신, 영이 합쳐 인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잘못된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 '만물의 영장' 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이 가질 수 없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철인 데카르트는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칸트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있듯 내 마음에는 반짝이는 양심 도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의 이런 면을 부정하고, 물질로 보기에 인간의 가치를 존엄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테러를 하고,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무신론입니다. 즉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비, 바람을 신격화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생활들이 어려워지니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현세에서는 희망이 안 보이니 내세에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어내었다. 따라서 지식과 과학이 발달하여 살기 좋으면, 종교는 자연히 말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지성인일수록 더욱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뉴튼이 "천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박한 지식은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성인일수록 참신을 압니다. 달나라에 갔다온 사람들 중에 더욱 신앙을 갖게 되어 지구에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동물로서 좀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이 좀더 부드럽고 풍요롭기 위해 종교를 찾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인 파스칼은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민 속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행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말을 하였습니다.

부모 밑에 자란 아이와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면서 신앙 생활 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인간 우상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신으로 대치해서 한때는 스탈린이 신이고, 모택동이 신이라고 할 뿐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악몽의 북조선"이라는 글을 김만철 씨와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두 사람이 합작으로 썼는데, 그 중 한 구절을 보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밥 먹을 때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어야 한답니다. 마치 성도들이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나 김일성 사진을 걸어 놓고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든 교육을 잘 시키고 경제가 윤택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제도를 고치면 사회가 좋아지게 마련이지만 지식이 많을수록 고등 범죄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나 사회를 좀먹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웠으나 잘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물질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무한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가지려고 야단입니다. 또 과학을 발달시켰더니 화약고에 우리가 올라앉아 있습니다. 언제 터져 잿가루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도를 고치면 좋아진다고 하더니 소련은 제도를 고친 지 83년이 되고 중공은 53년이 되고 이북은 56년이 되었는데 그 나라들이 지금 문명국가이며 인권이 보장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감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넷째, 인권을 유린합니다. 그들은 당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개인 자본주의를 국가 자본주의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들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씁니다. 우민정책은 적당히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잘 공부시키면 자꾸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비평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합니다.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수많은 지식인들을 죽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로 정책을 씁니다.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자꾸 일을 시킵니다. 피곤해서 반혁명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서 곯아 떨어집니다.

끝으로, 학살(虐殺) 정책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소름이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인민을 51가지로 성분을 분류했는데 사람들마다 이 사람은 자본가, 이론가 등등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멋대로 정해 놓은 죄목으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죄인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소리없이 순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와 전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음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3) 회교 사회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가 모두 모슬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며 인도네시아에는 1억 몇천만 인구가 전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의 교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다는 코란경과 그들이 믿는 알라신은 여호와의 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맹목적 복종을 합니다. 한 소년이 한 손에는 코란을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칼은 복종과 엄격, 강한 율법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정매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중동에서 여러 해 계시다 오신 분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시길, 그곳에서는 도둑질하면 손목을 자르고 조금 더 심하면 발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발 잘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녀간에 부부가 아닌데 죄를 지으면 사람을 많이 모아 놓고 목을 자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간음한 여인도, 강도도 구원시키는 회개의 종교, 은총의 종교입니다. 모슬렘 국가는 칼을 가진 엄격한 국가입니다. 차별의식이 많고 남존여비사상이 철저합니다. 여자는 '차도르' 라고 하는 눈만 내놓는 덮개를 쓰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은 일생 동안 결혼도 못하는 반면, 여유 있는 사람은 법으로 여자를 여섯 명 이상씩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과 고관 관리들은 다섯 명 여섯 명씩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교부의 큰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여자를 열 명이나 데리고 사는데, 자식이 많아서 자식들 생일은 고사하고 이름도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슬렘 국가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은 남자끼리 동성애가 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인 어떤 여행자가 중동에 모르고 들어갔다가 장에서 뭘 사려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자가 모자라니까 납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여행 다닐 때 중동에는 여자를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모슬렘은 배타심이 강합니다. 만약 모슬렘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집안에서 제명하고 호적에서 제명합니다. 취직도 잘 안 시켜 주고 출세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슬렘권에 사는 사람들의 철학입니다.

(4) 기타 사회

제가 아프리카에 갔다가 네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빈곤, 무지, 독재, 좌절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도 문맹이 90%입니다. 자기 나이도 모릅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니 가봉 같은 곳에서는 독재자가 나와서 30년간 독재를 합니다. 빈곤과 독재가 있으니까 공산주의가 파고듭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계의 4가지 형태의 사회를 보았습니다. 지구는 현재 깊이 병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바삐 치유하는 운동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롬 1 : 16).

구체적으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네 가지 있습

니다. 복음의 주가 되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에서 태어났지만 세계를 정복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했지만 장차 제왕들이 무릎 꿇고 예배드릴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온유, 겸손, 사랑이었지만 모든 창칼을 부수고 승리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 썩어졌지만 유독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것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깊이 병든 개인이나 사회, 인류를 살리는 길은 지식, 과학 무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

(1) 복음은 개인을 구원시킵니다.

누가복음 8장 26~39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제 사위가 내과의사 암 전문의이고 저희 교회에 양방, 한방 의사들이 많이 계셔도 귀신들린 자는 못 고칩니다. 귀신들린 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속에는 산상수훈(山上垂訓)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경 66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5, 6, 7장은 남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쓴 사람은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사람, 로마 사람의 앞잡이, 개라고 멸시받던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새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복음은 개인의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영까지 살리는 능력 있는 말씀

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송 목사님이 제 고향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동리 1,496번지에 한번 가 보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길 "시궁창에서 용이 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제가 조그만 용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니 말입니다.

(2) 복음은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사도행전 16장 30~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면 자신과 가정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 내외가 결혼한 지 여러 해가 되는데 서로 다투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이 없는 가정은 얼마나 죄가 많고 다툼이 많고 비극적입니까? 복음이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18세기 초 죄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었지만 웨슬리라는 감리교 창설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 영국을 고쳤습니다. 프랑스는 피 흘린 혁명이었지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웨슬리가 영국을 구원했습니다. 복음은 그 사회와 나라를 구원합니다.

(3) 복음은 세계 평화를 이룹니다.

다음에 기록된 말씀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

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 : 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행 10 : 36).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엡 2 : 14).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적인 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시킨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인류가 사는 길이 있다면 어떤 주의나 사상, 그리고 무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의 사명

유명한 교육자 칼 힐티는 "인간 인생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를 느껴야 삶의 의욕을 느끼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넓고 자유롭고 풍부한 미국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목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를 양성하고, 선교사를 지구촌에 파송하여, 재정적 지원도 하고, 기도의 복병이 되라고 보내신 하나님

의 목적을 자각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 전도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12제자를 불러 교육 훈련하여 전도자를 만들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르는 것이 예수님의 최초 최대의 사업인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을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재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란 신학교를 말합니다. 신학교가 좁으니까 나무를 베어서 학교를 만들자고 해서 학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물론 과학자, 교육가, 사상가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도 바울, 웨슬리, 루터, 무디와 같은 훌륭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육관을 세우고 신학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많은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9월(1988년)부터 신학교를 열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또한 3국에서 전도자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전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며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2)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전도하러 내보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 내외를 파송했고 현지 선교사도 파송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내보내야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많은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백인 선교사들은 다 가라고 내보냅니다. 백인 선교사가 자의든 타의든 자본주의 정책에 있어서 이용을 당했거나 동참을 했기 때문에 다 쫓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내보내야 합니다. 헌신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야 합니다.

(3)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예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을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홍성호 선교사님 내외가 컴퓨터를 배우고 연봉을 받으면 1년에 최소한 7만 불 내지 10만 불 받을 수 있지만, 미국에서 훈련받을 때는 2천 몇백 불 받던 것을 뉴기니아로 갈 때 "목사님, 뉴기니아에 가면 돈이 조금 드니까 1천 불만 보내 주세요." 해서 그것만 보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이지만 자기들이 조금 받

는 대신 다른 선교사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여러 군데를 돕지 않습니까? 국내, 국외, 신학교, 대학교 선교사, 병원, 군대, 고아원, 양로원, 재소자, 넝마지기, 어린이 전도학교, 기독교 신문 방송 등을 돕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도들의 피땀 어린 정성의 헌금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일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도움의 손길을 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2장 5~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성도들이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롬 15 : 30)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를 위해 전도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만 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하는 심야기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노

인들도, 원로 목사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 뭐 하시느라 안 나옵니까?

예수님의 선교 사업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 : 3)는 말씀처럼 은혜 받은 여자들이 선교 사업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업은 빌립보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가난한 성도들이 돈을 모아 선교비를 보내 왔기에 한국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이화 대학, 연세 대학, 그리고 많은 중 · 고등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이름도 모르는 미국의 가난한 신자들이 보낸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고, 미국에 와서 석사 공부를 할 때도 이름도 모르는 교회 신자들이 보내는 돈으로 3년간 공부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매년 선교 헌금이 점점 액수가 올라감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넉넉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교대열에 동참하지 않은 교인이 있으면 이번 한 달간 기도하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 1불도, 5불도 10불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기왕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제대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신자는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성숙한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자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를 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해야겠고, 기도로써 우리가 선교의 복병 노릇을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설교집―

경주자의 인생

•

2001년 9월 1일 인쇄

2001년 9월 10일 발행

지은이 / 임 동 선

발행인/ 이 형 규

발행처/쿰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1005호

TEL/745―1007, 745―1301～2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www.qumran.co.kr

E-mail ; qumran@shinbiro.com

qumran@hitel.net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2,000원

책임교열 : 오완 · 송은주

ISBN : 89―7434―645―1 93230